

석사학위논문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성 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김 홍 선

2002년 8월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고 성 준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2년 4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전공

제출자 김 홍 선

김홍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02년 7월

심사위원장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국문초록>

## 남북 정상회담 이후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

-제주도 초등학교 교사의 통일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김 홍 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6·15 남북정상 회담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이정표를 찍어 놓았다. 분단이후 서로 대립하고 적대시로 여겨왔던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졌다. 또한 이산가족 상봉, 남북 장관급 회담, 경제 실무 회담, 금강산관광 등 전에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말 그대로 화해·협력 시대가 전개되었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꾸준한 ‘햇볕정책’의 결과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안과 지도 방법이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동안 우리의 통일교육은 통일의 당위성만을 강조하다 보니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알맞은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사들은 변화하는 시대환경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받아들이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가 있으며 소극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내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남북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여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의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며, 일선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 예로 2000년도부터 지급된 교사용 「통일」 교재는 그 내용이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설문결과 활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더 효과적인 것이다. 또한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에 대한 방향과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안으로 시수 확보 및 교원연수, 프로그램·자료 개발 및 제공, 지도 방법 등을 소개하였다.

통일시대에 살아갈 어린이들에게 알맞은 수준의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지도해야 통일이 되었을 때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해야 할 소명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개선방안으로 저학년용을 위한 지도방법, 고학년용을 위한 지도방법 등을 제시하고,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로 정부의 역할, 학교의 역할, 교사의 역할을 제시하여 앞으로 일선교사들이 현장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활성화하는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   |     |
|---|-----|
| <b>I. 서론</b> .....                          | 1   |
| 1. 문제의 제기 .....                             | 1   |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                         | 2   |
| <b>II.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b> ..... | 4   |
| 1. 6·15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                   | 4   |
| 2.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 .....                | 6   |
| <b>III. 학교통일교육의 변천과정</b> .....              | 9   |
|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 9   |
|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교육강화 방안 .....                 | 15  |
| <b>IV. 초등학교 통일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b> .....      | 21  |
| 1. 조사 대상의 표집 .....                          | 21  |
| 2. 자료의 처리 .....                             | 22  |
| 3. 결과 분석 및 논의 .....                         | 22  |
| <b>V. 통일교육 지도의 활성화 방안</b> .....             | 67  |
|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 67  |
|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           | 93  |
| <b>VI. 결론: 요약 및 제언</b> .....                | 97  |
| 1. 요약 .....                                 | 97  |
| 2. 제언 .....                                 | 100 |
| 참고문헌 .....                                  | 102 |
| Abstract .....                              | 105 |
| 부록 .....                                    | 107 |

## 표 목 차

|  |    |
|--|----|
| <표 III- 1> 교과서의 북한관계 서술 연대별 변화 .....               | 10 |
| <표 IV - 1>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                    | 21 |
| <표 IV - 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성 .....          | 23 |
| <표 IV - 3>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 | 24 |
| <표 IV - 4>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 | 26 |
| <표 IV - 5>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                     | 27 |
| <표 IV - 6> 2001년도 통일 교육 실제 지도 시간 .....             | 29 |
| <표 IV - 7> 교사의 통일 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                | 30 |
| <표 IV - 8>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                 | 32 |
| <표 IV - 9>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               | 33 |
| <표 IV - 10>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           | 34 |
| <표 IV - 11>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       | 35 |
| <표 IV - 12>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                  | 37 |
| <표 IV - 13>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의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   | 37 |
| <표 IV - 14>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 .....            | 38 |
| <표 IV - 15>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                  | 40 |
| <표 IV - 16>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             | 41 |
| <표 IV - 17>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              | 42 |
| <표 IV - 18>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모형 .....         | 44 |
| <표 IV - 19>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             | 45 |
| <표 IV - 20> 통일 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          | 46 |
| <표 IV - 21>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         | 47 |
| <표 IV - 22> 통일 관련 행사 개최 시기 .....                   | 48 |
| <표 IV - 23>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                     | 50 |

|  |    |
|--|----|
| <표 IV - 24>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 | 51 |
| <표 IV - 25>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 교육의 내용 .....     | 52 |
| <표 IV - 26>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 53 |
| <표 IV - 27> 통일교육 연수 수강 여부 .....              | 54 |
| <표 IV - 28> 통일교육 정책의 추진처 .....               | 55 |
| <표 IV - 29>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 56 |
| <표 IV - 30>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             | 58 |
| <표 IV - 31>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         | 60 |
| <표 IV - 32>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          | 61 |
| <표 IV - 33>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         | 62 |
| <표 IV - 34>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         | 63 |
| <표 IV - 35>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              | 64 |
| <표 IV - 36>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               | 65 |
| <표 V- 1> 통일교육의 목표 .....                      | 69 |
| <표 V- 2>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 영역 및 요소 .....           | 71 |
| <표 V- 3>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교육 내용 요소 .....     | 72 |
| <표 V- 4> 제 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 .....    | 73 |
| <표 V- 5>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신구 패러다임 비교) .....        | 75 |

## 그림 목차

|                                   |    |
|-----------------------------------|----|
| <그림 III -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모형 ..... | 17 |
| <그림 V - 1> NIE 수업 모형 .....        | 89 |
| <그림 V- 2> 가치갈등 학습 기본 과정 .....     | 90 |

# I. 서론

## 1. 문제의 제기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분단된 조국이라 할 수 있다. 한 핏줄로 이어온 우리 민족이 1945년 해방과 함께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지난 반세기 동안 적대적 관계로 지내오면서 남은 것은 고통과 상처, 이질화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그 동안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발표에서부터 수 차례에 걸쳐 진행되어온 남북대화에서 국민들은 기대를 가졌다가 실망만 되풀이하여 왔다.

그러나 2000년 6월 남북 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에 굵은 획을 그어 놓았다. 서로 적으로 여기며 대결과 반목의 대상이었던 두 정상이 만났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더구나 회담에서 두 정상은 자주적인 통일문제 해결,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에 대한 공통성 인정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비정치적 분야의 교류협력 확대를 통한 상호 신뢰 증대 등에 대해서 서로 합의했다. 이것은 55년 만에 막혔던 물길이 탁 트이는 중대사였다. 따라서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급속한 변화와 통일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남북한간의 대결·경쟁보다는 화해·협력적인 방향으로 대화가 진전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꾸준히 지속되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대북포용정책은 북한에 대한 지원과 북한의 개혁과 개방을 유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정부는 서해교전으로 나타난 긴장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하고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회문화 교류를 확대하여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가고 있다.

1980년대 말부터 소련과 동구권이 무너지면서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북한이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등을 종합해 볼 때, 통일이 멀고 어려운 것만이 아니라 예상외로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으므로 만반의 준비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21세기를 살아 갈 현재의 어린이들은 통일시대의 주역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어린이들에게 통일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통일을 준비하도록 하여 그동안 벌여졌던 불신과 이질성을 하나씩 회복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통일교육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시대적 요구에 맞게 그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도덕교과서에는 “반공, 반북”이라는 말 대신에 남북한 “화해·협력”, “평화공존”, “통일”이라는 내용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1년 교과서에는 남북정상회담이 화보로 실렸다. 2000년부터 “통일”이라는 교사용 교재가 공급되었으며 초등학교 5~6학년 학생들에게 20시간 이상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각급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통일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일선교사들이 어려움은 많다고 할 수 있다.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이며 어느 정도까지 다루어져야 하는지 막막한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가 되지 않고 제한된 자료와 교사 자신이 확고한 방향이 서지 못한 상태에서 현장에서의 통일교육은 계획으로 그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는 통일교육은 정치적 상황에 따라 민감하게 영향을 받아 불안정하게 변화할 수 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정권이 교체될 경우 다시 교육내용이 달라져 일관성 없는 교육으로 학생들이 바른 성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정보화 시대에 선택된 내용으로 획일적인 교육을 통하여 통일의 당위성만을 가르친다면 마치 반공교육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어린이들에게 북한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으로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주어 훗날 통일 이후 사회의 갈등을 합리적으로 극복하고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2. 연구의 목적과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교육을 담당하는 일선교사와 통일교육을 받는 초등학생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높게 하는데 있다

반공을 강조해온 이념 교육을 받은 대부분의 교사들은 변화하는 시대 환경에 따른 통일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태어난 초등학생들은 우리 나라의 분단현실과 고통, 통일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교사들에게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초등학생들에게는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상을 알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 이웃과 같이 서로 화해·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두 번째 목적은 일선교사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데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과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 부시행정부의 강경발언 등 한반도를 둘러싼 세계정세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교사 자신이 통일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이 정립되어야만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바르게 실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목적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항상 뒷전으로 밀리는 통일교육을 어린이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보다 구체적이며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여 통일교육의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은 제 IV장에서는 제주도내 300 여명의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통하여 학교통일교육, 통일문제 및 「통일」 교재 사용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초등학교에서의 통일교육 지도에 대한 실태와 문제점을 알아보고 제 V장에서는 통일관련 서적과 논문, 북한 연구 전문기관들의 학술회의 자료, 북한정세 세미나 자료, 신문 등을 종합 분석하여 학교통일교육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모색하였다. 즉, 조사연구와 문헌연구를 병행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 Ⅱ. 남북정상회담과 북한 및 통일에 관한 인식의 전환

### 1. 6·15 이후 남북관계의 변화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상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간의 의례적인 만남과 단순한 의견교환으로 끝나지 않고 회담 마지막날인 2000년 6월 15일에 회담의 결과로서 5개항의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는 선으로까지 진전되었다. 따라서 정상회담의 의의는 그 동안 지속되어온 남북한간의 첨예한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을 끊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정상의 만남은 곧 대결구조를 청산하고 상호신뢰를 구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sup>1)</sup> 기존의 남북관계가 Zero-Sum 논리라면 남북정상회담은 Win-Win 논리로 탈바꿈하는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불신과 대결 상태의 ‘구패러다임(Old Paradigm)’을 화해와 협력의 ‘신패러다임(New Paradigm)’으로 전환시켰다고 할 수 있다. 이후 남북관계는 급속한 관계로 발전되어 많은 성과를 가져온 것도 사실이다. 남북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남북경제협력실무접촉이 이루어지고 무엇보다 가장 큰 성과는 남북이산가족이 서울과 평양에서 상봉하게 되어 많은 이산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게 되었다. 그러면 이외에도 남북정상회담이 우리에게 주는 성과는 무엇인가?

첫째, 남북정상회담은 냉전체제 해체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다. 남북한이 각기 상대방의 정치적 실체를 인정하고, 민족의 과멸을 가져올 전쟁을 하지 말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동북아 질서에도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둘째, 공존공영관계가 시작되었다. 남북관계가 적대적 공존관계에서 협력적 공존공영관계로 변화함으로써 소모적인 체제경쟁에서 벗어나 경제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다. 공존공영은 통일과정의 출발점이며, 통일의 초기상태라 볼 수 있다.

---

1) 김학준(2000), “남북정상회담 평가와 향후 대북정책의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주최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국의 대외정책 세미나』, p.1.

셋째, 한반도 문제의 한반도화가 이루어졌다. 남과 북이 우리 문제를 우리 손으로 풀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이번의 남북정상회담은 남북의 직접 접촉으로 이루어졌는데 94년에는 미국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바 있다. 4대강국의 이해가 맞물린 상태에서 미국이 장악했던 주도권이 약화되었고, 북한의 정책이 미국과의 직접협상에서 남한과의 대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통일문제의 자주적 해결에 합의하고 당국간 대화 통로가 개설되었기 때문이다.<sup>2)</sup>

넷째, 화해·협력시대가 열렸다. 정상회담 이후 각종 정부간 회담, 이산가족 만남 행사 등으로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진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북한에 대한 관심은 어느 지역보다 더할 것으로 생각한다. 3차 장관급 회담과 1차 국방장관 회담, 그리고 북한특사의 제주 방문, 한라-백두 교차관광 등을 통해 제주 사람들은 그 어느 지역주민보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실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북한 동포에게 감귤과 당근 보내기가 이루어지는 등 북한 주민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 갖기 운동이 전도민적으로 펼쳐왔다.<sup>3)</sup> 그러나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대내적으로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이 북한에 끌려다닌다는 비관과 함께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들이 제각기 달라서 즉, 남남갈등이 커지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루지 않고 추진해온 대북정책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무엇보다 김정일국방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리라는 기대를 저버림으로써 한층 부풀었던 남북관계가 우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다. 또한 남북한이 고무된 분위기에 편승해서 대외적으로 북한은 체제유지와 경제지원 및 국제사회로 발디딤을 하기 위해 클린턴 정부와 대화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한에 대한 불신과 강경한 발언으로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은 다시 소강상태로 돌아가게 되어 예정된 남북장관급 회담이 지연되고 이산가족 상봉 추진사업이 주춤하였다. 다행히 지난 4월 초 우리 임동원 특사가 북한을 방문하여 다시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듯 하여 앞으로의 남북관계가 밝은 전망이다.

---

2) 손혁재(2001), “남북화해시대 시민사회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p.4. <http://www.acdpu.go.kr>

3) 고성준(2001), “남북 화해·협력시대 제주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적 과제”, 「교육제주」, 2001년 봄호 제109호, p.22.

## 2. 최근 북한 변화에 대한 인식과 실태

20세기 후반은 남북이 전쟁과 대결로 상호신뢰를 회복하지 못한 채 살아야만 하는, 분단된 국가의 숙명처럼 살아야만 하였다. 그렇지만 사회주의권 국가들이 붕괴로 인해 북한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에 대한 원조제공이자 시장이던 구소련 등 사회주의 경제망을 상실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몇 년 동안 극심한 가뭄과 수해로 식량난을 겪으면서 북한의 경제사정이 악화되었다. 북한은 체제의 특성상 그들의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단기간내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점들에 직면해 있다. 최근 북한의 변화 움직임은 그들이 처한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대외정책과 대남정책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1998년 북한은 이미 헌법개정을 통해 생산수단의 주체를 국가, 협동단체에 추가하여 사회단체도 추가하였고 그밖에 사유재산의 부분 인정, 여행의 자유신설, 각종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수용하는 법적 토대 등을 마련하였다. 또한 해마다 북한의 핵심관리가 서방에서 경제학, 국제법, 경영학 등 자본주의 이론을 배우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sup>4)</sup>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 변화를 보는 두 가지 상반된 시각이 제기 되고 있다. 하나는 북한이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의 일관된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의 영향이라는 시각이다. 다른 하나는 북한은 거의 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일방적으로 변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크게 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5)</sup> 이로 인한 남한 내 갈등이 더 심각해지는 현상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시각

북한은 극심한 경제난과 김정일 체제유지를 위해서 남측과 대화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는 인식이다. 이것은 김대중 정부가 대북포용정책인 햇볕정책

---

4) 이송배(2000), 통일교육강의자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사무처, <http://www.acdpu.go.kr>  
5) 김영수(2000),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신아세아연구소, 2000년 가을호, p. 94.

을 일관되게 추진함으로써 북한을 흡수통일 할 의사가 없으며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해체를 위해 남과 북이 화해하자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보낸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북한측이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을 신뢰하게 되었고 이러한 신뢰감에 기초하여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었으며 ‘선언’이라는 가장 높은 수준의 형식으로 두 정상이 합의문을 발표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의 남북관계와 질적으로 구별된다<sup>6)</sup>는 것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 직후 휴전선 일대를 비롯하여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의 중지와 남북 장관급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남북당국간 관계정상화에 호응해오고 있으며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노력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진전되어가자 「북한불변론」, 「속도조절론」, 「시기상조론」 등이 제기되면서 남북관계진전에 대한 일부 부정적 평가로 인식의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sup>7)</sup>

둘째, 북한은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

김정일은 북한을 개방할 마음이 없으며 단지 체제와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원조를 얻어내려는 노력의 일환일 뿐이며, 체제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협상전략을 전개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기존의 남북관계 패턴을 바꾸는 것이 북한에게 전반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아래 기존의 전략을 바꾸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남북대화를 절실히 요구하는 남한에게 남북대화 재개의사를 보여 줌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많다는 판단을 하고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남북한 긴장·대결 국면에서 통일전선 전략을 실행하는 것보다 긴장완화 속에서 통일전선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남조선혁명력량’ 충전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판단에서 대남정책의 변화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급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주소이다.<sup>8)</sup> 즉 북한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다는 것이다.

셋째, 남남 갈등이 대두되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변하였다는 시각과 변하지 않았다는 시각은 우리 사

6) 김근식 외(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p. 8.

7) 이송배(2000), 전계자료.

8) 김영수(2000), 전계논문, pp. 99~103.

회의 내부에 잠복해 있던 진보와 보수세력간의 이념갈등을 더욱 두드러지게 만드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6·25 전쟁을 놓고 엇갈린 견해와 미군철수 및 국가보안법에 대해 다른 의견, 북한지원에 대하여 당연하며 더 빨리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진보세력과 속도조절론 및 상호주의론을 주장하는 보수세력,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대해서도 보수세력은 북한이 내세워 온 고려연방제로 이어지게 마련이고 진보세력은 남한이 말해온 국가연합과 비슷하다는 의견, 대북협상에 대한 자세론에 대해서도 서로의 의견은 팽팽하게 대립되어 북한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이념논쟁이 재연되고 있다. 이 논쟁은 북한의 역사 전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북한에 대결해 온 남한과 미국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이며 남북통일을 어떤 미래상을 갖고 추구해야 하느냐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 9)

현재 북한이 변하든지 변하지 않든지 간에 북한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북한을 고립시키고 우리의 발전과 안녕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어려운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북한주민들의 생활이 너무 어렵다. 인도적 차원에서 그들을 도와야함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탈냉전시대의 국제환경 속에서 우리의 인식도 새롭게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북한 사회의 모순과 한계를 직시하면서도 나름대로의 장점도 인정하려는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할 때이다. 나아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할 때이다. 북한 사회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상을 우리 사회의 일부처럼, 우리의 이웃처럼 이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10) 북한에 대한 적대감이나 불신감보다는 ‘화해’, ‘협력’, ‘교류’ 등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북한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기본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

9) 김학준(2000), “한국사회 이념 논쟁”, 동아일보 2000, 12, 11, 제24691호.

10)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pp. 173~174.

### Ⅲ. 학교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변천과정

##### 1) 통일교육의 변천과정<sup>11)</sup>

###### (1) 반공교육기

미군정으로부터 제 4차 교육과정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통일교육이라기 보다는 우리의 체제를 수호하기 위한 반공교육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미군정기에는 미군정청 학무국이 「일반명령 제 4호」를 발표하여 교육방침을 시달하였지만 이 시기에는 반공에 관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다만 국제 우호에 관한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 (2) 교수요목기

정부가 수립된 후 미수복 지구인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 반공교육을 실시하였지만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 체험적인 반공교육이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 (3) 제 1차 교육과정

반공교육이 제도화되면서 반공교육과 도덕교육이 일원화되었고 「도의 교육 요항」에 반공·반일의 항목이 구체화되었다. 그리고 1956년 고등학교, 1957년에 국민학교와 중학교의 도덕 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개발 보급하기 시작했다.

###### (4) 제 2차 교육과정

국민학교 및 중학교에서 반공·도덕생활, 특별활동 등 3영역으로 구분되었다. 이 시기에 추가된 반공교육의 일반목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굳게 하고 공산주의 침략을 격멸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고 나아가 인류공영에 이바지한다」고 제시되고 있다.

###### (5) 제 3차 교육과정

반공도덕생활 영역으로 지도하던 것을 교과활동에 포함시켜 「도덕교과」라는

---

11) 한국통일교육연구회(2001), 「초등학교 인정교과서 교사용지도서」, 통일부, pp. 7~8.

독립된 교과를 신설하였다. 또한 이 시기에는 반공교육이 도덕, 국민윤리 교과와 하나의 생활 영역으로 구분되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게 되었다.

(6) 제 4차 교육과정

국민정신 교육을 강화하고 공산주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사상적 역량을 길러 민주적 평화 통일의 신념을 굳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제까지의 살펴본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기간에 실시되었던 통일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반공교육이 중심이 되었고, 적극적인 통일을 주장하기보다는 소극적인 입장에서 통일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우리의 대북한 제재 역량이 강화된 이후 통일관련 내용이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7) 제 5차 교육과정

반공교육을 통일교육으로 개칭하고 통일환경 변화에 따른 방향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 우월성, 민주시민 정신의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8) 제 6차 교육과정

반공내용을 국가·민족 생활에 포함시키고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통일의 방법은 구체적인 현실을 받아들여 평화통일의 필요성과 무력통일이어서는 안 되는 이유 등을 비판적 사고를 통해 논의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변화는 우리의 북한관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우리의 북한관과 도덕 교과서의 서술방향에 대한 연대별 추이를 살펴보면 <표 III-1>과 같다.

<표 III-1> 교과서의 북한관계 서술 연대별 변화

| 연대     | 북한관            | 교과서 서술방향          |
|--------|----------------|-------------------|
| 1950년대 | 적대관계 유지        | 적개심 고취 내용의 선정     |
| 1960년대 | 대결의 상대로 인식     | 선건설⇒후 통일의 논리 전개   |
| 1970년대 | 대결과 대화의 상대로 인식 | 대화 쪽으로 시각 전환      |
| 1980년대 | 대결과 대화의 상대로 인식 | 양자의 조화 모색         |
| 1990년대 | 대결과 대화의 상대로 인식 | 화해협력⇒남북연합⇒통일구가 모색 |

## 2) 통일교육 접근 방법의 변천과정<sup>12)</sup>

통일교육은 명칭상으로 보아 반공교육,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으로 변천하였다. 여기에서는 통일교육의 변천과정을 재조명하여 반공론적 접근, 규범적 접근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그리고 최근의 경향은 사실적 접근이어야 함을 언급하고자 한다. 시기상으로 볼 때 반공론적 접근을 반공교육 시기에 해당하며, 규범적 접근은 통일안보교육, 통일교육시기에 해당한다.

### (1) 반공론적 접근

해방 이후 1970년대까지 통일교육은 반공론에 근거하였다. 통일교육의 반공론적 접근은 상대방(북한 및 공산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한계와 모순에 대한 비판과 부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그와 동시에 우리측(남한 및 자유진영)의 이념과 체제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홍보하려는 것이다. 나아가 반공교육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대결의식과 적개심을 고취하는데 목표를 두기도 하였다. 따라서 반공교육은 북한과 대결상태에서 승리를 지향하는 교육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반공론적 접근은 반공교육, 승공교육, 멸공교육 등의 명칭으로 변화해왔다. 반공교육은 미군정시기부터 제4차 교육과정기까지 해당한다. 정부가 수립된 이후 미수복 지구인 북한을 통일시킨다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추구하면서 반공교육을 실시하였는데, 6·25 전쟁을 치르고 난 뒤 반공교육이 더욱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반공교육이 더욱 강화된 것은 한국전쟁의 결과였다고 볼 수 있다.

반공교육은 우선 공산주의 이념과 체제의 모순, 북한체제의 허구성과 호전성을 알리는 한편, 남한체제의 우월성, 자유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더욱이 당시의 상황은 북한의 대 남한 공산화 전략이 강화되고 있으며 남한내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처하려면 무엇보다도 6·25 미경험 세대인 학생들에게 공산주의 침략상과 북한의 실상을 정확히

---

12) 상계서, pp. 9~11.

인식시킬 필요가 있었다. 특히 북한의 침투에 대비하여 이념무장을 확고히 가져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러한 반공교육은 이데올로기에 대한 개방적인 논의를 허용하지 못하였으며 오로지 북한 체제와 공산주의 이념을 비판하고 남한체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와같이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남한에 대한 긍정이라는 이분법적 논리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 경계심을 고취시키는 부정적 감정에 호소하는 방법으로 시도되었다. 반공교육은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고취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인식함으로써 안보의식을 강화하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북한에 대한 화해와 포용, 남한과의 협력을 추구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민족공동체를 지향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 (2) 규범적 접근

통일교육에 대한 규범적 접근은 종래의 반공교육이 1980년대 후반기에 대한 통일, 안보교육으로 변화하면서 본격적으로 시도되었다. 종래의 ‘반공교육이 반공논의와 통일논의’ 사이에서 상호모순이 나타나고 상충하는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게 되었다. 또한 북한에 대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유발하는 것이 도덕교육의 관점에서 부적합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로써 제5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교육을 통일·안보교육으로 이름을 바꾸고 통일환경의 변화에 따른 방향이 전환이 이루어졌다. 제 5차 교육과정에서는 반공생활 영역의 내용에 공산체제 및 현실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민주시민정신 고취 등의 내용을 보강하였다. 통일·안보교육에서는 북한을 우리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실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북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으로서 언젠가는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즉 북한은 현재 우리에게 ‘위협적인 실체’인 동시에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는 이중성을 띤 대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일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통일·안보교육은 통일교육으로 개칭되었다. 제6차 교육과정은 이제까지의 소극적인 분단극복의 차원을 넘어, 적극적으로 통일방안을 모색함과 아울러 통일 이후의 민족공동체의 삶을 대비한다는 시각에 토대를 두고 있다.

종래의 통일·안보교육은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긍정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에 대한 경계심도 아울러 갖추는 통일과 안보에 대한 균형적인 시각을 길러주도록 하였다. 그러나 그 명칭이 통일교육으로 바뀌어지면서 미래지향적이고 적극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였으며, 통일·안보교육의 중심을 ‘통일’에 비중을 두면서 ‘안보’는 통일의 하위 영역으로 지도하게 되었다.

규범적 접근의 특징은 북한에 대한 동포애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와 열망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북한에 대한 시각에는 ‘우리와 함께 살아야 할 형제’라든가 ‘북한동포는 못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등의 가치판단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통일은 우리 민족이 언젠가는 성취해야 할 민족적 과제를 인식하고 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지녀야 한다는 점을 중시한다.

이와 같은 규범적 접근은 북한에 대하여 동포애에 입각하여 포용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통일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고취시킨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서적인 선입관이 강하고 의지가 강렬한 만큼, 현실에 대한 객관적인 인식을 소홀히 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경시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통일은 의지와 정서만으로는 성취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실천이 뒷받침되지 않은 통일 열망과 의지는 평화적 통일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은 우리의 열망이나 의지만으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범적 접근은 북한의 현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통일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 (3) 사실적 접근

오늘날 우리는 통일환경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사회적인 변화를 체험하고 있다. 우리는 이념보다는 실리를 추구하고 있는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외교관계도 수립해 나가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우리 사회는 보다 개방적이며 민주적인 사회로 발전하는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성숙한 민주 사회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정확한 사실에 기초하여 북한사회와 통일환경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통하여 다양한 논의를 개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통일문제를 합리적으로 인식하고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교육의 기본적인 원리이며, 통일교육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원리이다.

통일문제 뿐만 아니라 안보문제도 이러한 교육원리에 기초하여 접근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이 종전처럼 일방적인 주장이나 정보를 획일적으로 주입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듯이 안보교육도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주입한다고 해서 효과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객관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학생들로 하여금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 스스로 북한의 정확한 실체를 이해하고 전쟁 가능성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개방사회의 안보교육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이 교육원리에 부합하는 안보교육이다.

이제 통일교육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하여 현실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지식, 그를 이로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인 판단과 비판, 이것이 통일교육의 기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종래의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정서적 태도를 강조하였으며, 통일에 대한 열망과 의지를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규범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북한에 대하여 우리 민족이고 우리 동포이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주고 포용해야 한다는 정서적인 태도를 중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의적인 접근은 북한을 우리 동포의 일원으로서 이해하고 포용하는 데에는 효과가 있지만 북한을 보다 객관적으로 정확히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정서적인 태도와 의지뿐만 아니라 나아가 사실에 대한 정확한 이해,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의적인 접근과 더불어 인지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기초하여 통일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태도와 의지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2. 평화공존과 화해협력 교육강화 방안

분단된 지 50년 넘게 서로 다른 체제 아래서 교육을 받고 살아온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초·중·고생 1,7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한국청소년상담원 설문조사결과)결과, 통일에 대한 무관심이 무려 85.3%에 이라며, 중고교생 도덕 윤리교과 통일관련 수업에 대하여 학생들이 관심 없다가 75.2%나 된다.(전국 도덕 윤리교사 1,554명,2000년, 민주평통 사무처 조사)

이처럼 청소년들 통일의식의 특징과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큰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문제가 자신의 삶과는 무관하게 여겨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향이 점차 증대하면서 생길 수도 있고, 우리 사회의 황금만능주의적 사고경향이 커서 통일이 되면 통일비용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아래 통일이 안 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경향과 자신과 다른 존재의 공존을 거부해 온 우리 사회의 배타적 문화의 영향으로 통일이 되면 사회혼란이 예상되므로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이다.

청소년들이 반통일 의식을 갖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로 분석될 수 있다. 미디어의 영향으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되고, 향락적, 소비적, 비도덕적 사회문화의 직접적인 영향과 체계적인 통일교육 부재 및 체제 대결적 통일교육이 파생된 결과라 할 수 있다.<sup>13)</sup>

한편 북한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은 어떠한가?

북한 학생의 민족의식을 민족관과 통일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북한 학생들은 민족의 개념을 계급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다. 즉 민족은 노동자와 농민을 중심으로 하는 계급을 의미하며, 지주와 자본가를 민족의 개념 속에 포함시킬 수 없는 반민족적 집단으로 간주한다.

북한은 남한을 해방되어야 할 지역으로 간주한다. 북한이 보기에 남한은 해방 후 미국의 점령과 그 침략성으로 인하여 국토가 분단되고 민족의 통합이 좌절된 통한의 땅이다. 북한의 지도자들은 민족의 좌절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일을

---

13) 이송배(2000), 전계자료.

이루어야 하고 그래야 만이 한반도의 진정한 혁명이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북한 학생들은 통일에 대해 단순하고 거의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것은 북한의 사상교육과 관련하여 집중적인 반복 학습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탈북자들이 증언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14)</sup>

“노동자와 농민만이 민족의 일원이다. 반동분자는 민족의 일원이 아니다.”

“핏줄이나 언어의 동질성보다는 남하의 노동자·농민처럼 평범한 주민이 민족이고 자본가, 지주, 정치가, 관료들은 적대적 계급이니까 타파해야 한다.”

“노동자·농민이기 때문에, 즉 피착취 계급이기 때문에 통일해서 구원해야 한다. 그러나 민족이 역사적 공동체이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없다”

“남한을 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

“남한을 제국주의 굴레로부터 해방시켜야 한다.”

‘미제를 바다에 쳐 놓자, 우리 세대에 통일을 이루자.’

이처럼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청소년들에게 통일의 당위성과 객관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남북한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한없이 벌어질 수 있는 남북의 이질감을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보다 먼저 남과 북의 교육이 통합되어 50여년 동안 쌓아온 서로의 불신과 적대감을 씻어내는 것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더욱 심각한 문제와 부작용이 뒤따를 것이다. 남과 북이 더불어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평화공존은 무엇보다 남북한 주민들이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통일교육은 통일사회에 적응할 학생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형성시켜 인간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 1) 평화공존 모형으로의 방향전환

최근 들어 통일교육의 방향이 근본적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계기는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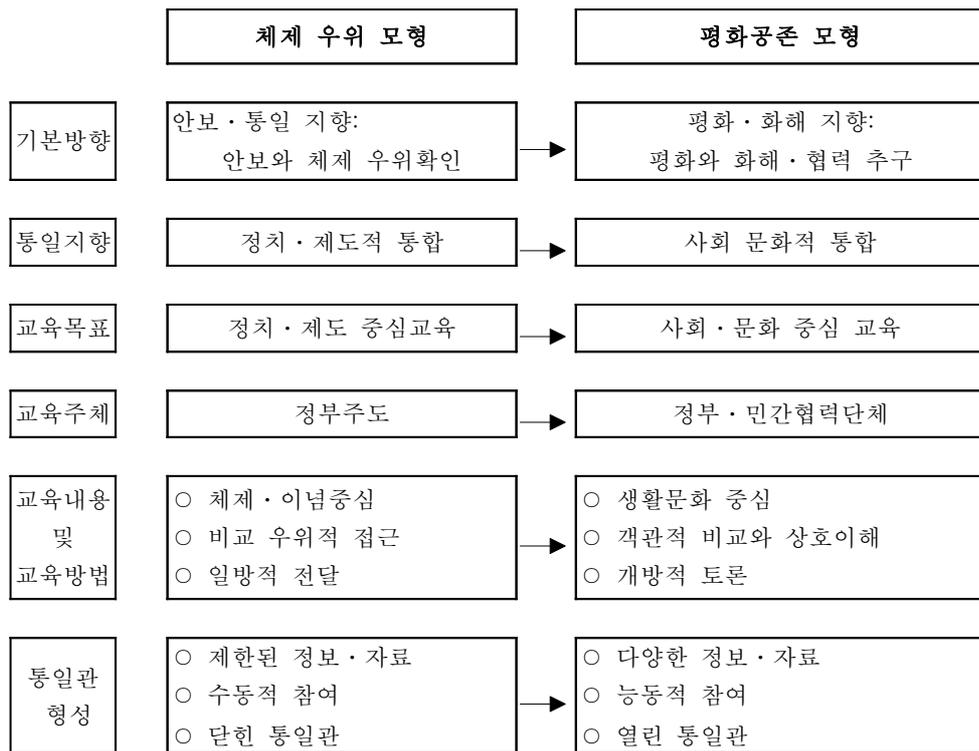
---

14) 한만길(2001), 전제서, pp. 209~213.

타나기 시작하였으며, 남북정상회담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데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남북관계를 비롯하여 통일환경이 변화하였으며, 학생과 교원,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일교육의 방향은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단계적이며 점진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시켜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 체제의 우월성과 안보의식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 중심의 통일을 지향하는 방식에서 변화하고 있다. 남북한간의 평화와 화해·협력을 추구하는 평화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다.<sup>15)</sup> 따라서 평화공존에 기초하는 통일교육의 모형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16)</sup>

<그림 III - 1> 통일교육의 새로운 접근모형



15) 통일부(2000), 「통일교육기본계획」, 1999. 12;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한만길 외, 「통일교육 실태조사와 활성화 연구 방안연구」, 한국교육개발원; 한만길 외 (2000), 상계서, p. 222에서 재인용.

16) 한만길 외(2000), 상계서. pp.222~224.

종래의 통일교육은 냉전구조라는 상황을 전제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냉전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한반도 환경에서 통일교육은 남북한이 서로 자신들의 이념에 근거하여 상대방의 이념을 비판하고, 각자 자신들의 이념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 시각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따라서 기존의 안보·통일교육은 북한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통일을 대비하고 민족의 이질화된 생활 공간을 재통합시키기 위한 차원보다는 오히려 남북한간의 이질화 및 적대감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새로운 통일교육은 아직도 대치와 단절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냉전적 가치들을 지양하고 공존, 화해, 평화와 같은 상호 접근을 도와주는 지평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교육을 지향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새로운 모형에서는 교육의 주체에서도 정부와 민간의 협조와 역할 분담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과거 정부주도의 방식에서 탈피하여 정부와 민간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형태를 지향해야 한다. 즉 정부는 통일교육의 방향과 지침, 내용체계 등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통일교육을 촉진, 지원하는 법적 기반 확충 및 재정적 지원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통일교육의 추진방법은 각 교육기관과 민간단체의 독자적인 특성에 따라 자율성을 기초로 하여 다양한 내용과 방법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포함하여 공공 및 민간 사회교육 기관의 특성에 따라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적으로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고 통일의지를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 2) 화해협력 교육 강화 방안

국제적으로 냉전이 해체되고 남북간의 화해협력이 어느 때보다도 중시되는 상황에서 남북간의 분단으로 인하여 야기되고 있는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분단체제를 해체하고 화해 협력의 방안을 모색하는 과제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상호 화해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학생과 국민들에게 상대방을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

는 태도와 의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교육분야에서 상호 적대적이며 대결적인 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위해서는 17)

첫째, 북한 주민에 대한 화해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정치이념 및 사회상에 대한 객관적인 현실적 이해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냉전적 반목과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북한을 좀더 폭넓은 시각과 열린 자세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동족간 이념적 대결과 경쟁이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는 자각과 함께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냉전시대에 길들여진 사고방식, 가치관을 후대에 계승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즉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더불어 구조화된 적개심과 불신감의 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공동체의식이 함양되어야 한다. 남북으로 나뉘어진 경제 사회 문화적 생활 공동체를 다시 하나로 합쳐 하나의 민족공동체적 삶을 회복 발전해 가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의 공동체라는 울타리 속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끼리 도움을 주고받는 협동심, 자신의 주장이나 입장만을 내세우지 않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타인의 주장이나 생각도 존중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폭넓은 마음자세, 내 이익만을 지나치게 앞세우지 않고 타인이나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기 이익을 양보할 줄도 아는 태도 등이 될 것이다. 남북간의 인적왕래와 접촉이 확대되어 경제적 수준과 생활문화가 다른 남북의 주민이 한데 어우러져 살아가게 되면 남한 사람들이 가지게 될 상대적 우월 의식이나 과시적 태도, 북한문화에 대한 냉소적 비판 등이 공동체 융합을 가로막는 심리적 기재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상대방에 대한 우월 의식이나 실생활에 대한 편견은 공동체 단합을 위해 하루빨리 버리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로 지적되는 지나친 개인주의적 가치관이나 사익 우선주의의 추구는 공동체 성원간의 단합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 분명한 것으로서 돌려 치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전통에 대한 유대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주민이 상대방을 같은 민족의 일원으로 생각하게 되는 기본적인 요소는 서로가 혈연으로 이

---

17) 한만길 외(2000), 상계서. pp.234~240.

어져 있고 같은 언어, 역사와 함께 생활상의 문화전통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다. 이중에서도 천부적인 요소인 혈연이나 인종을 같이 한다는 사실 외에 우리 민족에 고유한 문화전통이 우리의 통일의지를 지탱해 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화전통은 인간을 집단화시켜주는 결집력으로 작용하며, 바로 그 힘이 남과 북으로 분리된 민족 사회를 재결합시켜 줄 동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통일과업과 관련하여 우리가 해야 할 원초적인 작업은 우리 고유 문화전통의 확인, 계승, 발전, 보급의 과업이라 할 수 있다. 남북한 주민을 의식 차원에서 묶어주는 연대의식이 다름 아닌 문화전통의 공유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바로 그 연대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sup>18)</sup> 따라서 민족적 전통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긍심을 심어주어 남북한 주민이 같은 민족으로서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뿌리인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의지를 함양시키는 일이 통일교육의 일환으로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에 대한 책임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통일과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통일의지가 고취되어야 함과 동시에 각자가 자신이 그리는 통일의 장래나 미래상에 대한 기대와 확신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나 미래상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자칫하면 통일에 대한 환상적 기대나 무책임한 이상주의에 빠지게 하기 쉽다. 우리의 통일은 결코 하루아침에 쉽게 성사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아무런 노력이나 희생 없이 세월이 흐르면 저절로 성사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철저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통일에의 접근과정이 우리 눈앞의 현실로 전개되고 있는 오늘에 와서는 통일과업을 감당해 나갈 국민 각자가 맡아야 할 책임과 희생의 내용을 먼저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의 경제적 비용을 비롯한 물질적 부담 등과 함께 심리적 고통, 통일추진 과정과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개인적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구체적 내용을 알게 하여 이에 대한 확고한 인식을 바탕으로 통일과업의 사명감을 스스로 다짐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18) 이상우(1991), 「문화전통과 사회발전」, “문화전통과 통일의 과제”, 미원문화재단, p.153.;한만길 외(2000), 상계서, p.238에서 재인용.

## IV. 초등학교 통일교육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

### 1. 조사 대상의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전체의 초등학교 교사를 모집단으로 하여 시 소재 학교 교사 196명, 읍·면 소재 학교 교사 110명 등 모두 306명을 대상으로 군집표집하였다. 조사 대상을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 교사 67명(21.9%), 여자 교사 239명(78.1%)이며, 연령별로 보면 20대 75명(24.5%), 30대 80명(26.1%), 40대 117명(38.2%), 50대 이상 34명(11.1%)이다. 그리고 담임 학년을 비교해보면 1 ~ 2학년 담임 교사 106명(34.6%), 3 ~ 4학년 담임 교사 114명(37.4%), 5 ~ 6학년 담임 교사 86명(28.1%)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학교 규모를 보면 6 ~ 18학급 규모가 92명(30.1%), 19 ~ 36학급 규모가 123(40.2%), 37학급 이상 91명(29.7%)로 조사되었다.

<표 IV - 1> 조사 대상자의 변인별 분포

| 일반적 특성 | 세부 항목     | 빈 도 | 비 율(%) |
|--------|-----------|-----|--------|
| 성 별    | 남         | 67  | 21.9   |
|        | 여         | 239 | 78.1   |
| 연 령 별  | 20대       | 75  | 24.5   |
|        | 30대       | 80  | 26.1   |
|        | 40대       | 117 | 38.2   |
|        | 50대 이상    | 34  | 11.1   |
| 담임 학년  | 1 ~ 2학년   | 106 | 34.6   |
|        | 3 ~ 4학년   | 114 | 37.4   |
|        | 5 ~ 6학년   | 86  | 28.1   |
| 학교 규모별 | 6 ~ 18학급  | 92  | 30.1   |
|        | 18 ~ 36학급 | 123 | 40.2   |
|        | 37학급 이상   | 91  | 29.7   |
| 소재지 별  | 시 지역      | 196 | 64.1   |
|        | 읍·면 지역    | 110 | 36.0   |
| 계      |           | 306 | 100.0  |

## 2. 자료의 처리

본 연구를 위하여 수립된 자료는 SPSSPC<sup>+</sup>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각 문항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Chi-Square( $X^2$ ) test를 통하여 알아보았으며 순위를 부여한 문항에 대하여는 성별 및 지역별에 의해 구분된 문항은 Independent-Sample T test를, 성별과 지역별을 제외한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서는 One-Way ANOVA를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 3. 결과 분석 및 논의

### 1) 6·15 정상회담 이후의 통일교육

6·25 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① 통일교육의 필요성 ②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 ③ 통일교육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 이유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하여 보았다.

#### (1)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 - 2>과 같이 나타났다. 그 결과 ‘꼭 필요하다.’가 273명(89.2%), ‘꼭 필요하지는 않다.’는 28명(9.2%), ‘필요하지 않다.’는 한 명도 없었으며, ‘잘 모르겠다.’ 5명(1.6%)으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통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하였다.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 $\chi^2$ -Value=18.217\*  $p<.05$ )에 따라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성에 대하여 성별 및 담임 학년, 학교 규모 별과 학교 소재지 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IV - 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성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57<br>(85.1 %) | 8<br>(11.9 %) | 0<br>(0 %)  | 2<br>(3.0 %) | 67<br>(100 %) | 1.853<br>0.39                           |
|      | 여       | 216<br>(90.4%) | 20<br>(8.4%)  | 0<br>(0%)   | 3<br>(1.3%)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70<br>(93.3%)  | 3<br>(4.0%)   | 0<br>(0%)   | 2<br>(2.7%)  | 75<br>(100%)  | 18.217<br>0.005 *                       |
|      | 30대     | 77<br>(96.3%)  | 1<br>(1.3%)   | 0<br>(0%)   | 2<br>(2.5%)  | 80<br>(100%)  |   |
|      | 40대     | 97<br>(82.9%)  | 19<br>(16.2%) | 0<br>(0%)   | 1<br>(0.9%)  | 117<br>(100%) |   |
|      | 50대이상   | 29<br>(85.3%)  | 5<br>(14.7%)  | 0<br>(0%)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95<br>(89.6%)  | 10<br>(9.4%)  | 0<br>(0%)   | 1<br>(0.9%)  | 106<br>(100%) | 2.400<br>0.662                          |
|      | 3,4     | 99<br>(86.8%)  | 13<br>(11.4%) | 0<br>(0%)   | 2<br>(1.8%)  | 114<br>(100%) |   |
|      | 5,6     | 79<br>(91.9%)  | 5<br>(5.8%)   | 0<br>(0%)   | 2<br>(2.3%)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84<br>(91.3%)  | 7<br>(7.6%)   | 1<br>(1.1%) | (%)          | 92<br>(100%)  | 6.041<br>0.196                          |
|      | 19 - 36 | 110<br>(89.4%) | 9<br>(7.3%)   | 0<br>(0%)   | 4<br>(3.3%)  | 123<br>(100%) |   |
|      | 37이상    | 79<br>(86.8%)  | 12<br>(13.2%) | 0<br>(0%)   | 0<br>(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78<br>(90.8%) | 16<br>(8.2%)  | 0<br>(0%)   | 2<br>(1.0%)  | 196<br>(100%) | 1.993<br>0.369                          |
|      | 읍면      | 95<br>(86.4%)  | 12<br>(10.9%) | 0<br>(0%)   | 3<br>(2.7%)  | 110<br>(100%) |   |
| 합 계  |         | 273<br>(89.2%) | 28<br>(9.2%)  | 0<br>(%)    | 5<br>(1.6%)  | 306<br>(100%) |   |

p<.05\*

(2)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표 IV - 3> 6·15 정상 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22<br>(38.6%) | 20<br>(35.1%)  | 12<br>(21.1%) | 3<br>(5.3%)  | 57<br>(100%)  | 11.54<br>0.01 *                         |
|      | 여       | 54<br>(25.0%) | 126<br>(58.3%) | 33<br>(15.3%) | 3<br>(1.4%)  | 216<br>(100%) |   |
| 연령별  | 20대     | 19<br>(27.1%) | 43<br>(61.4%)  | 7<br>(10.0%)  | 1<br>(1.4%)  | 70<br>(100%)  | 19.201<br>0.023 *                       |
|      | 30대     | 21<br>(27.3%) | 41<br>(53.3%)  | 11<br>(14.3%) | 4<br>(5.0%)  | 77<br>(100%)  |   |
|      | 40대     | 28<br>(28.9%) | 53<br>(54.6%)  | 16<br>(16.5%) | 0<br>(0%)    | 97<br>(100%)  |   |
|      | 50대이상   | 8<br>(27.6%)  | 9<br>(31.0%)   | 11<br>(37.9%) | 1<br>(3.4%)  | 29<br>(100%)  |   |
| 담임학년 | 1,2     | 22<br>(23.2%) | 51<br>(53.7%)  | 21<br>(22.1%) | 1<br>(1.1%)  | 95<br>(100%)  | 7.123<br>0.309                          |
|      | 3,4     | 31<br>(31.3%) | 50<br>(50.5%)  | 15<br>(15.2%) | 3<br>(3.0%)  | 99<br>(100%)  |   |
|      | 5,6     | 23<br>(29.1%) | 45<br>(57.0%)  | 9<br>(11.4%)  | 2<br>(2.5%)  | 79<br>(100%)  |   |
| 규모별  | 6 - 18  | 23<br>(27.4%) | 44<br>(52.4%)  | 15<br>(17.9%) | 2<br>(2.3%)  | 84<br>(100%)  | 2.119<br>0.908                          |
|      | 19 - 36 | 30<br>(27.3%) | 56<br>(50.9%)  | 20<br>(18.2%) | 3<br>(2.6%)  | 110<br>(100%) |   |
|      | 37이상    | 23<br>(29.1%) | 45<br>(57.0%)  | 10<br>(12.7%) | 1<br>(1.2%)  | 79<br>(100%)  |   |
| 소재지  | 시       | 47<br>(26.4%) | 99<br>(55.6%)  | 28<br>(15.7%) | 4<br>(2.03%) | 178<br>(100%) | 1.648<br>0.648                          |
|      | 읍면      | 29<br>(30.5%) | 47<br>(49.5%)  | 17<br>(17.9%) | 2<br>(2.1%)  | 95<br>(100%)  |   |
| 합 계  |         | 76<br>(27.8%) | 146<br>(53.5%) | 45<br>(16.7%) | 6<br>(2.2%)  | 273<br>(100%) |   |

p<.05\*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273명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 - 3>와 같이 나타났다. 설문 결과를 보면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가 76명(27.8%),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가 146명(53.5%), ‘통일 후 사회적 안정을 위하여’가 45명(16.7%),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가 6명(2.2%)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x<sup>2</sup>-Value=11.54\*p<.05)과, ‘연령’(x<sup>2</sup>-Value=19.201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담임’, ‘학년’, ‘학교 규

모’, ‘학교 소재지’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일반적 특성 중 ‘성별(남)’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를 응답자 전체의 53.5%가 선택하여 제일 높게 나타났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 20대에서는 61.4%가 선택하여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성별(남)’은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다음으로 높게 나타난 것은 ‘한 핏줄 한 민족’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반적 특성 전체가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를 가장 낮게 선택하였으며, 특히 연령 40대에서는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 (3).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6·15 정상회담 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28명에 대하여 그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는 <표 IV - 4>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된 후에 하여도 충분하다.’가 7명(25.0%), ‘통일이 된 후에 잘 적응할 수 있으므로’가 12명(42.9%), ‘우리 남한만 하여도 소용없으므로’가 4명(14.3%), ‘달리 해야할 교육이 많으므로’가 5명(17.8%)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설문자의 일반적인 특성 5가지 분야에서 각각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성별, 연령별, 담임 학년, 학교 규모, 학교 소재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통일이 된 후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연령별 세부항목 중 20대에서 66.7%로 제일 높게 응답하였다. 또한 연령별 세부항목 중 20대 및 30대에서 ‘통일이 된 후에 하여도 충분하다.’ 등 6개 분야, 담임학년 세부항목 중 2개 분야, 학교 규모별 세부항목 중 1개 분야에서는 단 한 사람도 선택하지 않았다

<표 IV - 4> 6·15 정상 회담이후 통일 교육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이유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br>(12.5%) | 3<br>(37.5%)  | 2<br>(25.0%) | 2<br>(25.0%) | 8<br>(100%)  | 1.57<br>0.66                            |
|      | 여       | 6<br>(30.0%) | 9<br>(45.0%)  | 2<br>(10.0%) | 3<br>(15.0%) | 20<br>(100%) |   |
| 연령별  | 20대     | 0<br>(0%)    | 2<br>(66.7%)  | 0<br>(0%)    | 1<br>(33.3%) | 3<br>(100%)  | 6.871<br>0.650                          |
|      | 30대     | 0<br>(0%)    | 0<br>(0%)     | 1<br>(100%)  | 0<br>(0%)    | 1<br>(100%)  |   |
|      | 40대     | 5<br>26.3(%) | 8<br>(42.1%)  | 3<br>(15.8%) | 3<br>(15.8%) | 19<br>(100%) |   |
|      | 50대이상   | 2<br>(40%)   | 2<br>(40%)    | 0<br>(0%)    | 1<br>(20.0%) | 5<br>(100%)  |   |
| 담임학년 | 1,2     | 3<br>(30.0%) | 4<br>(40.0%)  | 0<br>(0%)    | 3<br>(30.0%) | 10<br>(100%) | 5.555<br>0.474                          |
|      | 3,4     | 3<br>(23.1%) | 5<br>(38.5%)  | 3<br>(23.1%) | 2<br>(15.3%) | 13<br>(100%) |   |
|      | 5,6     | 1<br>(20%)   | 3<br>(60%)    | 1<br>(20%)   | 0<br>(%)     | 5<br>(100%)  |   |
| 규모별  | 6 - 18  | 2<br>(28.6%) | 3<br>(42.9%)  | 0<br>(0%)    | 2<br>(28.5%) | 7<br>(100%)  | 6.938<br>0.326                          |
|      | 19 - 36 | 2<br>(22.2%) | 5<br>(55.6%)  | 1<br>(11.1%) | 1<br>(11.0%) | 9<br>(100%)  |   |
|      | 37이상    | 3<br>(25.0%) | 4<br>(33.3%)  | 3<br>(25.0%) | 2<br>(16.7%) | 12<br>(100%) |   |
| 소재지  | 시       | 4<br>(25.0%) | 6<br>(37.4%)  | 3<br>(18.8%) | 3<br>(18.8%) | 16<br>(100%) | 1.114<br>0.773                          |
|      | 읍면      | 3<br>(25.0%) | 6<br>(50.0%)  | 1<br>(8.3%)  | 2<br>(16.7%) | 12<br>(%)    |   |
| 합    | 계       | 7<br>(25.0%) | 12<br>(42.9%) | 4<br>(14.3%) | 5<br>(17.8%) | 28<br>(100%) |   |

p<.05\*

## 2) 통일교육 지도 시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과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①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② 2001년도 통일 교육 실제 지도 시간 ③ 통일교육을 주로 이용하는 시간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조사하여 보았다.

### (1)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표 IV - 5> 연간 통일교육 지도 시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10<br>(14.9%) | 36<br>(53.7%) | 9<br>(13.4%)  | 5<br>(7.5%)   | 5<br>(10.4%)  | 67<br>(100%)  | 11.8<br>0.02 *                          |
|      | 여     | 85<br>(35.6%) | 91<br>(38.1%) | 25<br>(10.5%) | 22<br>(9.2%)  | 16<br>(6.7%)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29<br>(38.7%) | 27<br>(36.0%) | 9<br>(12.0%)  | 7<br>(9.3%)   | 3<br>(4.0%)   | 75<br>(100%)  | 16.020<br>0.190                         |
|      | 30대   | 27<br>(33.8%) | 28<br>(35.0%) | 12<br>(15.0%) | 6<br>(7.5%)   | 7<br>(6.8%)   | 80<br>(100%)  |   |
|      | 40대   | 30<br>(25.6%) | 55<br>(47.0%) | 10<br>(8.5%)  | 14<br>(12.0%) | 8<br>(6.8%)   | 117<br>(100%) |   |
|      | 50대이상 | 9<br>(26.5%)  | 17<br>(50.0%) | 3<br>(8.8%)   | 0<br>(0%)     | 5<br>(14.7%)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32<br>(30.2%) | 46<br>(43.4%) | 7<br>(6.6%)   | 6<br>(5.7%)   | 15<br>(14.2%) | 106<br>(100%) | 19.123<br>0.014 *                       |
|      | 3,4   | 34<br>(29.8%) | 44<br>(38.6%) | 20<br>(17.5%) | 11<br>(9.6%)  | 5<br>(4.4%)   | 114<br>(100%) |   |
|      | 5,6   | 29<br>(33.7%) | 37<br>(43.0%) | 7<br>(8.1%)   | 10<br>(11.6%) | 3<br>(3.5%)   | 86<br>(100%)  |   |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규모별 | 6 - 18  | 24<br>(26.1%) | 51<br>(55.4%)  | 6<br>(6.5%)   | 9<br>(9.8%)   | 2<br>(2.2%)   | 92<br>(100%)  | 24.253<br>0.002 *                       |
|     | 19 - 36 | 31<br>(25.2%) | 51<br>(41.5%)  | 16<br>(13.0%) | 11<br>(8.9%)  | 14<br>(11.4%) | 123<br>(100%) |   |
|     | 37이상    | 40<br>(44.0%) | 25<br>(27.5%)  | 12<br>(13.2%) | 7<br>(7.7%)   | 7<br>(7.7%)   | 91<br>(100%)  |   |
| 소재지 | 시       | 66<br>(33.7%) | 71<br>(36.2%)  | 24<br>(12.2%) | 15<br>(7.7%)  | 20<br>(10.2%) | 196<br>(100%) | 11.592<br>0.020 *                       |
|     | 읍면      | 29<br>(26.4%) | 56<br>(50.9%)  | 10<br>(9.1%)  | 12<br>(10.9%) | 3<br>(2.7%)   | 110<br>(100%) |   |
| 합 계 |         | 95<br>(31.0%) | 127<br>(41.5%) | 34<br>(11.1%) | 27<br>(8.8%)  | 23<br>(7.5%)  | 306<br>(100%) |   |

p <.05\*

‘선생님은 통일 교육을 연간 몇 시간 정도 계획하십니까?’라는 설문 결과는 < 표 IV - 5>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0~5시간’이 95명(31.0%), ‘6~10시간’이 127명(41.5%), ‘11~15시간’이 34명(11.1%), ‘15~20시간’이 27명(8.8%), ‘20시간 이상’이 23명(7.5%)로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x<sup>2</sup>-Value=11.800\* p<.05)과 ‘담임 학년’(x<sup>2</sup>-Value=19.123\* p<.05), ‘규모별’(x<sup>2</sup>-Value=24.252\* p<.05), ‘소재지’(x<sup>2</sup>-Value=11.59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통일 교육 연간 지도 계획 시간이 ‘연령(20대)’와 ‘규모별(37학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6~10시간’을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2) 2001년도 통일교육 실제 지도 시간

<표 IV - 6> 2001년도 통일 교육 실제 지도 시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17<br>(25.4%)  | 35<br>(52.2%)  | 7<br>(10.4%)  | 5<br>(7.5%)   | 3<br>(4.5%) | 67<br>(100%)  | 9.47<br>0.05                            |
|      | 여       | 110<br>(46.0%) | 91<br>(38.1%)  | 17<br>(7.1%)  | 15<br>(6.3%)  | 6<br>(2.5%)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35<br>(46.7%)  | 31<br>(41.3%)  | 4<br>(5.3%)   | 4<br>(5.3%)   | 1<br>(1.3%) | 75<br>(100%)  | 12.191<br>0.430                         |
|      | 30대     | 39<br>(48.8%)  | 24<br>(30.0%)  | 7<br>(8.8%)   | 6<br>(7.5%)   | 4<br>(5.0%) | 80<br>(100%)  |   |
|      | 40대     | 42<br>(35.9%)  | 53<br>(45.3%)  | 12<br>(10.3%) | 7<br>(6.0%)   | 3<br>(2.6%) | 117<br>(100%) |   |
|      | 50대이상   | 11<br>(32.4%)  | 18<br>(52.9%)  | 1<br>(2.9%)   | 3<br>(8.8%)   | 1<br>(2.9%)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42<br>(39.6%)  | 43<br>(40.6%)  | 4<br>(3.8%)   | 13<br>(12.3%) | 4<br>(3.8%) | 106<br>(100%) | 16.484<br>0.035 *                       |
|      | 3,4     | 44<br>(38.6%)  | 48<br>(42.1%)  | 15<br>(13.2%) | 4<br>(3.5%)   | 3<br>(2.6%) | 114<br>(100%) |   |
|      | 5,6     | 41<br>(47.7%)  | 35<br>(40.7%)  | 5<br>(5.8%)   | 3<br>(3.5%)   | 2<br>(2.3%)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41<br>(44.6%)  | 42<br>(45.7%)  | 3<br>(3.3%)   | 4<br>(4.3%)   | 2<br>(2.2%) | 92<br>(100%)  | 14.794<br>0.063                         |
|      | 19 - 36 | 40<br>(32.5%)  | 54<br>(43.9%)  | 12<br>(9.8%)  | 11<br>(8.9%)  | 6<br>(4.9%) | 123<br>(100%) |   |
|      | 37이상    | 46<br>(50.5%)  | 30<br>(33.0%)  | 9<br>(9.9%)   | 5<br>(5.5%)   | 1<br>(1.1%) | 91<br>(100%)  |   |
| 소재지  | 시       | 81<br>(41.3%)  | 74<br>(37.8%)  | 20<br>(10.2%) | 13<br>(6.6%)  | 8<br>(4.1%) | 196<br>(100%) | 7.848<br>0.097                          |
|      | 읍면      | 46<br>(41.8%)  | 52<br>(47.3%)  | 4<br>(3.6%)   | 7<br>(6.4%)   | 1<br>(0.9%) | 110<br>(100%) |   |
| 합 계  |         | 127<br>(41.5%) | 126<br>(41.2%) | 24<br>(7.8%)  | 20<br>(6.5%)  | 9<br>(2.9%) | 306<br>(100%) |   |

p<.05\*

‘계획된 통일 교육은 2001년 12월말 현재 몇 시간 확보하여 지도하셨습니다?’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6>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0~5시간’과 ‘6~10시간’이 각각127명(41.5%)과 126명(41.5%)로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11~15시간’이 24명(7.8%), ‘15~20시간’이 20명(6.5%), ‘20시간 이상’이 9명(2.9%)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특성 중 ‘담임 학년’(x<sup>2</sup>-Value=16.48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연령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이기는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또한 통일 교육 지도 시간이 ‘0~10시간’인 응답자가 253명으로 전체의 82.7%를 차지하여, 대부분의 교사의 연간 통일 교육 지도 시간이 10시간 이하로 나타났다.

(3)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 표 IV - 7> 교사의 통일 교육을 지도하는 시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37<br>(55.2%)  | 25<br>(37.3%) | 4<br>(6.0%) | 1<br>(1.5%) | 67<br>(100%)  | 9.121<br>0.03 *                         |
|      | 여       | 164<br>(68.6%) | 64<br>(26.8%) | 3<br>(1.3%) | 8<br>(3.3%)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41<br>(54.7%)  | 26<br>(34.7%) | 2<br>(2.7%) | 6<br>(8.0%) | 75<br>(100%)  | 13.484<br>0.141                         |
|      | 30대     | 56<br>(70.0%)  | 23<br>(28.8%) | 1<br>(1.3%) | 0<br>(0%)   | 80<br>(100%)  |   |
|      | 40대     | 80<br>(68.4%)  | 31<br>(26.5%) | 3<br>(2.6%) | 3<br>(2.6%) | 117<br>(100%) |   |
|      | 50대이상   | 24<br>(70.6%)  | 9<br>(26.5%)  | 1<br>(2.9%)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73<br>(68.9%)  | 31<br>(29.2%) | 0<br>(0%)   | 2<br>(1.9%) | 106<br>(100%) | 24.256<br>0.000 *                       |
|      | 3,4     | 59<br>(51.8%)  | 47<br>(41.2%) | 4<br>(3.5%) | 4<br>(3.5%) | 114<br>(100%) |   |
|      | 5,6     | 69<br>(80.2%)  | 11<br>(12.8%) | 3<br>(3.5%) | 3<br>(3.5%)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48<br>(52.2%)  | 37<br>(40.2%) | 2<br>(2.2%) | 5<br>(5.4%) | 92<br>(100%)  | 17.512<br>0.007 *                       |
|      | 19 - 36 | 82<br>(66.7%)  | 37<br>(30.1%) | 3<br>(2.4%) | 1<br>(0.8%) | 123<br>(100%) |   |
|      | 37이상    | 71<br>(78.0%)  | 15<br>(16.5%) | 2<br>(2.2%) | 3<br>(3.3%)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29<br>(65.8%) | 57<br>(29.1%) | 5<br>(2.6%) | 5<br>(2.6%) | 196<br>(100%) | 0.449<br>0.929                          |
|      | 읍면      | 72<br>(65.5%)  | 32<br>(29.1%) | 2<br>(1.8%) | 4<br>(3.6%) | 110<br>(100%) |   |
| 합 계  |         | 201<br>(65.7%) | 89<br>(29.1%) | 7<br>(2.3%) | 9<br>(2.9%) | 306<br>(100%) |   |

p<.05

‘선생님께서서는 통일 교육을 주로 어느 시간에 지도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7>과 같이 나타났다. 질문에 응답한 결과를 보면 ‘도덕(바른생활) 시간’이 201명(65.7%), ‘재량활동 시간’이 89명(29.1%), ‘특별활동 시간’이 7명(2.3%), ‘기타’가 9명(2.9%)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x<sup>2</sup>-Value=9.121\* p<.05)과, ‘담임 학년’(x<sup>2</sup>-Value=24.256\* p<.05), ‘학교 규모별’(x<sup>2</sup>-Value=17.51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연령별’ 및 ‘학교 소재지’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전체 교사 중 65.7%(201명)가 도덕(바른생활) 시간을 이용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통일 교육 지도 시간을 주로 도덕(바른생활) 시간을 활용하고 있으며, 그 외 재량활동 시간을 이용하는 응답자도 약 30%에 달하였다.

### 3)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특징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과 두드러진 특징, 개선점 등에 대하여 ① 교사용 「통일」 교재의 활용 정도 ②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③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었던 까닭 ④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교사의 생각 ⑤ 「통일」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⑥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⑦ 「통일」 교재 내용 중 더 보완해야 할 내용 등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 (1)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표 IV - 8> 교사용 「통일」 교재 활용 정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   |
| 성 별  | 남       | 10<br>(14.9%) | 41<br>(61.2%)  | 16<br>(23.9%) | 67<br>(100%)  | 4.00<br>0.135                           |
|      | 여       | 26<br>(10.9%) | 176<br>(73.6%) | 37<br>(15.5%)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8<br>(10.7%)  | 50<br>(66.7%)  | 17<br>(22.7%) | 75<br>(100%)  | 14.371<br>0.025 *                       |
|      | 30대     | 12<br>(15.0%) | 56<br>(70.0%)  | 12<br>(15.0%) | 80<br>(100%)  |   |
|      | 40대     | 7<br>(6.0%)   | 92<br>(78.6%)  | 18<br>(15.4%) | 117<br>(100%) |   |
|      | 50대이상   | 9<br>(26.5%)  | 19<br>(55.9%)  | 6<br>(17.6%)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14<br>(13.2%) | 79<br>(74.5%)  | 13<br>(12.3%) | 106<br>(100%) | 4.422<br>0.351                          |
|      | 3,4     | 15<br>(13.2%) | 78<br>(68.4%)  | 21<br>(18.4%) | 114<br>(100%) |   |
|      | 5,6     | 7<br>(8.1%)   | 60<br>(69.8%)  | 19<br>(22.1%)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13<br>(14.1%) | 58<br>(63.0%)  | 21<br>(22.8%) | 92<br>(100%)  | 6.959<br>0.138                          |
|      | 19 - 36 | 17<br>(13.8%) | 87<br>(70.7%)  | 19<br>(15.4%) | 123<br>(100%) |   |
|      | 37이상    | 6<br>(6.6%)   | 72<br>(79.2%)  | 13<br>(14.3%) | 91<br>(100%)  |   |
| 소재지  | 시       | 25<br>(12.8%) | 150<br>(76.5%) | 21<br>(10.7%) | 196<br>(100%) | 16.616<br>0.001 *                       |
|      | 읍면      | 11<br>(10.0%) | 67<br>(60.9%)  | 32<br>(29.1%) | 110<br>(100%) |   |
| 합 계  |         | 36<br>(11.8%) | 217<br>(70.9%) | 53<br>(17.3%) | 306<br>(100%) |   |

p<.05\*

‘선생님께서서는 2000학년도부터 발간 배포된 교사용 「통일」 교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8>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늘 활용한다.’가 36명(11.8%), ‘가끔 활용한다.’가 217명(70.9%), ‘활용해 본 적이 없다.’가 53명(17.3%)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x<sup>2</sup> -Value=14.371\* p<.05)과, ‘학교 소재지별’(x<sup>2</sup> -Value=16.616\*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그 외 ‘성별’, ‘담임 학년’, ‘학교 규모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통일」 교재를 늘 활용하는 교사(11.8%)보다 가끔 활용하는 교사(70.9%)가 훨씬 많으며 그 차가 59.1%로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통일」 교재를 교사들이 보다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표 IV - 9>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하는 시간

| 항 목    | 도 덕<br>(바른생활) | 재량활동      | 국 어      | 아침활동     | 행 사     | 합 계        |
|--------|---------------|-----------|----------|----------|---------|------------|
| 인원수(%) | 20(37.7%)     | 16(30.2%) | 6(11.3%) | 6(11.3%) | 5(9.5%) | 53(100.0%) |

「통일」 교재를 많이 활용한다고 한 응답자에 대하여, 「통일」 교재를 어느 시간에 많이 이용하십니까? 라는 서술형 설문에 대하여 53명이 응답한 결과는 <표 IV - 9>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도덕(바른생활)’ 시간이 20명(37.7%), ‘재량활동’ 시간이 16명(30.2%), ‘국어’ 시간과 ‘아침활동’ 시간이 각각 6명(11.3%), ‘행사’가 5명(9.5%)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통일」 교재를 도덕(바른생활) 시간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재량활동’, ‘국어’ 및 ‘아침활동’, ‘행사’시에 많이 활용하고 있었다.

(3)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표 IV - 10>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24<br>(42.1%)  | 29<br>(50.9%)  | 3<br>(5.3%)  | 1<br>(1.7%) | 57<br>(100%)  | 1.54<br>0.67                            |
|      | 여       | 98<br>(46.0%)  | 101<br>(47.4%) | 13<br>(6.1%) | 1<br>(0.5%) | 213<br>(100%) |   |
| 연령별  | 20대     | 28<br>(37.3%)  | 30<br>(40.0%)  | 8<br>(10.7%) | 1<br>(1.3%) | 67<br>(100%)  | 14.590<br>0.102                         |
|      | 30대     | 36<br>(52.9%)  | 27<br>(39.7%)  | 5<br>(7.4%)  | 0<br>(0%)   | 68<br>(100%)  |   |
|      | 40대     | 50<br>(45.5%)  | 57<br>(51.8%)  | 3<br>(2.6%)  | 0<br>(0%)   | 110<br>(100%) |   |
|      | 50대이상   | 9<br>(36.0%)   | 16<br>(64.0%)  | 0<br>(0%)    | 0<br>(0%)   | 25<br>(100%)  |   |
| 담임학년 | 1,2     | 36<br>(39.1%)  | 53<br>(57.6%)  | 0<br>(0%)    | 3<br>(3.3%) | 92<br>(100%)  | 18.090<br>0.006 *                       |
|      | 3,4     | 41<br>(41.4%)  | 50<br>(50.5%)  | 8<br>(8.1%)  | 0<br>(0%)   | 99<br>(100%)  |   |
|      | 5,6     | 44<br>(51.2%)  | 26<br>(30.2%)  | 7<br>(8.1%)  | 2<br>(1.2%) | 79<br>(%)     |   |
| 규모별  | 6 - 18  | 34<br>(43.0%)  | 39<br>(49.4%)  | 5<br>(6.3%)  | 1<br>(1.3%) | 79<br>(%)     | 9.284<br>0.158                          |
|      | 19 - 36 | 39<br>(36.8%)  | 57<br>(53.8%)  | 8<br>(7.5%)  | 2<br>(1.9%) | 106<br>(100%) |   |
|      | 37이상    | 49<br>(57.6%)  | 33<br>(36.3%)  | 3<br>(3.3%)  | 0<br>(0%)   | 85<br>(%)     |   |
| 소재지  | 시       | 86<br>(50.3%)  | 73<br>(42.7%)  | 10<br>(5.8%) | 2<br>(1.2%) | 171<br>(100%) | 7.345<br>0.061                          |
|      | 읍면      | 36<br>(36.4%)  | 57<br>(57.6%)  | 6<br>(6.0%)  | 0<br>(0%)   | 99<br>(%)     |   |
| 합    | 계       | 122<br>(45.2%) | 130<br>(48.1%) | 16<br>(5.9%) | 2<br>(0.7%) | 270<br>(100%) |   |

p <.05\*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응답 결과는 <표 IV - 10>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가 122명(45.2%),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 보니까’가 130명(48.1%), ‘어린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가 16명(5.9%), ‘내용이 좋지 않아서’가 2명(0.7%)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담임 학년’(x<sup>2</sup>-Value=18.09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연령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그리고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대부분의 응답자(93.3%)가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와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보니까’를 선택하였다.

세부항목에서는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보니까’를 성별 남자에서 50.9%, 연령별 50대 이상에서 64%, 담임학년 1,2학년에서 57.6%, 학교 규모별 19 - 36학급에서 53.8%를 선택하여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나, 학교 소재지별 시 지역에서는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를 50.3%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4)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표 IV - 11>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한 생각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   |
| 성 별  | 남     | 16<br>(23.9%) | 47<br>(70.1%)  | 4<br>(6.0%)   | 67<br>(100%)  | 1.79<br>0.41                            |
|      | 여     | 41<br>(17.2%) | 178<br>(74.5%) | 20<br>(8.4%)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0<br>(13.3%) | 60<br>(80.0%)  | 5<br>(6.7%)   | 75<br>(100%)  | 6.934<br>0.326                          |
|      | 30대   | 13<br>(16.3%) | 57<br>(71.3%)  | 10<br>(12.5%) | 80<br>(100%)  |   |
|      | 40대   | 27<br>(23.1%) | 82<br>(70.1%)  | 8<br>(6.8%)   | 117<br>(100%) |   |
|      | 50대이상 | 7<br>(20.6%)  | 26<br>(76.5%)  | 1<br>(2.9%)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19<br>(17.9%) | 80<br>(75.5%)  | 7<br>(6.6%)   | 106<br>(100%) | 5.855<br>0.210                          |
|      | 3,4   | 28<br>(24.6%) | 77<br>(67.5%)  | 9<br>(7.9%)   | 114<br>(100%) |   |
|      | 5,6   | 10<br>(11.6%) | 68<br>(79.1%)  | 8<br>(9.3%)   | 86<br>(100%)  |   |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   |
| 규모별 | 6 - 18  | 16<br>(17.4%) | 69<br>(75.0%)  | 7<br>(7.6%)   | 92<br>(100%)  | 20285<br>0.683                          |
|     | 19 - 36 | 25<br>(20.3%) | 91<br>(74.0%)  | 7<br>(5.7%)   | 123<br>(100%) |   |
|     | 37이상    | 16<br>(17.6%) | 65<br>(71.4%)  | 10<br>(11.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32<br>(16.3%) | 145<br>(74.0%) | 19<br>(9.7%)  | 196<br>(100%) | 3.945<br>0.139                          |
|     | 읍면      | 25<br>(22.7%) | 80<br>(72.7%)  | 5<br>(4.5%)   | 110<br>(%)    |   |
| 합 계 |         | 57<br>(18.6%) | 225<br>(73.5%) | 24<br>(7.8%)  | 306<br>(100%) |   |

p<.05\*

‘통일」 교재를 교사용만 지급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11>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지금처럼 교사에게만 지급하여도 통일 교육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가 57명(18.6%),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가 225명(73.5%), ‘어떻게 하여도 상관없다.’가 24명(7.8%)로 나타나, 대다수(73.5%)의 교사가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응답하였다.

위 설문에 대하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는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리고 14개의 세부 항목에서도 응답 비율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빈도에서는 전체 항목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을 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지금처럼 교사에게만 지급하여도 통일 교육을 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다.’, ‘어떻게 하여도 상관없다.’ 순으로 차이가 없었다.

(5)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표 IV - 12> 교사용 「통일」 교재의 특징

| 항 목    | 남북한 생활상 비교 | 북한 생활 소개  | 주제별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 | 흥미있는 다양한 자료 |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 현실성 부족  | 합 계        |
|--------|------------|-----------|------------------|-------------|--------------------|---------|------------|
| 인원수(%) | 21(21.8%)  | 19(19.8%) | 12(12.5%)        | 16(16.7%)   | 21(21.9%)          | 7(7.3%) | 96(100.0%) |

‘2000학년도부터 보급된 교사용 「통일」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입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하여 96명이 응답한 결과는 <표 IV - 12>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남북한 생활상 비교’와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이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다음으로 ‘북한 생활 소개’, ‘흥미 있는 다양한 자료’, ‘주제별 학년 수준에 맞게 구성’ 등 92.7%의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으며, 7.3%의 응답자가 ‘현실성 부족’을 선택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6) 현재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표 IV - 13>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의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

| 현재의 「통일」 교재        |            |     | 과거의 통일 관련 교재<br>(도덕, 바른생활 등) |            |     |
|--------------------|------------|-----|------------------------------|------------|-----|
| 내 용                | 인원수(%)     | 순 위 | 내 용                          | 인원수(%)     | 순 위 |
| 북한에 대한 수용적 자세      | 11(11.5%)  | 5   |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                  | 23(35.4%)  | 1   |
|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     | 21(21.9%)  | 2   | 체제의 우월성 교육                   | 15(23.1%)  | 3   |
|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 26(27.1%)  | 1   | 비방·획일적인 교육                   | 20(30.8%)  | 2   |
| 남북한 생활상 비교         | 12(12.5%)  | 4   | 기 타                          | 7(10.6%)   | 4   |
| 남북화합 강조            | 11(11.5%)  | 5   | 합 계                          | 65(100.0%) |     |
| 기 타                | 15(15.5%)  | 3   |                              |            |     |
| 합 계                | 96(100.0%) |     |                              |            |     |

현재 「통일」 교재의 내용은 과거 통일 관련 교재(도덕, 바른생활 등) 내용과 비

교하였을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서술형 설문에 대하여 현재의 「통일」 교재에 대하여 응답한 96명과, 과거의 통일 관련 교재(도덕, 바른생활 등)에 대하여 응답한 65명의 결과는 <표 IV - 13>과 같이 나타났다.

현재의 「통일」 교재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이 26명(27.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이 21명(21.9%), ‘북한에 대한 수용적 자세’와 ‘남북한 화합 강조’가 각각 11명(11.5%),으로 조사되었으며,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도 15명(15.5%)으로 조사되었다.

과거의 통일 관련 교재에 대한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이 23명(35.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비방·획일 교육’이 20명(30.8%), ‘체제 우월성 교육’이 15명(23.1%), ‘기타’가 7명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의 「통일」 교재와 과거 통일 관련 교재와의 차이는 ‘반공 이데올로기 교육’과 ‘비방·획일 교육’에서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한 접근’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교육’으로 바뀌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7)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

<표 IV - 14> 「통일」 교재에서 더 보완해야 할 내용

| 구 분     |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 북한의 현실적인 생활 내용 | 동질성 확대    | CD자료 및 시청각 자료 제공 | 객관성 유지    | 합 계        |
|---------|----------------|----------------|-----------|------------------|-----------|------------|
| 인원수 (%) | 20(26.0%)      | 16(20.8%)      | 13(16.9%) | 16(20.78%)       | 12(15.5%) | 77(100.0%) |

앞으로 「통일」 교재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서술형 설문에 대하여 77명이 응답한 결과는 <표 IV - 14>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20명(25.97%), ‘북한의 현실적인 생활내용’과 ‘CD자료 및 시청각자료 제공’이 16(20.78%), ‘동질성 확대’가 13명(16.88%), ‘객관성 유지’가 12명(15.58%)으로 분석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통일」 교재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후의 생활 등과 지도 자료, 민족의 동질성(역사, 미풍양속, 전통문화 등)을 더 보완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 4) 학교 통일교육

현재 학교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에 대하여 ① 교사의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②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③ 통일교육을 할 때 염두에 두는 점 ④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사용하는 수업모형 ⑤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⑥ 학교 통일교육 행사 실시 횟수 ⑦ 통일교육 행사 실시 시기 ⑧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등에 대하여 교사들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 (1)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선생님께서서는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15>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높은 편이다’가 10명(3.3%), ‘높은 편이다’가 72명(23.5%), ‘보통이다.’가 199명(65.0%), ‘별로 관심이 없다.’가 25명(8.2%), ‘전혀 관심이 없다.’는 한 사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199명, 65.0%)이 넘는 응답자가 학교 통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통이다.’를 선택하여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에 관심이 매우 높은 편이다.’와 ‘관심이 높은 편이다.’라는 응답자는 82명(26.8%)이었으며, ‘통일교육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응답자는 25명(8.2%)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x<sup>2</sup>-Value=16.332\* p<.05), ‘담임 학년’(x<sup>2</sup>-Value=18.638\*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연령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IV - 15> 학교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6<br>(9.0%)  | 23<br>(34.3%) | 35<br>(52.2%)  | 3<br>(4.5%)   | 0<br>(0%)  | 67<br>(100%)  | 16.332<br>0.00 *                        |
|      | 여       | 4<br>(1.7%)  | 49<br>(20.5%) | 164<br>(68.6%) | 22<br>(9.2%)  | 0<br>(0%)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3<br>(4.0%)  | 11<br>(14.7%) | 51<br>(68.0%)  | 10<br>(13.3%) | 0<br>(0%)  | 75<br>(100%)  | 14.186<br>0.115                         |
|      | 30대     | 1<br>(1.3%)  | 18<br>(22.5%) | 55<br>(68.8%)  | 6<br>(7.5%)   | 0<br>(0%)  | 80<br>(100%)  |   |
|      | 40대     | 3<br>(2.6%)  | 32<br>(27.4%) | 76<br>(65.0%)  | 6<br>(5.1%)   | 0<br>(0%)  | 117<br>(100%) |   |
|      | 50대이상   | 3<br>(8.8%)  | 11<br>(32.4%) | 17<br>(50.0%)  | 3<br>(8.8%)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2<br>(1.9%)  | 22<br>(20.8%) | 77<br>(72.6%)  | 5<br>(4.7%)   | 0<br>(0%)  | 106<br>(100%) | 18.638<br>0.004 *                       |
|      | 3,4     | 3<br>(2.6%)  | 39<br>(34.2%) | 62<br>(54.4%)  | 10<br>(8.8%)  | 0<br>(0%)  | 114<br>(100%) |   |
|      | 5,6     | 5<br>(5.8%)  | 11<br>(12.8%) | 60<br>(69.8%)  | 10<br>(11.6%) | 0<br>(06%)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2<br>(2.2%)  | 18<br>(19.6%) | 65<br>(70.7%)  | 7<br>(7.6%)   | 0<br>(0%)  | 92<br>(100%)  | 4.515<br>0.607                          |
|      | 19 - 36 | 6<br>(4.9%)  | 31<br>(25.2%) | 78<br>(63.4%)  | 8<br>(6.5%)   | 0<br>(0%)  | 123<br>(100%) |   |
|      | 37이상    | 2<br>(2.2%)  | 23<br>(25.3%) | 56<br>(61.5%)  | 10<br>(11.0%) | 0<br>(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5<br>(2.6%)  | 50<br>(25.5%) | 127<br>(64.8%) | 14<br>(7.1%)  | 0<br>(0%)  | 196<br>(100%) | 2.475<br>0.479                          |
|      | 읍면      | 5<br>(4.5%)  | 22<br>(20.0%) | 72<br>(65.5%)  | 11<br>(10.0%) | 0<br>(0%)  | 110<br>(100%) |   |
| 합    | 계       | 10<br>(3.3%) | 72<br>(23.5%) | 199<br>(65.0%) | 25<br>(8.2%)  | 0<br>(0%)  | 306<br>(100%) |   |

p<.05\*

2)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표 IV - 16>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8<br>(26.9%) | 16<br>(23.9%) | 20<br>(29.9%) | 13<br>(19.4%) | 67<br>(100%)  | 2.08<br>0.55                            |
|      | 여       | 49<br>(20.5%) | 71<br>(29.7%) | 64<br>(26.8%) | 55<br>(23.0%)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2<br>(16.0%) | 22<br>(29.3%) | 25<br>(33.3%) | 16<br>(21.3%) | 75<br>(100%)  | 15.994<br>0.066                         |
|      | 30대     | 14<br>(17.5%) | 20<br>(25.0%) | 24<br>(30.0%) | 22<br>(27.5%) | 80<br>(100%)  |   |
|      | 40대     | 27<br>(23.1%) | 38<br>(32.5%) | 31<br>(26.5%) | 21<br>(17.9%) | 117<br>(100%) |   |
|      | 50대이상   | 14<br>(41.2%) | 7<br>(20.6%)  | 4<br>(11.8%)  | 9<br>(26.5%)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24<br>(22.6%) | 21<br>(19.8%) | 37<br>(34.9%) | 24<br>(22.6%) | 106<br>(100%) | 14.209<br>0.027 *                       |
|      | 3,4     | 30<br>(26.3%) | 33<br>(28.9%) | 30<br>(26.3%) | 21<br>(18.4%) | 114<br>(100%) |   |
|      | 5,6     | 13<br>(15.1%) | 33<br>(38.4%) | 17<br>(19.8%) | 23<br>(26.7%)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18<br>(19.6%) | 28<br>(30.4%) | 27<br>(29.3%) | 19<br>(20.7%) | 92<br>(100%)  | 3.765<br>0.708                          |
|      | 19 - 36 | 28<br>(22.8%) | 29<br>(23.6%) | 37<br>(30.1%) | 29<br>(23.6%) | 123<br>(100%) |   |
|      | 37이상    | 21<br>(23.1%) | 30<br>(33.0%) | 20<br>(22.0%) | 20<br>(22.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49<br>(25.0%) | 53<br>(27.0%) | 56<br>(28.6%) | 38<br>(19.4%) | 196<br>(100%) | 4.991<br>0.172                          |
|      | 읍면      | 18<br>(16.4%) | 34<br>(30.9%) | 28<br>(25.5%) | 30<br>(27.3%) | 110<br>(100%) |   |
| 합 계  |         | 67<br>(21.9%) | 87<br>(28.4%) | 84<br>(27.5%) | 68<br>(22.2%) | 306<br>(100%) |   |

p<.05\*

통일교육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자료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다음 <표 IV - 16>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교재’가 67명(21.9%), ‘신문·잡지’가 87명(28.4%), ‘인터넷·CD 자료’가 84명(27.5%), ‘평소

아는 대로'가 68명(22.2%)으로 나타나, 서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신문이나 잡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인터넷·CD자료'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담임 학년'(x<sup>2</sup>-Value=14.20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연령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도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3)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표 IV - 17> 통일교육 지도 시 염두에 두는 생각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6             | 7         |               |   |
| 성 별      | 남       | 33<br>(49.3%)  | 9<br>(13.4%)  | 8<br>(11.9%)  | 3<br>(4.5%) | 3<br>(4.5%)   | 11<br>(16.4%) | 0<br>(0%) | 67<br>(100%)  | 9.81<br>0.08                            |
|          | 여       | 114<br>(47.4%) | 46<br>(19.2%) | 13<br>(5.4%)  | 3<br>(1.3%) | 28<br>(11.7%) | 35<br>(14.6%) | 0<br>(0%)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40<br>(53.3%)  | 15<br>(20.0%) | 4<br>(5.3%)   | 2<br>(2.7%) | 5<br>(6.7%)   | 9<br>(12.0%)  | 0<br>(0%) | 75<br>(100%)  | 15.597<br>0.409                         |
|          | 30대     | 41<br>(51.3%)  | 15<br>(18.8%) | 1<br>(1.3%)   | 1<br>(1.3%) | 11<br>(13.8%) | 11<br>(13.8%) | 0<br>(0%) | 80<br>(100%)  |   |
|          | 40대     | 48<br>(41.0%)  | 22<br>(18.8%) | 13<br>(11.1%) | 4<br>(1.7%) | 13<br>(11.1%) | 19<br>(16.2%) | 0<br>(0%) | 117<br>(100%) |   |
|          | 50대이상   | 18<br>(52.9%)  | 3<br>(8.8%)   | 3<br>(8.8%)   | 1<br>(2.9%) | 2<br>(5.9%)   | 7<br>(20.6%)  | 0<br>(0%) | 34<br>(100%)  |   |
| 담임<br>학년 | 1,2     | 53<br>(50.0%)  | 18<br>(17.0%) | 7<br>(6.6%)   | 0<br>(0%)   | 12<br>(11.3%) | 16<br>(15.1%) | 0<br>(0%) | 106<br>(100%) | 21.335<br>0.018 *                       |
|          | 3,4     | 61<br>(53.5%)  | 21<br>(18.4%) | 12<br>(10.5%) | 2<br>(1.8%) | 8<br>(7.0%)   | 10<br>(8.8%)  | 0<br>(0%) | 114<br>(100%) |   |
|          | 5,6     | 33<br>(38.4%)  | 16<br>(18.6%) | 2<br>(2.3%)   | 4<br>(4.7%) | 11<br>(12.8%) | 20<br>(23.3%) | 0<br>(0%)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38<br>(41.3%)  | 13<br>(14.1%) | 7<br>(7.6%)   | 2<br>(2.2%) | 10<br>(10.9%) | 22<br>(23.9%) | 0<br>(0%) | 92<br>(100%)  | 13.989<br>0.173                         |
|          | 19 - 36 | 68<br>(55.3%)  | 21<br>(17.1%) | 10<br>(8.1%)  | 2<br>(1.6%) | 10<br>(8.1%)  | 12<br>(9.8%)  | 0<br>(0%) | 123<br>(100%) |   |
|          | 37이상    | 41<br>(45.1%)  | 21<br>(23.1%) | 4<br>(4.4%)   | 2<br>(2.2%) | 11<br>(12.1%) | 12<br>(13.2%) | 0<br>(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90<br>(45.9%)  | 44<br>(22.4%) | 11<br>(5.6%)  | 5<br>(2.6%) | 18<br>(9.2%)  | 28<br>(14.3%) | 0<br>(0%) | 196<br>(100%) | 9.481<br>0.091                          |
|          | 읍면      | 57<br>(51.8%)  | 11<br>(10.0%) | 10<br>(9.1%)  | 1<br>(0.9%) | 13<br>(11.8%) | 18<br>(16.4%) | 0<br>(0%) | 110<br>(100%) |   |
| 합 계      |         | 147<br>(48.0%) | 55<br>(18.0%) | 21<br>(6.9%)  | 6<br>(2.0%) | 31<br>(10.1%) | 46<br>(15.0%) | 0<br>(0%) | 306<br>(100%) |   |

p<.05

‘평소 통일교육을 하면서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실시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17>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우리 민족의 공통성’이 147명(48.0%), ‘남·북한 생활상 비교’가 55명(18.0%),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21명(6.9%),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이 6명(2.0%), ‘이산 가족의 슬픔’이 31명(10.1%), ‘평화 통일’이 46명(15.0%), ‘반공 의식’은 한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볼 때 응답자가 통일교육을 하면서 가장 염두에 두는 점은 ‘우리 민족의 공통성’이었으며, 다음으로 ‘북한의 어려운 경제 사정’, ‘남·북한 생활상 비교’ 순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담임 학년’( $\chi^2$ -Value=21.335\*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 (4)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 모형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수업모형을 자주 사용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18>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이 121명(39.5%), ‘어린이 중심의 발표 및 토의학습’이 56명(18.3%), ‘역할놀이 학습’이 4명(1.3%), ‘과제 조사 학습’이 33명(10.8%), ‘시청각 자료 활용 학습’이 88명(28.8%), 기타 4명(1.3%)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약 40%가 지금도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을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28.8%의 응답자가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수업, 18.3%가 어린이 중심의 발표 및 토의 학습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과제 조사학습 및 기타 학습모형에서 각각 1.3%를 선택하여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표 IV - 18>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업모형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6           |               |   |
| 성 별  | 남       | 27<br>(40.3%)  | 13<br>(19.4%) | 2<br>(3.0%) | 8<br>(11.9%)  | 17<br>(25.4%) | 0<br>(0%)   | 67<br>(100%)  | 3.48<br>0.63                            |
|      | 여       | 94<br>(39.3%)  | 43<br>(18.0%) | 2<br>(0.8%) | 25<br>(10.5%) | 71<br>(29.7%) | 4<br>(1.7%)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24<br>(32.0%)  | 14<br>(18.7%) | 0<br>(0%)   | 11<br>(14.7%) | 25<br>(33.3%) | 1<br>(1.3%) | 75<br>(100%)  | 20.107<br>0.167                         |
|      | 30대     | 30<br>(37.5%)  | 15<br>(18.8%) | 0<br>(0%)   | 5<br>(6.3%)   | 28<br>(35.0%) | 2<br>(2.5%) | 80<br>(100%)  |   |
|      | 40대     | 46<br>(39.3%)  | 21<br>(17.9%) | 3<br>(2.6%) | 15<br>(12.8%) | 31<br>(26.5%) | 1<br>(0.9%) | 117<br>(100%) |   |
|      | 50대이상   | 21<br>(61.8%)  | 6<br>(17.6%)  | 1<br>(2.9%) | 2<br>(5.9%)   | 4<br>(11.8%)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44<br>(41.5%)  | 17<br>(16.0%) | 1<br>(0.9%) | 10<br>(9.4%)  | 34<br>(32.1%) | 0<br>(0%)   | 106<br>(100%) | 10.009<br>0.439                         |
|      | 3,4     | 38<br>(33.3%)  | 25<br>(21.9%) | 2<br>(1.8%) | 14<br>(12.3%) | 34<br>(29.8%) | 1<br>(0.9%) | 114<br>(100%) |   |
|      | 5,6     | 39<br>(45.3%)  | 14<br>(16.3%) | 1<br>(1.2%) | 9<br>(10.5%)  | 20<br>(23.3%) | 3<br>(3.5%)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45<br>(48.9%)  | 11<br>(12.0%) | 1<br>(1.1%) | 7<br>(7.6%)   | 27<br>(29.3%) | 1<br>(1.1%) | 92<br>(100%)  | 13.205<br>0.212                         |
|      | 19 - 36 | 47<br>(38.2%)  | 23<br>(18.7%) | 2<br>(1.6%) | 16<br>(13.0%) | 35<br>(28.5%) | 0<br>(0%)   | 123<br>(100%) |   |
|      | 37이상    | 29<br>(31.9%)  | 22<br>(24.2%) | 1<br>(1.1%) | 10<br>(11.0%) | 26<br>(28.6%) | 3<br>(3.3%) | 91<br>(100%)  |   |
| 소재지  | 시       | 73<br>(37.2%)  | 38<br>(19.4%) | 4<br>(2.0%) | 23<br>(11.7%) | 55<br>(28.1%) | 3<br>(1.5%) | 196<br>(100%) | 4.081<br>0.537                          |
|      | 읍면      | 48<br>(43.6%)  | 18<br>(16.4%) | 0<br>(0%)   | 10<br>(9.1%)  | 33<br>(30.0%) | 1<br>(0.9%) | 110<br>(%)    |   |
| 합 계  |         | 121<br>(39.5%) | 56<br>(18.3%) | 4<br>(1.3%) | 33<br>(10.8%) | 88<br>(28.8%) | 4<br>(1.3%) | 36<br>(100%)  |   |

p<.05\*

(5)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표 IV - 19>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4<br>(6.0%)  | 46<br>(68.7%)  | 11<br>(16.4%) | 6<br>(9.0%)   | 67<br>(100%)  | 7.432<br>0.114                          |
|      | 여       | 4<br>(1.7%)  | 146<br>(61.1%) | 44<br>(18.4%) | 45<br>(18.8%)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br>(1.3%)  | 50<br>(66.7%)  | 13<br>(17.3%) | 11<br>(15.7%) | 75<br>(100%)  | 17.800<br>0.121                         |
|      | 30대     | 2<br>(2.5%)  | 48<br>(60.0%)  | 16<br>(20.0%) | 14<br>(17.5%) | 80<br>(100%)  |   |
|      | 40대     | 1<br>(0.9%)  | 74<br>(63.2%)  | 20<br>(17.1%) | 22<br>(18.8%) | 117<br>(100%) |   |
|      | 50대이상   | 4<br>(11.8%) | 20<br>(58.8%)  | 6<br>(17.6%)  | 4<br>(11.8%)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3<br>(2.8%)  | 63<br>(59.4%)  | 15<br>(14.2%) | 25<br>(23.6%) | 106<br>(100%) | 14.375<br>0.072                         |
|      | 3,4     | 3<br>(2.6%)  | 81<br>(71.1%)  | 20<br>(17.5%) | 10<br>(8.8%)  | 114<br>(100%) |   |
|      | 5,6     | 2<br>(2.3%)  | 48<br>(55.8%)  | 20<br>(23.3%) | 16<br>(18.6%)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4<br>(4.3%)  | 54<br>(58.7%)  | 13<br>(14.1%) | 21<br>(22.8%) | 92<br>(100%)  | 9.590<br>0.294                          |
|      | 19 - 36 | 3<br>(2.4%)  | 77<br>(62.6%)  | 26<br>(21.1%) | 17<br>(13.8%) | 123<br>(100%) |   |
|      | 37이상    | 1<br>(1.1%)  | 61<br>(67.0%)  | 16<br>(17.6%) | 13<br>(14.3%) | 91<br>(100%)  |   |
| 소재지  | 시       | 6<br>(3.1%)  | 131<br>(66.8%) | 31<br>(15.8%) | 28<br>(14.3%) | 196<br>(100%) | 6.038<br>0.196                          |
|      | 읍면      | 2<br>(1.8%)  | 61<br>(55.5%)  | 24<br>(21.8%) | 23<br>(20.9%) | 110<br>(%)    |   |
| 합 계  |         | 8<br>(2.6%)  | 192<br>(62.7%) | 55<br>(18.0%) | 51<br>(16.6%) | 306<br>(100%) |   |

p<.05\*

응답자가 말고 있는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떻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19>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매우 높은 편이다.’가 8명(2.6%),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가 192명(62.7%), ‘별 흥미 없이 참여한다.’가 55명(18.0%), ‘다른 수업과 마찬가지로이다.’가 51명(16.6%)으로 나타나, 전체의 65.3%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한다고 응답

하였다. 그리고 전체의 18%의 어린이가 '별 관심이 참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모두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통일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표 IV - 20> 통일 교육에 대한 1년 동안 행사 총 횟수

| 특 성  | 세부 항목   | 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6<br>(23.9%)  | 45<br>(67.2%)  | 5<br>(7.5%)  | 1<br>(1.5%) | 67<br>(100%)  | 14.772<br>0.002 *                       |
|      | 여       | 107<br>(44.8%) | 126<br>(52.7%) | 6<br>(2.5%)  | 0<br>(0%)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27<br>(36.0%)  | 45<br>(60.0%)  | 2<br>(2.7%)  | 1<br>(1.3%) | 75<br>(100%)  | 12.485<br>0.187                         |
|      | 30대     | 40<br>(50.0%)  | 39<br>(48.8%)  | 1<br>(1.3%)  | 0<br>(0%)   | 80<br>(100%)  |   |
|      | 40대     | 47<br>(40.2%)  | 65<br>(55.6%)  | 5<br>(4.3%)  | 0<br>(0%)   | 117<br>(100%) |   |
|      | 50대이상   | 9<br>(26.5%)   | 22<br>(64.7%)  | 3<br>(8.8%)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45<br>(42.5%)  | 56<br>(52.8%)  | 5<br>(4.7%)  | 0<br>(0%)   | 106<br>(100%) | 4.976<br>0.546                          |
|      | 3,4     | 44<br>(38.6%)  | 68<br>(59.6%)  | 2<br>(1.8%)  | 0<br>(0%)   | 114<br>(100%) |   |
|      | 5,6     | 34<br>(39.5%)  | 47<br>(54.7%)  | 4<br>(4.7%)  | 1<br>(1.2%)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36<br>(39.1%)  | 54<br>(58.7%)  | 2<br>(2.2%)  | 0<br>(0%)   | 92<br>(100%)  | 3.201<br>0.783                          |
|      | 19 - 36 | 50<br>(40.7%)  | 68<br>(55.3%)  | 4<br>(3.3%)  | 1<br>(0.8%) | 123<br>(100%) |   |
|      | 37이상    | 37<br>(40.7%)  | 49<br>(53.8%)  | 5<br>(5.5%)  | 0<br>(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79<br>(40.3%)  | 109<br>(55.6%) | 7<br>(3.6%)  | 1<br>(0.5%) | 196<br>(100%) | 0.570<br>0.903                          |
|      | 읍면      | 44<br>(40.0%)  | 62<br>(56.4%)  | 4<br>(3.6%)  | 0<br>(0%)   | 110<br>(100%) |   |
| 합 계  |         | 123<br>(40.2%) | 171<br>(55.9%) | 11<br>(3.6%) | 1<br>(0.3%) | 306<br>(100%) |   |

p<.05

‘근무하는 학교에서 통일 교육에 대한 행사를 모두 합하여 1년에 몇 회 정도 실시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20>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 ‘0~1회’가 123명(40.2%), ‘2~3회’가 171명(55.9%), ‘4~5회’가 11명(3.6%), ‘6회 이상’이 1명(0.3%)으로 나타나, 96.1%의 응답자가 통일교육에 대한 학교 행사를 3회 이하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6회 이상 실시한다는 응답도 1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x<sup>2</sup>-Value=14.772\*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별’, ‘담임학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도 각각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7)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표 IV - 21> 연간 통일교육에 관련된 부문별 행사실시 횟수

| 횟수<br>종목       | 0              | 1              | 2            | 3           | 4회<br>이상 | 합 계   | 비 고 |
|----------------|----------------|----------------|--------------|-------------|----------|-------|-----|
| 응변 대회          | 83<br>(27.1%)  | 218<br>(71.2%) | 5<br>(1.7%)  | .           | .        | 306   |     |
| 걷기·행진<br>대 회   | 271<br>(88.6%) | 35<br>(11.4%)  | .            | .           | .        | 306   |     |
| 그리기 및 포<br>스 터 | 21<br>(6.9%)   | 269<br>(87.9%) | 14<br>(4.6%) | 2<br>(0.6%) | .        | 306   |     |
| 글 짓 기          | 36<br>(11.8%)  | 253<br>(82.7%) | 15<br>(4.9%) | 2<br>(0.6%) | .        | 306   |     |
| 현 장 체<br>험 학 습 | 237<br>(77.5%) | 65<br>(21.2%)  | 4<br>(1.3%)  | .           | .        | 306   |     |
| 기 타            | 295<br>(96.4%) | 10<br>(3.3%)   | 1<br>(0.3%)  | .           | .        | 306   |     |
| 합 계            | 943<br>(51.4%) | 850<br>(46.3%) | 39<br>(2.1%) | 4<br>(0.2%) | .        | 1,836 | 연횟수 |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위와 같은 통일교육 행사는 연간 몇 번 정도 실시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응답한 결과는 <표 IV - 21>과 같이 나타났다. 응변대회의 경우 연

간 '1회 실시한다.'가 218명(71.2%)이며, '전혀 하지 않는다.'가 83명(27.1%), '2회 실시한다.'가 5명(1.7%)으로 나타났다.

걷기·행진 대회에 대한 응답 결과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271명(88.6%), '1회 실시한다.'가 35명(11.4%)으로 나타나 대다수의 학교가 실시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기 및 포스터 그리기 분야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21명(6.9%), '1회 실시한다.'가 269명(87.9%), '2회 실시한다.'가 14명(4.6%), "3회 실시한다."가 2명(0.6%)로 응답하여 대부분(87.9%)의 학교에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짓기 부문에서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36명(11.8%), '1회 실시한다.'가 253명(82.7%), '2회 실시한다.'가 15명(4.9%), '3회 실시한다.'가 2명(0.6%)로 응답하여 많은 학교(82.7%)에서 1회 실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현장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전혀 실시하지 않는다.'가 237명(77.54%), '1회 실시한다.'가 65명(21.2%), '2회 실시한다.'가 4명(1.3%)으로 응답하여, 통일교육을 위한 현장체험학습은 대부분의 학교에서 1회 정도 또는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8) 통일 관련 행사 개최 시기

<표 IV - 22> 통일 관련 행사 개최 시기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1<br>(1.5%) | 65<br>(97.0%)  | 0<br>(0%)   | 1<br>(1.5%) | 0<br>(0%)   | 67<br>(100%)  | 2.343<br>0.673                          |
|     | 여     | 1<br>(0.4%) | 229<br>(95.8%) | 3<br>(1.3%) | 4<br>(1.7%) | 2<br>(0.8%)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br>(1.3%) | 71<br>(94.7%)  | 1<br>(1.3%) | 2<br>(2.7%) | 0<br>(0%)   | 75<br>(100%)  | 10.392<br>0.581                         |
|     | 30대   | 0<br>(0%)   | 76<br>(95.0%)  | 2<br>(2.5%) | 1<br>(1.3%) | 1<br>(1.3%) | 80<br>(100%)  |   |
|     | 40대   | 0<br>(0%)   | 114<br>(97.4%) | 2<br>(1.7%) | 1<br>(0.9%) | 0<br>(0%)   | 117<br>(100%) |   |
|     | 50대이상 | 1<br>(2.9%) | 33<br>(97.1%)  | 0<br>(0%)   | 0<br>(0%)   | 0<br>(0%)   | 34<br>(100%)  |   |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담임학년 | 1,2     | 1<br>(0.9%) | 102<br>(96.2%) | 0<br>(0%)   | 1<br>(0.9%) | 2<br>(1.9%) | 106<br>(100%) | 10.624<br>0.223                         |
|      | 3,4     | 0<br>(0%)   | 109<br>(95.6%) | 3<br>(2.6%) | 2<br>(1.8%) | 0<br>(0%)   | 114<br>(100%) |   |
|      | 5,6     | 1<br>(1.2%) | 83<br>(96.5%)  | 0<br>(0%)   | 2<br>(2.3%) | 0<br>(0%)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1<br>(1.1%) | 89<br>(96.7%)  | 0<br>(0%)   | 1<br>(1.1%) | 1<br>(1.1%) | 92<br>(100%)  | 7.602<br>0.473                          |
|      | 19 - 36 | 1<br>(0.8%) | 116<br>(94.3%) | 3<br>(2.4%) | 3<br>(2.4%) | 0<br>(0)    | 123<br>(100%) |   |
|      | 37이상    | 0<br>(0%)   | 89<br>(97.8%)  | 1<br>(1.1%) | 1<br>(1.1%) | 0<br>(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br>(0.5%) | 188<br>(95.9%) | 2<br>(1.0%) | 3<br>(1.5%) | 2<br>(1.0%) | 196<br>(100%) | 1.339<br>0.854                          |
|      | 읍면      | 1<br>(0.9%) | 106<br>(96.4%) | 1<br>(0.9%) | 2<br>(1.8%) | 0<br>(0%)   | 110<br>(100%) |   |
| 합 계  |         | 2<br>(0.7%) | 294<br>(96.1%) | 3<br>(1.0%) | 5<br>(1.6%) | 2<br>(0.7%) | 306<br>(100%) |   |

p<.05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 관련 행사는 1년 중 대개 언제 많이 실시하게 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22>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 ‘3~4월에 실시한다.’가 2명(0.7%), ‘5~6월에 실시한다.’가 294명(96.1%), ‘7~8월에 실시한다.’가 3명(1.0%), 9~10월에 실시한다.’가 5명(1.6%), ‘11~12월에 실시한다.’가 2명(0.7%)으로 응답하여, 96.7%의 학교에서 5~6월에 실시한다고 조사되어 대부분의 학교에서 6·25 사변일이 들어 있는 6월에 통일 관련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중 세부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밖에 5명이 9 - 10월에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3명이 7 - 8월에 실시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명이 3 - 4월과 11 - 12월에 실시한다고 조사되었다.

9)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표 IV - 23>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

| 구 분    | 영상 자료<br>감상 및 소<br>감 쓰기 | 토론 대회     | 퀴즈 대회    | 강사 초빙<br>수업 | 독서 및<br>독서 후<br>활동 | 합 계        |
|--------|-------------------------|-----------|----------|-------------|--------------------|------------|
| 인원수(%) | 14(29.7%)               | 10(21.3%) | 6(12.8%) | 9(19.2%)    | 8(17.0%)           | 47(100.0%) |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교육 행사는’ <표 IV - 20> 연간 학교 통일교육 행사’를 제외하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하여 47명이 응답한 결과는 <표 IV - 23>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영상자료 감상 및 소감 쓰기’가 14명(29.79%), ‘토론대회’가 10명(21.28%), ‘퀴즈대회’가 6명(12.77%), ‘강사초빙수업’ 9명(19.15%), ‘독서 및 독서 후 활동’이 8명(17.02%)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표 IV - 20> 연간 학교 통일교육 행사’를 제외한 그 밖의 통일교육 행사에는 ‘영상 자료 감상 및 소감 쓰기’, ‘토론대회’, ‘강사 초빙 수업’ 등의 순으로 분석되었다.

5)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①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② 통일교육시 가장 어려운 점 ③ 통일교육 연수에 대한 생각 ④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⑤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조사하였다.

- (1)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표 IV - 24> 현직 교사가 실제로 지도해 본 통일교육 프로그램

| 구 분      | 역할놀이 수업  | 토론학습     | 신문·잡지<br>활용 수업 | 시청각 자료<br>활용 수업 | 합 계        |
|----------|----------|----------|----------------|-----------------|------------|
| 인 원 수(%) | 7(26.0%) | 6(22.2%) | 9(33.3%)       | 5(18.5%)        | 27(100.0%) |

‘선생님께서 실제로 지도해 보신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하여 27명이 응답한 결과는 <표 IV - 24>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분석해 보면 ‘역할놀이 수업’이 7명(26.0%), ‘토론학습’이 6명(22.2%) ‘신문·잡지 활용 수업’이 9명(33.3%), ‘시청각자료 활용수업’이 5명(18.5%)으로 조사되었다.

(2)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에 내용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25>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이 199명(65.0%), ‘역사교육’이 10명(3.3%), ‘언어교육’이 4명(1.3%), ‘동질성회복교육’이 79명(25.8%), ‘민주시민교육’이 14명(4.6%)으로 응답하였다. 여기에서 ‘민족 공동체 의식 교육’과 ‘동질성 회복 교육’은 내용이 비슷한 점을 고려할 때 90.8%의 응답자가 ‘한 민족임을 강조하는 교육’을 우선 지도해야 한다고 조사되었다.

<표 IV - 25>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 교육의 내용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38<br>(56.7%)  | 4<br>(6.0%)  | 2<br>(3.0%) | 17<br>(25.4%) | 6<br>(9.0%)  | 67<br>(100%)  | 8.280<br>0.082                          |
|      | 여       | 161<br>(67.4%) | 6<br>(2.5%)  | 2<br>(0.8%) | 62<br>(25.9%) | 8<br>(3.3%)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49<br>(65.3%)  | 2<br>(2.7%)  | 1<br>(1.3%) | 21<br>(28.0%) | 2<br>(2.7%)  | 75<br>(100%)  | 13.607<br>0.326                         |
|      | 30대     | 50<br>(62.5%)  | 1<br>(1.3%)  | 0<br>(0%)   | 24<br>(30.0%) | 5<br>(6.3%)  | 80<br>(100%)  |   |
|      | 40대     | 81<br>(70.1%)  | 6<br>(5.1%)  | 2<br>(1.7%) | 24<br>(20.5%) | 3<br>(2.6%)  | 117<br>(100%) |   |
|      | 50대이상   | 18<br>(52.9%)  | 1<br>(2.9%)  | 1<br>(2.9%) | 10<br>(29.4%) | 4<br>(11.8%) | 34<br>(100%)  |   |
| 답임학년 | 1,2     | 72<br>(67.9%)  | 2<br>(1.9%)  | 1<br>(0.9%) | 29<br>(27.4%) | 2<br>(1.9%)  | 106<br>(100%) | 5.981<br>0.649                          |
|      | 3,4     | 68<br>(59.6%)  | 5<br>(4.4%)  | 2<br>(1.8%) | 31<br>(27.2%) | 8<br>(7.0%)  | 114<br>(100%) |   |
|      | 5,6     | 59<br>(68.6%)  | 3<br>(3.5%)  | 1<br>(1.2%) | 19<br>(22.1%) | 4<br>(4.7%)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64<br>(69.6%)  | 3<br>(3.3%)  | 1<br>(1.1%) | 21<br>(22.8%) | 3<br>(3.3%)  | 92<br>(100%)  | 2.345<br>0.968                          |
|      | 19 - 36 | 78<br>(63.4%)  | 3<br>(2.4%)  | 2<br>(1.6%) | 33<br>(26.8%) | 7<br>(5.7%)  | 123<br>(100%) |   |
|      | 37이상    | 57<br>(62.6%)  | 4<br>(4.4%)  | 1<br>(1.1%) | 25<br>(27.5%) | 4<br>(4.4%)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20<br>(61.2%) | 7<br>(3.6%)  | 3<br>(1.5%) | 59<br>(30.1%) | 7<br>(3.6%)  | 196<br>(100%) | 6.656<br>0.155                          |
|      | 읍면      | 79<br>(71.8%)  | 3<br>(2.7%)  | 1<br>(0.9%) | 20<br>(18.2%) | 7<br>(6.4%)  | 110<br>(100%) |   |
| 합    | 계       | 199<br>(65.0%) | 10<br>(3.3%) | 4<br>(1.3%) | 79<br>(25.8%) | 14<br>(4.6%) | 306<br>(100%) |   |

p<.05\*

(3)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표 IV - 26>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5<br>(22.4%)  | 29<br>(43.3%)  | 9<br>(13.4%)  | 14<br>(20.9%) | 67<br>(100%)  | 7.321<br>0.062                          |
|      | 여       | 87<br>(36.7%)  | 74<br>(31.2%)  | 19<br>(8.0%)  | 57<br>(24.1%) | 237<br>(100%) |   |
| 연령별  | 20대     | 28<br>(37.3%)  | 27<br>(36.0%)  | 8<br>(10.7%)  | 12<br>(16.0%) | 75<br>(100%)  | 9.386<br>0.402                          |
|      | 30대     | 27<br>(33.8%)  | 23<br>(28.8%)  | 9<br>(11.3%)  | 21<br>(26.3%) | 80<br>(100%)  |   |
|      | 40대     | 41<br>(35.0%)  | 37<br>(31.6%)  | 9<br>(7.7%)   | 28<br>(23.9%) | 115<br>(100%) |   |
|      | 50대이상   | 6<br>(17.6%)   | 16<br>(47.1%)  | 2<br>(5.9%)   | 10<br>(29.4%)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38<br>(35.8%)  | 33<br>(31.1%)  | 6<br>(5.7%)   | 29<br>(27.4%) | 106<br>(100%) | 8.001<br>0.238                          |
|      | 3,4     | 35<br>(31.0%)  | 42<br>(37.2%)  | 9<br>(7.9%)   | 27<br>(23.7%) | 113<br>(100%) |   |
|      | 5,6     | 29<br>(34.1%)  | 28<br>(32.9%)  | 13<br>(15.3%) | 15<br>(17.6%) | 85<br>(100%)  |   |
| 규모별  | 6 - 18  | 38<br>(41.3%)  | 26<br>(28.3%)  | 5<br>(5.4%)   | 23<br>(25.0%) | 92<br>(100%)  | 9.180<br>0.163                          |
|      | 19 - 36 | 31<br>(25.2%)  | 47<br>(38.2%)  | 14<br>(11.4%) | 31<br>(25.2%) | 123<br>(100%) |   |
|      | 37이상    | 33<br>(37.1%)  | 30<br>(33.7%)  | 9<br>(10.1%)  | 17<br>(19.1%) | 89<br>(100%)  |   |
| 소재지  | 시       | 64<br>(33.0%)  | 64<br>(33.0%)  | 22<br>(11.3%) | 44<br>(22.7%) | 194<br>(100%) | 2.921<br>0.403                          |
|      | 읍면      | 38<br>(34.5%)  | 39<br>(35.5%)  | 6<br>(5.5%)   | 27<br>(24.5%) | 110<br>(100%) |   |
| 합    | 계       | 102<br>(33.3%) | 103<br>(33.9%) | 28<br>(9.2%)  | 71<br>(23.2%) | 304<br>(100%) | *무응답 2                                  |

p<.05\*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26>와 같다. 응답 결과를 보면 ‘통일교육 내용의 한계’가 102명(33.3%), ‘통일교육의 방향’이 103명(33.9%), ‘시수 확보’가 28명(9.2%), ‘자료 부족’이 71명(23.2%)으로 응답하여, 통일교육에 가장 어려운 점을 ‘통일교육의 방향’과 ‘통일교육의 한계’를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하였으며, 그밖에 자료 부족을 꼽고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과 14개의 세부 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4) 통일교육 수강 연수 여부

<표 IV - 27> 통일교육 연수 수강 여부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5<br>(22.4%) | 40<br>(59.7%)  | 7<br>(10.4%)  | 5<br>(7.5%)   | 67<br>(100%)  | 4.234<br>2.237                          |
|      | 여       | 35<br>(14.6%) | 136<br>(56.9%) | 38<br>(15.9%) | 30<br>(12.6%)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1<br>(14.7%) | 48<br>(64.0%)  | 6<br>(8.0%)   | 10<br>(13.3%) | 75<br>(100%)  | 5.971<br>0.742                          |
|      | 30대     | 14<br>(17.5%) | 43<br>(53.8%)  | 14<br>(17.5%) | 9<br>(11.3%)  | 80<br>(100%)  |   |
|      | 40대     | 20<br>(17.1%) | 63<br>(53.8%)  | 20<br>(17.1%) | 14<br>(12.0%) | 117<br>(100%) |   |
|      | 50대이상   | 5<br>(14.7%)  | 22<br>(64.7%)  | 5<br>(14.7%)  | 2<br>(5.9%)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21<br>(19.8%) | 55<br>(51.9%)  | 23<br>(21.7%) | 7<br>(6.6%)   | 106<br>(100%) | 17.558<br>0.007 *                       |
|      | 3,4     | 20<br>(17.5%) | 68<br>(59.6%)  | 15<br>(13.2%) | 11<br>(9.6%)  | 114<br>(100%) |   |
|      | 5,6     | 9<br>(10.5%)  | 53<br>(61.6%)  | 7<br>(8.1%)   | 17<br>(19.8%)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14<br>(15.2%) | 46<br>(50.0%)  | 20<br>(21.7%) | 12<br>(13.0%) | 92<br>(100%)  | 7.266<br>0.296                          |
|      | 19 - 36 | 20<br>(16.3%) | 78<br>(63.4%)  | 12<br>(9.8%)  | 13<br>(10.6%) | 123<br>(100%) |   |
|      | 37이상    | 16<br>(17.6%) | 52<br>(57.1%)  | 13<br>(14.3%) | 10<br>(11.0%) | 91<br>(100%)  |   |
| 소재지  | 시       | 28<br>(14.3%) | 126<br>(64.3%) | 24<br>(12.2%) | 18<br>(9.2%)  | 196<br>(100%) | 10.419<br>0.015 *                       |
|      | 읍면      | 22<br>(20.0%) | 50<br>(45.5%)  | 21<br>(19.1%) | 17<br>(15.5%) | 110<br>(100%) |   |
| 합 계  |         | 50<br>(16.3%) | 176<br>(57.5%) | 45<br>(14.7%) | 35<br>(11.4%) | 306<br>(100%) |   |

p<.05\*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27>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연수를 받겠다.’가 50명(16.3%), ‘시간이 나면 받겠다.’가 176명(57.5%), ‘연수를 받지 않겠다.’가 45명(14.7%), ‘잘 모르겠다’가 35명(11.4%)으로 응답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응답자의 의견은 ‘연수를 받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73.8%이며, ‘받지 않겠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14.7%로 조사되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담임 학년’(x<sup>2</sup> -Value =17.555\*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외 ‘성별’, ‘연령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세부 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5) 통일교육 정책 추진처

<표 IV - 28> 통일교육 정책의 추진처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24<br>(35.8%)  | 34<br>(46.3%) | 10<br>(14.9%) | 2<br>(3.0%)  | 67<br>(100%)  | 9.125<br>0.027 *                        |
|      | 여       | 97<br>(40.8%)  | 67<br>(28.2%) | 66<br>(27.7%) | 8<br>(3.3%)  | 238<br>(100%) |   |
| 연령별  | 20대     | 31<br>(41.3%)  | 23<br>(30.7%) | 19<br>(25.3%) | 2<br>(2.7%)  | 75<br>(100%)  | 23.025<br>0.006 *                       |
|      | 30대     | 26<br>(32.5%)  | 26<br>(32.5%) | 21<br>(26.3%) | 7<br>(8.8%)  | 80<br>(100%)  |   |
|      | 40대     | 54<br>(46.6%)  | 30<br>(25.9%) | 31<br>(26.5%) | 1<br>(0.9%)  | 116<br>(100%) |   |
|      | 50대이상   | 10<br>(29.4%)  | 19<br>(55.9%) | 5<br>(14.7%)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40<br>(38.1%)  | 28<br>(26.4%) | 37<br>(34.9%) | 0<br>(0%)    | 105<br>(100%) | 18.413<br>0.005 *                       |
|      | 3,4     | 52<br>(45.6%)  | 35<br>(30.7%) | 20<br>(17.5%) | 7<br>(6.1%)  | 114<br>(100%) |   |
|      | 5,6     | 29<br>(33.7%)  | 35<br>(40.7%) | 19<br>(22.1%) | 3<br>(3.5%)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39<br>(42.4%)  | 27<br>(29.3%) | 22<br>(23.9%) | 4<br>(4.3%)  | 92<br>(100%)  | 5.075<br>0.534                          |
|      | 19 - 36 | 50<br>(40.7%)  | 44<br>(35.8%) | 25<br>(20.3%) | 4<br>(3.3%)  | 123<br>(100%) |   |
|      | 37이상    | 32<br>(35.6%)  | 27<br>(30.0%) | 29<br>(32.2%) | 2<br>(2.2%)  | 90<br>(100%)  |   |
| 소재지  | 시       | 84<br>(43.1%)  | 57<br>(29.2%) | 49<br>(25.1%) | 5<br>(2.6%)  | 195<br>(100%) | 3.847<br>0.278                          |
|      | 읍면      | 37<br>(33.6%)  | 41<br>(37.3%) | 27<br>(24.5%) | 5<br>(4.5%)  | 110<br>(100%) |   |
| 합 계  |         | 121<br>(39.7%) | 98<br>(32.1%) | 76<br>(24.9%) | 10<br>(3.3%) | 305<br>(100%) | ※무응답 1                                  |

p<.05\*

‘통일교육정책은 어디에서 책정되고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 - 28>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교육인적자원부’가 121명(39.7%), ‘통일부’가 98명(32.1%), ‘통일연구원’이 (24.9%), ‘기타’가 10명(3.3%)으로 조사되어, 통일교육정책 책정과 추진처는 교육인적자원부

- 통일부 - 통일연구원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x<sup>2</sup>-Value=23.025\* p<.05)와 ‘담임 학년’(x<sup>2</sup>-Value=18.413\*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나머지 ‘성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세부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6)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표 IV - 29>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비 고 |
|------|---------|---------------|---------------|---------------|----------------|-----|
|      |         | 교사의 인식<br>제 고 | 통일교육<br>시수 확보 | 교사의 연수<br>강 화 | 자료 확보 및<br>제 공 |     |
| 성 별  | 남       | 2.85          | 2.30          | 2.10          | 2.76           |     |
|      | 여       | 2.51          | 2.48          | 1.93          | 3.07           |     |
|      | t (p)   | 2.05(0.043*)  | -1.34(0.182)  | 1.25(0.213)   | -1.96(0.053)   |     |
| 연령별  | 20대     | 2.55          | 2.12          | 2.00          | 2.97           |     |
|      | 30대     | 2.59          | 2.35          | 1.79          | 3.25           |     |
|      | 40대     | 2.56          | 2.50          | 2.08          | 2.85           |     |
|      | 50대이상   | 2.76          | 2.32          | 2.00          | 2.97           |     |
|      | F (p)   | 0.31(0.816)   | 0.62(0.603)   | 1.52(0.210)   | 2.1(0.101)     |     |
| 담임학년 | 1,2     | 2.60          | 2.42          | 1.90          | 3.08           |     |
|      | 3,4     | 2.57          | 2.50          | 2.00          | 2.96           |     |
|      | 5,6     | 2.58          | 2.38          | 2.07          | 2.95           |     |
|      | F (p)   | 0.02(0.978)   | 0.36(0.695)   | 0.79(0.455)   | 0.48(0.619)    |     |
| 규모별  | 6 - 18  | 2.73          | 2.36          | 1.99          | 2.90           |     |
|      | 19 - 36 | 2.55          | 2.39          | 2.03          | 3.20           |     |
|      | 37이상    | 2.48          | 2.15          | 1.88          | 3.03           |     |
|      | F (p)   | 1.06(0.347)   | 1.58(0.207)   | 0.69(0.499)   | 0.94(0.333)    |     |
| 소재지  | 시       | 2.61          | 2.52          | 1.87          | 3.02           |     |
|      | 읍면      | 2.54          | 2.31          | 2.16          | 2.97           |     |
|      | t (p)   | 0.54(0.590)   | 1.76(0.081)   | -2.63(0.09)   | 0.31(0.753)    |     |
| 합    | 계       | 2.58          | 2.44          | 1.97          | 3.00           |     |

p<.05\*

‘앞으로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한 결과는 <표 IV - 29>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통일교육 자료 확보 및 제공(3.00)’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교사의 인식 제고(2.58)’가 다음으로 많이 선택하였으며, ‘통일교육 시수 확보’가 2.44, ‘교사의 연수 강화’ 1.97 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하였을 때 남자의 경우 ‘교사의 인식 제고(2.85,  $t=2.53^* p<0.043$ )’를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다음으로 ‘통일교육 자료 확보 및 제공(2.85)’, ‘통일교육 시수 확보’, ‘교사의 연수 강화’ 순이었으며, 남·여간에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그 외 특성인 ‘연령별’, ‘담임학년’, ‘학교 규모’, ‘소재지’에 관계없이 ‘통일교육 자료 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 제고’, ‘통일교육 시수 확보’, ‘교사의 연수 강화’ 순이었으며 세부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6) 민족 통일에 대한 인식

우리 민족의 영원인 통일에 대하여 교사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①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②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③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④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⑤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 ⑥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⑦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⑧ 그 밖의 통일 및 통일에 관련된 의견 등을 조사하였다.

### (1)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표 IV - 30> 교사가 생각하는 통일 형태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9<br>(28.4%)  | 12<br>(17.9%) | 35<br>(52.2%)  | 1<br>(1.5%) | 67<br>(100%)  | 5.239<br>0.155                          |
|      | 여       | 96<br>(40.2%)  | 23<br>(9.6%)  | 116<br>(48.5%) | 4<br>(1.7%)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21<br>(28.0%)  | 9<br>(12.0%)  | 45<br>(60.0%)  | 0<br>(0%)   | 75<br>(100%)  | 24.591<br>0.003 *                       |
|      | 30대     | 28<br>(35.0%)  | 6<br>(7.5%)   | 41<br>(51.3%)  | 5<br>(6.3%) | 80<br>(100%)  |   |
|      | 40대     | 53<br>(45.3%)  | 13<br>(11.1%) | 51<br>(43.6%)  | 0<br>(0%)   | 117<br>(100%) |   |
|      | 50대이상   | 13<br>(38.2%)  | 7<br>(20.6%)  | 14<br>(41.2%)  | 0<br>(0%)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36<br>(34.0%)  | 15<br>(14.2%) | 54<br>(50.9%)  | 1<br>(0.9%) | 106<br>(100%) | 2.988<br>0.810                          |
|      | 3,4     | 48<br>(42.1%)  | 11<br>(9.6%)  | 53<br>(46.5%)  | 2<br>(1.8%) | 114<br>(100%) |   |
|      | 5,6     | 31<br>(36.0%)  | 9<br>(10.5%)  | 44<br>(51.2%)  | 2<br>(2.3%)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17<br>(18.5%)  | 14<br>(15.2%) | 54<br>(58.7%)  | 7<br>(7.6%) | 92<br>(100%)  | 11.415<br>0.076                         |
|      | 19 - 36 | 41<br>(33.3%)  | 11<br>(8.9%)  | 68<br>(55.3%)  | 3<br>(2.4%) | 123<br>(100%) |   |
|      | 37이상    | 43<br>(47.3%)  | 8<br>(8.8%)   | 38<br>(41.8%)  | 2<br>(2.2%) | 91<br>(100%)  |   |
| 소재지  | 시       | 81<br>(41.3%)  | 22<br>(11.2%) | 89<br>(45.4%)  | 4<br>(2.0%) | 196<br>(100%) | 4.322<br>0.228                          |
|      | 읍면      | 34<br>(30.9%)  | 13<br>(11.8%) | 62<br>(56.4%)  | 1<br>(0.9%) | 110<br>(%)    |   |
| 합 계  |         | 115<br>(37.6%) | 35<br>(11.4%) | 151<br>(49.3%) | 5<br>(1.6%) | 306<br>(100%) |   |

p<0.05\*

‘우리나라가 통일된다고 할 때 선생님이 생각하는 통일이란 어떤 형태의 통일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의 결과는 <표 IV - 30>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를 보면 ‘남북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가 151명(49.3%),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115명

(37.6%), ‘남북이 정치적·지리적으로 한 국가가 되는 상태’가 35명(11.4%), ‘기타’가 5명(1.6%)으로 조사되어, 교사들이 생각하는 통일 형태는 ‘남북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와 ‘남북이 현 상태에서 자유왕래가 이루어지는 상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2)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우리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 - 31>와 같이 나타났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가 60명(19.7%), ‘우리가 주는 만큼 얻어내야 한다.’가 53명(17.4%),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가 175명(57.4%),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가 17명(5.6%)으로 조사되었으며, 전체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4%가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를 선택하였다. 그리고 ‘가장 바람직한 정책으로 계속 지원해야 한다.’와 ‘우리가 주는 만큼 얻어내야 한다.’는 선택한 빈도수가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세부항목을 분석해 볼 때,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를 성별 남자에서 59.1%, 연령별 20대에서 65.3%, 담임학년 3,4학년에서 59.6%, 학교 규모별에서 19 - 36학급에서 59.3%,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시 지역이 58.5%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그리고 ‘보다 강경하게 대처해 나가야 한다.’를 성별 남자에서 3.0%, 연령별 20대에서 2.7%, 담임학년 5,6학년에서 3.5%, 학교 규모별 19 - 36학급에서 4.1%, 학교 소재지별 읍·면 지역에서 4.5%를 선택하여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

<표 IV - 31> 「햇볕정책」에 대한 교사들의 생각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6<br>(24.2%) | 9<br>(13.6%)  | 39<br>(59.1%)  | 2<br>(3.0%)  | 66<br>(100%)  | 2.593<br><br>0.458                      |
|      | 여       | 44<br>(18.4%) | 44<br>(18.4%) | 136<br>(56.9%) | 15<br>(6.3%)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18<br>(24.0%) | 6<br>(8.0%)   | 49<br>(65.3%)  | 2<br>(2.7%)  | 75<br>(100%)  | 13.871<br><br>0.126                     |
|      | 30대     | 13<br>(16.5%) | 12<br>(15.2%) | 49<br>(62.0%)  | 5<br>(6.3%)  | 79<br>(100%)  |   |
|      | 40대     | 24<br>(20.5%) | 29<br>(24.8%) | 57<br>(48.7%)  | 7<br>(6.0%)  | 117<br>(100%) |   |
|      | 50대이상   | 5<br>(14.7%)  | 6<br>(17.6%)  | 20<br>(58.8%)  | 3<br>(8.8%)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15<br>(14.2%) | 23<br>(21.7%) | 60<br>(56.6%)  | 8<br>(7.5%)  | 106<br>(100%) | 11.444<br><br>0.075                     |
|      | 3,4     | 29<br>(25.4%) | 11<br>(9.6%)  | 68<br>(59.6%)  | 6<br>(5.3%)  | 114<br>(100%) |   |
|      | 5,6     | 16<br>(18.8%) | 19<br>(22.4%) | 47<br>(55.3%)  | 3<br>(3.5%)  | 85<br>(100%)  |   |
| 규모별  | 6 - 18  | 17<br>(18.5%) | 14<br>(15.2%) | 54<br>(58.7%)  | 7<br>(7.6%)  | 92<br>(100%)  | 2.326<br><br>0.887                      |
|      | 19 - 36 | 24<br>(19.5%) | 21<br>(17.1%) | 73<br>(59.3%)  | 5<br>(4.1%)  | 123<br>(100%) |   |
|      | 37이상    | 19<br>(21.1%) | 18<br>(20.0%) | 48<br>(53.3%)  | 5<br>(5.6%)  | 90<br>(100%)  |   |
| 소재지  | 시       | 33<br>(16.9%) | 36<br>(18.5%) | 114<br>(58.5%) | 12<br>(6.2%) | 195<br>(100%) | 2.880<br><br>0.410                      |
|      | 읍면      | 27<br>(24.5%) | 17<br>(15.5%) | 61<br>(55.5%)  | 5<br>(4.5%)  | 110<br>(%)    |   |
| 합 계  |         | 60<br>(19.7%) | 53<br>(17.4%) | 175<br>(57.4%) | 17<br>(5.6%) | 305<br>(100%) | ※무응답 1                                  |

p<0.05\*

(3)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하여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표 IV - 32>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 ‘변화하고 있다.’가 20명(6.5%), ‘조금씩 변화하여 갈 것이다.’가 190명(62.1%), ‘변화하지 않고 있다.’가 83명(27.1%),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가 13명(3.2%)으로 조사되어, 68.6%의 응답자가 ‘변화하고 있다.’ 또는 ‘조금씩 변화하여 갈 것이다.’를 선택하여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31.3%의 교사가 ‘변

화하지 않고 있다.’ 또는 ‘앞으로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다.’를 선택하여 북한의 변화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IV - 32> 6·15 이후 북한의 태도 변화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6<br>(9.0%)   | 46<br>(68.7%)  | 12<br>(17.9%) | 3<br>(4.5%)  | 67<br>(100%)  | 0.406<br>2.255                          |
|      | 여       | 14<br>(5.9%)  | 144<br>(60.3%) | 71<br>(29.7%) | 10<br>(4.2%)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4<br>(5.3%)   | 50<br>(66.7%)  | 18<br>(24.0%) | 3<br>(4.0%)  | 75<br>(100%)  | 4.706<br>0.859                          |
|      | 30대     | 6<br>(7.5%)   | 45<br>(56.3%)  | 26<br>(32.5%) | 3<br>(3.8%)  | 80<br>(100%)  |   |
|      | 40대     | 6<br>(5.1%)   | 74<br>(63.2%)  | 32<br>(27.4%) | 5<br>(4.3%)  | 117<br>(100%) |   |
|      | 50대이상   | 4<br>(11.8%)  | 21<br>(61.8%)  | 7<br>(20.6%)  | 2<br>(5.9%)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6<br>(5.7%)   | 69<br>(65.1%)  | 27<br>(25.5%) | 4<br>(3.8%)  | 106<br>(100%) | 2.465<br>0.872                          |
|      | 3,4     | 9<br>(7.9%)   | 72<br>(63.2%)  | 28<br>(24.6%) | 5<br>(4.4%)  | 114<br>(100%) |   |
|      | 5,6     | 5<br>(5.8%)   | 49<br>(57.0%)  | 28<br>(32.6%) | 4<br>(4.7%)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5<br>(5.4%)   | 54<br>(58.7%)  | 29<br>(31.5%) | 4<br>(4.3%)  | 92<br>(100%)  | 10.544<br>0.103                         |
|      | 19 - 36 | 5<br>(4.1%)   | 87<br>(70.7%)  | 25<br>(20.3%) | 6<br>(4.9%)  | 123<br>(100%) |   |
|      | 37이상    | 10<br>(11.0%) | 49<br>(53.8%)  | 29<br>(31.9%) | 3<br>(3.3%)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5<br>(7.7%)  | 119<br>(60.7%) | 52<br>(26.5%) | 10<br>(5.1%) | 196<br>(100%) | 2.213<br>0.529                          |
|      | 읍면      | 5<br>(4.5%)   | 71<br>(64.5%)  | 31<br>(28.2%) | 3<br>(2.7%)  | 110<br>(100%) |   |
| 합    | 계       | 20<br>(6.5%)  | 190<br>(62.1%) | 83<br>(27.1%) | 13<br>(4.2%) | 306<br>(100%) |   |

p<0.05

(4)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표 IV - 33> 북한의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이유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   |
| 성 별  | 남       | 30<br>(55.6%)  | 16<br>(29.6%) | 8<br>(14.8%)  | 54<br>(100%)  | 0.499<br>0.778                          |
|      | 여       | 87<br>(55.8%)  | 51<br>(32.7%) | 18<br>(11.5%) | 156<br>(100%) |   |
| 연령별  | 20대     | 34<br>(63.0%)  | 15<br>(27.8%) | 5<br>(9.3%)   | 54<br>(100%)  | 11.814<br>0.066                         |
|      | 30대     | 22<br>(43.1%)  | 24<br>(47.1%) | 5<br>(6.3%)   | 51<br>(100%)  |   |
|      | 40대     | 50<br>(62.5%)  | 20<br>(25.0%) | 10<br>(12.5%) | 80<br>(100%)  |   |
|      | 50대이상   | 11<br>(44.0%)  | 8<br>(32.0%)  | 6<br>(24.0%)  | 25<br>(100%)  |   |
| 담임학년 | 1,2     | 42<br>(56.0%)  | 25<br>(23.6%) | 8<br>(7.5%)   | 75<br>(100%)  | 1.754<br>0.780                          |
|      | 3,4     | 44<br>(54.3%)  | 24<br>(29.6%) | 13<br>(16.0%) | 81<br>(100%)  |   |
|      | 5,6     | 31<br>(57.4%)  | 18<br>(33.3%) | 5<br>(9.3%)   | 54<br>(100%)  |   |
| 규모별  | 6 - 18  | 37<br>(62.7%)  | 17<br>(28.8%) | 5<br>(8.5%)   | 59<br>(100%)  | 2.523<br>0.640                          |
|      | 19 - 36 | 50<br>(54.3%)  | 31<br>(33.7%) | 11<br>(12.0%) | 92<br>(100%)  |   |
|      | 37이상    | 30<br>(50.8%)  | 19<br>(32.3%) | 10<br>(16.9%) | 59<br>(100%)  |   |
| 소재지  | 시       | 69<br>(51.5%)  | 48<br>(35.8%) | 17<br>(12.7%) | 134<br>(100%) | 2.992<br>0.224                          |
|      | 읍면      | 48<br>(63.2%)  | 19<br>(25.0%) | 9<br>(11.8%)  | 76<br>(100%)  |   |
| 합 계  |         | 117<br>(55.7%) | 67<br>(31.9%) | 26<br>(12.4%) | 210<br>(100%) |   |

p<.05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 <표 IV - 33>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가 117명(55.7%),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기 위하여’가 67명(31.9%),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가 26명(12.4%)으로 조사되어,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북한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를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

하여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국제 사회 고립을 면하기 위하여’, ‘우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순으로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5)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설문 결과의 결과는 <표 IV - 34>과 같이 나타났다.

<표 IV - 34> 북한의 변화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12<br>(80.0%) | 2<br>(13.3%) | 1<br>(6.7%) | 0<br>(0%) | 15<br>(100%) | 6.501<br>0.038 *                        |
|      | 여       | 74<br>(91.3%) | 7<br>(8.6%)  | (%)         | 0<br>(0%) | 81<br>(100%) |   |
| 연령별  | 20대     | 21<br>(100%)  | 0<br>(0%)    | 0<br>(0%)   | 0<br>(0%) | 21<br>(100%) | 4.854<br>0.562                          |
|      | 30대     | 26<br>(89.7%) | 3<br>(10.3%) | 0<br>(0%)   | 0<br>(0%) | 29<br>(100%) |   |
|      | 40대     | 31<br>(83.8%) | 5<br>(13.5%) | 1<br>(2.7%) | 0<br>(0%) | 37<br>(100%) |   |
|      | 50대이상   | 8<br>(88.9%)  | 1<br>(11.1%) | 0<br>(0%)   | 0<br>(0%) | 9<br>(100%)  |   |
| 담임학년 | 1,2     | 28<br>(90.3%) | 3<br>(9.7%)  | 0<br>(0%)   | 0<br>(0%) | 31<br>(100%) | 6.630<br>0.156                          |
|      | 3,4     | 27<br>(81.8%) | 5<br>(15.2%) | 1<br>(3.0%) | 0<br>(0%) | 33<br>(100%) |   |
|      | 5,6     | 31<br>(96.9%) | 1<br>(3.1%)  | 0<br>(0%)   | 0<br>(%)  | 32<br>(100%) |   |
| 규모별  | 6 - 18  | 29<br>(%)     | 4<br>(%)     | 0<br>(0%)   | 0<br>(0%) | 33<br>(100%) | 1.931<br>0.748                          |
|      | 19 - 36 | 28<br>(90.3%) | 3<br>(9.7%)  | 0<br>(0%)   | 0<br>(0%) | 31<br>(100%) |   |
|      | 37이상    | 29<br>(90.6%) | 2<br>(6.3%)  | 1<br>(3.1%) | (%)       | 32<br>(100%) |   |
| 소재지  | 시       | 56<br>(90.3%) | 5<br>(8.1%)  | 1<br>(1.6%) | 0<br>(0%) | 62<br>(100%) | 0.879<br>0.644                          |
|      | 읍면      | 30<br>(88.2%) | 4<br>(11.8%) | 0<br>(0%)   | 0<br>(0%) | 34<br>(100%) |   |
| 합 계  |         | 86<br>(89.6%) | 9<br>(9.4%)  | 1<br>(1.0%) | 0<br>(0%) | 96<br>(100%) |   |

p<0.05\*

응답 결과는 ‘체제 유지를 위하여’가 86명(89.6%), ‘남한에 흡수될까 봐’가 9명(9.4%), ‘동구권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가 1명(1%)이었으며, ‘현 상태가 만족스러워’를 선택한 응답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이것으로 보아 북한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이유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6)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표 IV - 35> 앞으로의 남북 관계 전망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   |
| 성 별  | 남       | 7<br>(10.4%)  | 21<br>(31.3%) | 35<br>(52.2%)  | 4<br>(6.0%)  | 67<br>(100%)  | 2.964<br>0.397                          |
|      | 여       | 20<br>(8.4%)  | 63<br>(26.4%) | 149<br>(62.3%) | 7<br>(2.9%)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6<br>(8.0%)   | 30<br>(40.0%) | 39<br>(52.0%)  | 0<br>(0%)    | 75<br>(100%)  | 15.257<br>0.084                         |
|      | 30대     | 7<br>(8.8%)   | 17<br>(21.3%) | 52<br>(65.0%)  | 4<br>(5.0%)  | 80<br>(100%)  |   |
|      | 40대     | 12<br>(10.3%) | 30<br>(25.6%) | 68<br>(58.1%)  | 7<br>(6.0%)  | 117<br>(100%) |   |
|      | 50대이상   | 2<br>(5.9%)   | 7<br>(20.6%)  | 25<br>(73.5%)  | 0<br>(%)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7<br>(6.6%)   | 32<br>(30.2%) | 66<br>(62.3%)  | 1<br>(0.9%)  | 106<br>(100%) | 9.394<br>0.152                          |
|      | 3,4     | 13<br>(11.4%) | 34<br>(29.8%) | 60<br>(52.6%)  | 7<br>(6.1%)  | 114<br>(100%) |   |
|      | 5,6     | 7<br>(8.1%)   | 18<br>(20.9%) | 58<br>(67.4%)  | 3<br>(3.5%)  | 86<br>(100%)  |   |
| 규모별  | 6 - 18  | 8<br>(8.7%)   | 22<br>(23.9%) | 60<br>(65.2%)  | 2<br>(2.2%)  | 92<br>(100%)  | 7.041<br>0.317                          |
|      | 19 - 36 | 7<br>(5.7%)   | 35<br>(28.5%) | 77<br>(62.6%)  | 4<br>(3.3%)  | 123<br>(100%) |   |
|      | 37이상    | 12<br>(13.2%) | 27<br>(29.7%) | 47<br>(51.6%)  | 5<br>(5.5%)  | 91<br>(100%)  |   |
| 소재지  | 시       | 16<br>(8.2%)  | 51<br>(26.0%) | 120<br>(61.2%) | 9<br>(4.6%)  | 196<br>(100%) | 2.292<br>0.514                          |
|      | 읍면      | 11<br>(10.0%) | 33<br>(30.0%) | 64<br>(58.2%)  | 2<br>(1.8%)  | 110<br>(100%) |   |
| 합    | 계       | 27<br>(8.8%)  | 84<br>(27.5%) | 184<br>(60.1%) | 11<br>(3.6%) | 306<br>(100%) |   |

p<0.05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35>과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변화하면 좋아질 것이다.’가 27명(8.8%),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면 개선될 것이다.’가 84명(27.5%),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가 184명(60.1%), ‘중국과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에 따라 변화할 것이다.’가 11명(3.6%)으로 조사되어, 60%가 넘는 응답자들이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을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획기적으로 좋아질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27.5%의 응답자가 우리 정부가 일관성 있게 지원하면 좋아질 것이라고 하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5개 항목 전체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표 IV - 36>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성 별  | 남     | 2<br>(3.0%) | 9<br>(13.4%)  | 12<br>(17.9%) | 22<br>(32.8%) | 22<br>(32.8%) | 67<br>(100%)  | 6.096<br>0.192                          |
|      | 여     | 4<br>(1.7%) | 54<br>(22.6%) | 26<br>(10.9%) | 62<br>(25.9%) | 93<br>(38.9%) | 239<br>(100%) |   |
| 연령별  | 20대   | 2<br>(2.7%) | 11<br>(14.7%) | 16<br>(21.3%) | 12<br>(16.0%) | 34<br>(45.3%) | 75<br>(100%)  | 26.004<br>0.010 *<br>11.986<br>0.151    |
|      | 30대   | 2<br>(2.5%) | 15<br>(18.8%) | 6<br>(7.5%)   | 28<br>(35.0%) | 29<br>(36.3%) | 80<br>(100%)  |   |
|      | 40대   | 1<br>(0.9%) | 30<br>(25.6%) | 9<br>(7.7%)   | 31<br>(26.5%) | 46<br>(39.3%) | 117<br>(100%) |   |
|      | 50대이상 | 1<br>(2.9%) | 7<br>(20.6%)  | 7<br>(20.6%)  | 13<br>(38.2%) | 6<br>(17.6%)  | 34<br>(100%)  |   |
| 담임학년 | 1,2   | 1<br>(0.9%) | 25<br>(23.6%) | 8<br>(7.5%)   | 34<br>(32.1%) | 38<br>(35.8%) | 106<br>(100%) | 11.986<br>0.151                         |
|      | 3,4   | 2<br>(1.8%) | 28<br>(24.6%) | 15<br>(13.2%) | 28<br>(24.6%) | 41<br>(36.0%) | 114<br>(100%) |   |
|      | 5,6   | 3<br>(3.5%) | 10<br>(11.6%) | 15<br>(17.4%) | 22<br>(25.6%) | 36<br>(41.9%) | 86<br>(100%)  |   |

| 특 성 | 세부 항목   | 설문 반응       |               |               |               |                | 합 계           | x <sup>2</sup><br>(sig x <sup>2</sup> ) |
|-----|---------|-------------|---------------|---------------|---------------|----------------|---------------|---|
|     |         | 1           | 2             | 3             | 4             | 5              |               |   |
| 규모별 | 6 - 18  | 1<br>(1.1%) | 15<br>(16.3%) | 14<br>(15.2%) | 19<br>(20.7%) | 43<br>(46.7%)  | 92<br>(100%)  | 10.399<br>0.238                         |
|     | 19 - 36 | 4<br>(3.3%) | 25<br>(20.3%) | 16<br>(13.0%) | 38<br>(30.9%) | 40<br>(32.5%)  | 123<br>(100%) |   |
|     | 37이상    | 1<br>(1.1%) | 23<br>(25.3%) | 8<br>(8.8%)   | 27<br>(29.2%) | 32<br>(35.2%)  | 91<br>(100%)  |   |
| 소재지 | 시       | 4<br>(2.0%) | 44<br>(22.4%) | 21<br>(10.7%) | 51<br>(26.0%) | 76<br>(38.8%)  | 196<br>(100%) | 2.822<br>0.587                          |
|     | 읍면      | 2<br>(1.8%) | 19<br>(17.3%) | 17<br>(15.5%) | 33<br>(30.0%) | 39<br>(35.5%)  | 110<br>(100%) |   |
| 합 계 |         | 6<br>(2.9%) | 63<br>(20.6%) | 38<br>(12.4%) | 84<br>(27.5%) | 115<br>(37.6%) | 306<br>(100%) |   |

p<0.05\*

‘우리 나라의 통일은 언제쯤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IV - 36>와 같이 나타났다. 응답 결과는 ‘5년 이내’가 6명(2.9%), ‘10년 이내’가 63명(20.6%), ‘15년 이내’가 38명(12.4%), ‘20년 이내’가 84명(27.5%), ‘20년 이상’이 115명(37.6%)으로 조사되어 통일이 20년 정도 걸릴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가 전체의 65.1%이며, 10년 이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23.5%였다.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중 ‘연령별’(x<sup>2</sup>-Value=26.004\*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나, 나머지 ‘성별’, ‘담임 학년’, ‘학교 규모별’, ‘학교 소재지별’에서는 세부 항목에서 각각 차이를 보였으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 (8) 그 밖의 통일 및 통일교육과 관련된 의견

‘지금까지 한 질문 외에 통일 및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서술형 질문에 대하여 모두 6명이 응답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통일교육은 교사의 인식 중요하다(늘 들려주고 토론하는 교육).’, ‘초등학교에 맞는 시청각 자료 제공 필요’, ‘통일교육 내용을 교과 안으로 들어와 지도함이 바람직하다’, ‘통일교육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 ‘시수 확보 및 자료 제공’, ‘통일교육이 도덕교육에 흡수하였으면 한다.’ 등으로 조사되었다.

## V. 통일교육 지도의 활성화 방안

### 1. 바람직한 학교통일교육의 방향

####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특성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설문에서 ‘통일교육의 방향’과 ‘통일교육의 한계’를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표 IV - 26>와 같이 응답하여 통일교육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목표와 내용에 대하여 분명하게 제시해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동안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하여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과 반공이념을 강조하면서 흑백논리, 이분법적 사고를 형성시켜 은연중에 적대감을 심어주는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변화하는 통일환경시대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새롭게 전환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수 있다.

##### (1)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필요성과 성격 19)

최근 북한 현실이나 주변 국제환경은 통일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통일을 준비하는 과제 가운데 가장 필수적이고 기초적인 요소는 아동들로 하여금 통일에 대비하는 자세와 건전한 통일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다. 여기에 통일교육의 주된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런 의미에서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통일교육지원법의 제정, 시행은 시기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초등학교 통일교육은 학생을 대상으로 통일과 북한 문제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고 통일에 대한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안목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통일 이후의 사회에서 올바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통일 지향적인 의식과 태

---

19) 한국통일연구회(2000), 전게서, p.6.

도를 미리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통일교육과정 추세는 종래 반공 색채가 강했던 통일안보 교육에서 그 방향을 전환하여 민족의 자주적 역량고취와 민족의 동질성 회복 및 통일대비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즉, 북한은 한민족으로서 공동 번영체이고, 신뢰 회복을 통하여 적절한 시기에 평화적, 민주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할 대상으로 교육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실제적 성격은 누적되어 온 남북간의 불신을 해소하고 민족화합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통일교육의 내용과 소재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전통문화, 가정생활, 생활습관, 의식주 등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구성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의 동질성을 되찾고, 민족 공동체적 삶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생활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이해하는 바탕 위에서 점진적으로 접근하여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을 어린이들에게 인식시켜 주어야 한다.

## (2)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목표

21세기 통일시대를 이끌어 갈 학생들에게 남북한 이해활동을 중심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키는데 있으며 그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sup>20)</sup>

- ① 북한을 알 수 있는 기초적 지식을 알게 한다.
- ② 민족동질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일 실천의지를 갖는다.
- ③ 분단상황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현실에 대하여 초보적인 관심을 갖는다.
- ④ 남북한 생활문화를 탐구하여 민족공동체 의식을 함양시킨다.
- ⑤ 평화통일의 의지를 갖고 통일국가의 미래 모습을 그려본다.

오늘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널리 퍼져 있는 민족 통일에 대한 무관심과 회의적이고 냉소적인 풍토를 타파하기 위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을 확인하기 위해서, 통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견수렴 및 교육의 확고한 방향 제시를 위해서 통일교육에 대한

---

20) 상계서, p.7.

명료한 목표의 제시가 필요하다.

(3) 통일교육의 일반적인 목표

통일교육은 장기간의 종합적인 교육 계획 하에 우선 통일에 대한 기존 지식과 이해력을 원리와 이론적인 수준에서 배양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체제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그러한 바탕 위에서 남북한의 이질성 극복과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촉진하는 통일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한이 단계적인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제기될 갈등과 마찰을 해소하는 체제 융합까지도 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 통일 교육의 목표를 각 교육 단계별로 연계, 체계화하여 도식으로 표시하면 <표 V-1> 다음과 같다.<sup>21)</sup>

<표 V-1> 통일교육의 목표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주시민 의식 민주적 태도와 심성의 함양</li> <li>· 통일의 당위성 인식, 통일을 위한 의지고취</li> <li>·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확신<br/>(공산주의 체제와의 비교, 남북한 사회의 비교)</li> <li>· 통일의 조건과 장애요소, 통일의 절차와 방안에 대한 이해</li> <li>· 통일후의 국가 건설 과정에 제기될 문제, 통일 후 국가 양태에 대한 신념</li> </ul> | → 유아·초등학교  |
|  | → 중학교      |
|  | → 고등학교·대학교 |

이상과 같은 토대 위에서 학교 통일교육의 일반목표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다.

**학교통일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현실, 통일의 과정, 통일상황에 관하여 올바른 지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을 습득하도록 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발전적인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데 기여하도록 지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학교통일교육의 목표에는 두 가지 차원의 지도 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첫째, 내용 차원에서는 크게 보아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의 비교’, ‘통일과정의 이해’, ‘통일상황 전망’ 과 ‘통일 사회에의 적응’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통일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성향의 차원에서는 지식, 가치 판단 능력 등의 인지적 요소, 그리고 ‘통일이지’, ‘통일준비’, ‘ 통일이후 대비’와 같은 정의적인 태도 및 통일을

21) 상계서 ,p.13.

실현시키려는 실천동기 등이 포함되어 있다.

#### (4) 통일교육 내용체계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반공위주의 교육에서처럼 북한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방 또는 비하하거나 관념적인 통일을 강조하는 교육의 틀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의 현실을 이해하고 객관적으로 통일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과 가치관을 길러주며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하는 내용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최근 관계 전문가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통일교육 내용에 관한 논의들을 살펴보면 ‘통일전후’라는 시점에 따른 내용의 구성이 제시되고 있다. 곧 ‘통일 전: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 ‘통일 후: 통일 이후의 삶에 대비하는 교육’이라는 구상이다. 관계전문가들은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교육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이를 위해 혈연 공동체, 역사 공동체, 언어 공동체로서의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부각시켜 지도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교육에서는 남북한 주민들이 정치, 경제, 사회 공동체로서의 통일 사회에 적응하고 민족의 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통일교육 내용체계와 새로운 내용구성에 제안을 바탕으로 새로운 학교 통일교육의 내용 영역 및 지도요소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22)</sup>

---

22) 상계서, pp. 14~15.

<표 V-2> 새로운 통일교육 내용 영역 및 지도 요소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 북한의 현실 인식 및 남북한 비교<ul style="list-style-type: none"><li>1-1 분단의 배경과 과정</li><li>1-2 북한의 현실과 남북한 비교<ul style="list-style-type: none"><li>1-2-1 북한사회의 특징과 현실: 자연, 정치, 경제, 사회, 문화</li><li>1-2-2 북한주민의 생활상: 가정, 직장, 경제생활</li><li>1-2-3 남북한 주민 생활의 비교</li></ul></li><li>1-3 북한 청소년과 남북한 비교<ul style="list-style-type: none"><li>1-3-1 북한 청소년(어린이)의 생활: 가정, 학교, 단체 생활</li><li>1-3-2 남북한 청소년(어린이) 생활 비교</li></ul></li><li>1-4 민족의 동질성 인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1-4-1 민족의 역사와 전통</li><li>1-4-2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와 동질성</li></ul></li></ul></li><li>2. 통일을 위한 과정<ul style="list-style-type: none"><li>2-1 통일의 필요성 인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2-1-1 민족 분단의 문제점 인식</li><li>2-1-2 통일의 필요성 인식</li></ul></li><li>2-2 통일을 위한 노력<ul style="list-style-type: none"><li>2-2-1 남북한의 통일 노력과 문제점</li><li>2-2-2 남북교류의 과정과 전망</li></ul></li><li>2-3 통일의 여건 인식</li><li>2-4 국가 안보 상황의 인식<ul style="list-style-type: none"><li>2-4-1 남북관계와 안보 상황</li><li>2-4-2 한반도 주변 상황과 평화 정착의 필요성 인식</li></ul></li></ul></li><li>3. 통일 사회의 적응<ul style="list-style-type: none"><li>3-1 통일 후의 사회 상황 전망<ul style="list-style-type: none"><li>3-1-1 통일 과정의 사회 혼란과 강등 양상</li><li>3-1-2 남북한 사회의 상호 이해와 협력 추구필요성</li></ul></li><li>3-2 남북한의 사회 통합과 적응<ul style="list-style-type: none"><li>3-2-1 정치, 경제, 사회 통합과 적응</li><li>3-2-2 사회적 다양성의 존중과 공존</li></ul></li><li>3-3 통일국가의 미래상<ul style="list-style-type: none"><li>3-3-1 통일 국가의 모습과 조건</li><li>3-3-2 통일 국가의 미래상</li></ul></li><li>3-4 통일 사회의 준비<ul style="list-style-type: none"><li>3-4-1 사회적 갈등 해소와 통합의 과제</li><li>3-4-2 남북주민 상호간의 인식 차이 극복</li></ul></li></ul></li></ul> |
|--|

또한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헌법 제 4조 및 통일교육지원법 제 2조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 공동체 의식 및 확고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하여 평화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하고, 나아가 통일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통일의 당위성 인식, 민족 동질성 회복, 북한의 실상에 대하여 올바른 이해, 굳건한 안보 태세의 확립, 남북 화해·협력·평화 의지의 고양, 통일 국가에 대한 전망과 대비 등을 중심으로 통일 교육 내용 체계를 구성하였다.

다음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학교급별 통일교육 내용 요소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표 V-3>과 같으며 교과목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을 발췌한 것이 <표 V-4>와 같다.<sup>23)</sup>

<표 V-3>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 교육 내용 요소

| 학교급  | 초 등 학 교  |
|------|--|
| 내용요소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의 당위성 인식</li> <li>· 북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li> <li>· 민족의 동질성 회복</li> <li>· 남북 평화와 화해·협력의 중요성</li> <li>· 통일을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li> </ul>  |
| 내용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기·국가·국화 사랑</li> <li>· 분단 현실과 통일의 당위성</li> <li>· 민족문화 애호 및 남북한 문화 교류</li> <li>·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li> <li>· 국가 발전에의 협력</li> <li>·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li> <li>· 통일국가의 미래상</li> </ul> |
| 강조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일에 관심 가지기</li> <li>· 북한 동포 이해하기</li> <li>· 통일외지 고취하기</li> </ul>  |

23) 한국통일교육연구회(2001). pp. 31~36.

<표 V-4> 제7차 교육과정의 교과목별 통일교육 관련 내용

| 학교급  | 교과목   | 교육과정 내용   |
|------|-------|---|
| 초등학교 | 바른 생활 | <b>【2학년】</b><br>(5) 나라 사랑하기<br>(다) 통일에 대한 관심 가지기  |
|      |       | <b>【3학년】</b><br>(4) 국가·민족 생활<br>(다) 분단현실과 통일 필요성 인식   |
|      | 도덕    | <b>【4학년】</b><br>(4) 국가·민족 생활<br>(나) 국가 안보를 위한 바른 자세   |
|      |       | <b>【5학년】</b><br>(4) 국가·민족 생활<br>(가) 평화 통일의 당위성과 방법  |
|      |       | <b>【6학년】</b><br>(4) 국가·민족 생활<br>(가) 통일국가의 미래상과 민족통일의 의지   |
|      |       | <b>【6학년】</b><br>(2) 새로운 사회·문화로 가는 길<br>(나) 자주와 독립을 위해 싸운 조상들<br>· 6·25 전쟁에 관한 사진 자료와 이야기를 통해 이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알아보고 민족통일의 당위성에 대하여 토의한다.<br>(4) 함께 살아가는 세계<br>(다) 통일과 민족의 앞날<br>· 우리나라의 분단 원인과 그 후의 남북대결과정을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 알아본다.<br>· 남북회담이나 이산가족 찾기 등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에 대하여 이해한다.<br>·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생각해 보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하여 힘써야 할 점에 대해 토의해 본다. |
| 사회   |       |   |

## 2) 바람직한 통일교육의 개선 방안

바람직한 학교 통일교육은 그 동안 실시해 오면서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해결해 가는 것이 최우선일 것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통일의 당위성을 인식하고 통일문제가 먼 나라 이웃문제가 아니고 우리민족,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만 하는 당면한 문제로 인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 학교의 현실과 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우리 사회에서 통일 및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한 우리사회의 청소년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통일교육을 지도할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생활 주변의 친근한 소재로부터 접근하여 통일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1)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 ① 교육과정에서의 개선

7차 교육과정의 총론상에 반영되고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보면 추구하는 인간상은 「우리 나라의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인 생활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 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교육과정 구성방침의 내용도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본능력을 길러 길러줄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라고 하여 통일관련 내용이 직접적인 언급이 없다. 다만 그 세부적인 내용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지침」에서 범교과 교육의 하나로 통일교육이 제시되어 있다.

교육과정상에서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sup>24)</sup>

첫째, 교과 통합적으로 통일교육을 실시 할 수 있도록 통일교육의 위상이 더욱

---

24) 상계서, p.73.

보강되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전반적으로 민족적 포용력을 가름하는 기본교육(basic education)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수적으로 다루어지는 통일교육은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목표는 전반적인 교과활동, 특별활동, 재량활동, 학교행사, 잠재적 교육과정 등의 모든 학교생활의 모든 측면에서 그 목표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통일실현이라는 교육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즉 미래지향적이면서도 환상적이지 않고 현실감 있는 통일교육의 지향점이 교육과정 목표로서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과정에서 각 교과목의 통일관련 내용은 객관적이며 사실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정확하게 기술되어야 한다. 최근의 신뢰성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제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참신한 교육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교과서에 등장하는 용어를 민족 통합적인 관점에서 정리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통일교육에 대한 <표V-5>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청된다.<sup>25)</sup>

<표V-5> 통일교육의 개선방향(신구 패러다임 비교)

|      | 구패러다임      | 신패러다임        |
|------|------------|--------------|
| 교육목표 | 정치제도적 통일지향 | 사회문화적 동질화 지향 |
| 주체   | 정부중심       | 정부 민간        |
| 방법   | 문화보편적 접근   | 문화보편적+특수적 접근 |
| 내용   | 이념교육       | 생활교육         |

## ② 교육 내용에서의 개선

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일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을 구성하는 통일교육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기존의 정치 이념중심의 도덕교육에서 벗어나 범교과 학습으로 확대하여 사회·문화적 중심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체계화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5) 추병완(1997), "통일대비 학교 통일교육의 방법모형 개발", 통일원, p.26.; 최현호(2001), 「학교통일교육과 북한사회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p.188에서 재인용.

내용구성의 기본 시각은 북한 실상 및 통일문제에 관한 객관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통일에 대한 대응 능력과 가치관을 길러주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

우선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비방, 비하의 방식을 탈피하고 북한 실상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며 북한의 단점과 취약점을 이해·보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기술해야 한다. 통일문제에 있어서도 통일의지와 자세를 심정적으로 또는 관념적으로 강조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하여 이해하고 정확한 현실인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관련 영역과 교과를 확대하여 모든 교과에서 북한 및 통일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한다. 즉. 도덕·윤리과에서는 통일과 관련되는 가치관·태도를 중심으로 다루는 한편, 국어과는 북한의 언어와 남북한 차이를, 사회관련 교과는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지리, 역사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방식으로 현재보다 북한관련 내용을 확대한다. 또한 특별활동과 단체활동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내용을 구성하고 체계화해야 할 것이다. 26)

### ③ 시수확보를 위한 개선

통일교육은 도덕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도덕과의 맨 끝 부분에 구성되어 학기말에 지도하게 되었다. 이 시기는 교사들이 성적정리로 가장 바쁜 시기이다. 교사들이 통일교육을 위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지도방법을 연구해서 가르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교사들이 알고 있는 상식에서 대충 수박 겉 핥기 식으로 다루어져 통일교육이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6차 교육과정부터는 도덕과 시수가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축소됨에 따라 통일교육 지도시간도 자연스럽게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는 재량활동 시간이 있어 이 시간을 적극 활용하여 통일교육을 실시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통일교육을 위한 시수 확보는 쉽지가 않다. 재량활동 시수는 주당 2시간, 연간 68시간이지만 34시간은 정보교육을 위한 시수로 정해져있으며 나머지 34시간은 인성교육, 성교육, 에너지 절약 교육, 환경보전 교육, 경제 교육, 탐구학습, 창의성

---

26) 한만길(2001), 전계서, p.135.

교육 등 실시해야 할 교육 내용이 너무 많아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교사가 아니면 통일교육은 그냥 지나칠 수도 있다. IV장의 설문 <표 IV-5>, <표 IV-6>에서 조사된 것처럼 대부분의 교사들은 1년 10시간 이내에서 통일교육을 지도하고 있으며 <표 IV-7>에서처럼 대부분 도덕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한다고 하며 29%만이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지도한다고 하였다. 실제로 통일교육을 위한 재량활동 시수는 불투명하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2000학년도부터 교사용 통일교재가 새롭게 구성되어 제공되었지만 일선현장에서 지도할 시간이 없어 잘 다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통일교육의 현실이다. 설문 <표 IV-8>, <표 IV-9>, <표 IV-10>에서처럼 도덕 시간을 이용해서 가끔 활용한다는 교사가 대부분이며 활용해보지 못한 교사들 대부분은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교육목표와 교육내용이 있더라도 지도해야 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실질적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앞의 설문조사 분석에서 보듯이 일선 학교에서는 꼭 짜인 학교일과 운영에서 통일교육에 대한 제도적 시수 확보 없이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도 사실상 애매하다. 담임교사의 재량에 따라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교육 시수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통일교육 내용을 범교과 속으로 과급되어 지도하는 방법이다. 현재 도덕 교과서 말미에서만 지도하게 될 내용들을 더 확대하여 국어, 사회, 도덕, 역사 등 각 교과에 알맞게 고루 구성되어 지도한다면 통일교육을 위한 별도의 시수를 확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둘째, 현재와 같이 통일교육을 도덕과에서 지도하게 된다면 도덕과 주당 시수를 1시간에서 2시간으로 확대하여 지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전체 주당 시간을 늘리지 않고 도덕과 시수를 확보하는 방안은 특별활동 시수를 조절하는 것이다. 초등학교에서의 특별활동 시수는 저학년은 주당 1시간(연 34시간), 고학년은 주당 2시간(연 68시간)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특별활동 시수를 주당 1시간으로 줄여 도덕과 시수를 늘리게 함으로써 가능하며 또한 특별활동 전체시간 중에서 몇 시간 이상을 통일교육 시수로 확보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도 하다. 7차 교육과정에서 강조하는 특별활동의 5개 영역 적응활동, 봉사활동, 계발활동, 협의활

동은 사실상 수업 시작전인 아침활동과 방과후 활동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셋째, 재량활동에서 통일교육을 위한 시수를 확보하려면 정보화교육을 연 34시간에서 17시간으로 통일교육을 17시간으로 나누어 지도하는 방안도 고려한다면 재량활동을 통한 통일교육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다.

#### ④ 교원 연수의 개선

학교에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확고한 의지와 가치관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교사들은 반공이념 교육을 받은 교사들이 대부분이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데는 교사들 자신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정치이념과 깊게 관련되어 왔기 때문에 통일교육이 통일과 안보라는 복잡한 이중성으로 인하여 교사 자신이 가치관의 혼란과 편향된 시각 등으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꺼려하거나 기피할 수도 있다.

설문 <표 IV - 15>에서 교사들의 통일교육에 대한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이 잘 이루어지려면 먼저 교사들부터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 자신이 문제일 수도 있지만 연수를 통해서 교사들이 통일교육과 통일 및 북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현재 교원의 연수 종류는 직무연수, 자율연수, 사이버 연수 등 그 종류가 다양하다. 그러나 연수성적이 승진하는데 반영하기 때문에 교사들은 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연수를 택하거나 연수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통일교육 연수를 자율적으로 신청하는 교사가 많지 않다. 따라서 교원들의 연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연수비용을 지원해 주어서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교원 연수의 내용과 프로그램을 지적할 수 있다. 대부분 강의식으로 이루어지는 단기간의 연수는 교사 자신들도 흥미를 잃을 것이다. 그리고 강의를 하는 사람들의 식견에 따라 많이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러므로 교원연수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보다 현실적이며 체계적인 교원연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⑤ 프로그램 · 자료개발 및 제공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일교육 프로그램은 설문 <표 IV-20>, <표 IV-21>와 같이 6·25를 전후하여 실시하는 통일안보 관련 행사 중심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은 통일웅변대회 및 이야기하기, 통일 표어 짓기, 통일포스터 그리기 대회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직도 학교 통일교육 행사 프로그램은 학교 환경에 알맞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통일교육에 대해 명확히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sup>27)</sup>

자료의 활용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통일교육은 안보 위주의 교육이어서 교사와 학생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자료 구입이나 열람을 제한하였다. 그 결과 교사들은 정부에서 주어지는 통일교육 자료에 대해 그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었고 통일교육 그 자체에 대해 무관심과 그릇된 편견까지 갖게 된 경우가 많았다. 즉, 교사 자신이 충분한 자료에 접하고 판단하여 스스로 체득한 가치관이나 신념에 따라 아동을 가르치지 못하고 타율적으로 주어지는 것에 따라야 하다 보니 교육 내용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통일문제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간접적인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sup>28)</sup> 통일교육은 정치학 위주의 연구물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이런 경향은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으나 이런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다 보니 통일교육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흥미와 관심을 끌기에 매우 부족하다.

한편, 통일문제나 통일정책과 관련된 일반 자료들은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그러나 학교 교육현장,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기에 적합한 통일교육 프로그램을 찾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자료는 많되, 막상 사용하려고 하면 사용할 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많은 교사들의 불만이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이는 통일교육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학년별 수준에 맞춰 내용과 방법을 잘 통합시킨 자료들의 거의 없다는 불만을 의미하는 것이다.<sup>29)</sup>

---

27) 상계서, p.73.

28) 한만길 외(2000), 전계서,p.73.

29) 상계서,pp.83~84.

또한 통일교육에 관한 교수학습자료가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이 입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설문 <표 IV-16>와 같이 신문이나 잡지, 방송매체에서 방송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통일교육을 지도하는 정도이다. 따라서 통일교육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흥미와 관심, 발달수준, 인지 양식, 다양한 지능 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즉,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학습자의 발달단계와 준비도 및 개인차를 고려한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sup>30)</sup>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한 동기를 유발시키고 흥미를 가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풍부한 자료가 많아야 할 것이다. 북한관련 자료는 일선교사들이 구하기도 힘들거니와 제한적이어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란 역부족이다. 따라서 통일관련 자료 열람을 좀 더 쉽게 하여 교사와 학생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북한 주민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비디오 테이프이나 CD자료, 그림, 사진, 관련 사이트 등 창의적인 프로그램과 자료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일선학교에 제공해 주거나 이러한 자료를 개발하는데 교사들을 참여시키는 일도 바람직하다. 설문 <표 IV-29>에서 앞으로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통일교육 자료 확보 및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 ⑥ 「통일」 교재 내용과 보급에 대한 개선

통일교육 지도에서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춰 지도해야 할 지도자료가 마땅치 않음을 앞에서 지적했지만 「통일」 교재는 비교적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북한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자료다. 설문 <표 IV - 13>에서 과거 통일교재와 비교하였을 때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좋은 교재이며 또한 교사들이 손쉽게 지도할 수 있는 교재이다. 그런데 이것을 설문 <표 IV - 11>에서처럼 전 어린이들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일교육에 더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표 IV - 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통일」 교재를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즉 이산가족,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의 생활, 민족의 동질성 등을 더 보완하여 지도할 필요성이 있다.

30) 최현호(2001), 전게서, p.140.

## (2) 지도 방법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설문 <표 IV - 18>에서 대부분 교사들이 통일교육의 수업모형으로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으로 응답하였다. 지금까지의 학교 통일교육의 지도방법은 교사 중심의 강의식으로 이루어져 왔고, 피교육자의 관심이나 발달 수준에 대해 고려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어른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인 차원의 홍보 내용과 방법을 그대로 학생들에게 적용한 면이 많았다. 또한 통일교육의 다양한 방법 및 기법에 대한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즉, 주제나 목표에 적합한 다양한 방법의 접근이 이루어지지 못했다.<sup>31)</sup>

통일교육은 도덕과 수업의 범주에 있기 때문에 도덕 수업의 일반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다른 교과 수업도 비슷하지만, 도덕 수업도 교과서에 제시된 지식을 암기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육의 수업방법도 암기식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통일교육 방법의 문제는 진부한 교육내용을 주입식 방법으로 전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통일교육은 이데올로기 문제와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교과서의 논리를 주입시키게 된다. 더욱이 학생들이 도덕과 수업에 거의 흥미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시험이나 입시 준비를 위한 방편이외에 다른 교육적 의의를 부여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sup>32)</sup> 국가의 정책적인 통일론과 사회 각계에서 전개되고 있는 다양한 통일 논의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선교사들은 통일교육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며 더욱이 초등학교 교사들은 교과목에 대한 전공 분야가 아니어서 통일교육에 대한 지도상의 문제점이 많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년별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통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다양한 지도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저학년에서는 놀이와 조작 활동을 중심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탐구하고 분석하며 실제로 체험을 통한 교육방법을 제시해본다.

31) 한만길 외(2000), 전계서, p.83.

32) 김성봉 외(1990), 「중학교 도덕교육 실태분석」, 한국교육개발원.;한만길(2001), 전계서, pp. 127~128에서 재인용.

## - 저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 ① 역할놀이 수업

교실에서 교사가 역할놀이 수업모형을 적용할 때 필요한 여섯 가지 단계가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지만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킬 필요는 없다. 어떤 단계는 학생들과 반복하거나 복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각 단계에 필요한 시간의 양은 학생들의 능력이나 흥미에 따라 달라진다. 역할놀이 수업모형의 적용절차를 단계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sup>33)</sup>

- 역할놀이의 상황 선정
- 역할놀이 준비
- 역할놀이 실연자 선정
- 청중의 준비
- 역할놀이 실연
- 역할놀이 실연에 대한 토론과 평가

위에서 역할놀이 상황을 선정함에 있어서 통일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을 제시하여 줄 수 있거나 어린이들 스스로 협의하여 선정할 수도 있다. 그 예로

상황1) 금강산에 소풍을 갔는데 북한어린이를 만나게 되었다.

상황2) 북한어린이가 우리 반에 전학을 왔다.

상황3) 북한 가족이 우리 동네로 이사를 와서 살게 되었다

상황4) 이산가족이 되어서 서울(평양)에서 만나게 되었다.

### ② 통일지도 만들기

모둠으로 나누어 4절 도화지로 우리 나라 지도를 그리고 색종이와 고무찰흙으로 꾸며간다. OHP로 우리 나라 지도를 보면서 산과 강을 먼저 그리고 색종이를 접어서 배, 꽃, 나무 등을 꾸미고 고무찰흙으로 북한사람과 남한사람들, 어린이들이 어울려서 즐겁게 노는 모습을 만들어서 지도 위에 배치한다. 다 완성되면 모둠장이 설명하고 사진을 찍는다. 이것은 모래밭에서 하여도 좋은 활동이다.

---

33) 박성익·권낙원(1989), 「수업모형의 적용 기술」, 성원사, p.260.

### ③ 편지글 쓰기

북한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담은 편지글을 써보게 한다. 국어시간에 배운 편지글의 형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우리 나라의 소식을 전하면서 북한 어린이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한다. 또한 이것을 바꾸어서 자기가 북한 어린이가 되어서 남한 어린이에게 편지를 써보게 하는 방법도 있다.

### ④ 그림이나 카드 만들기

미술시간을 이용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낼 그림이나 카드를 만든다. 특히 어린이날이나 크리스마스가 가까울 무렵 색종이, 반짝이 등을 이용하여 예쁜 카드나 그림을 완성하여 교실에 전시할 수 있다.

### ⑤ 퍼즐게임

통일관련 개념이나 지식, 북한 말 등을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연결시켜 빈칸으로 남아 있는 부분의 옳은 답을 누가 빨리 맞추느냐를 정하는 게임이다. 모둠별로 실시하여 어느 모둠이 빨리 알아 맞추느냐에 따라 모둠별 특혜를 줄 수도 있다. 이 게임은 어린이들이 호기심과 논리적 사고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다.

### ⑥ 통일 주사위 놀이

학생들에게 통일에 대한 열망을 심어줄 수 있는 게임으로 통일윷놀이와 병행하거나 대치할 수 있다. 한반도 지도를 그리고 주사위를 던져서 각 위치의 전시된 설명에 따라 전진과 후퇴, 뛰어넘기, 한번 쉬기 등을 통해 한라에서 백두까지 가장 먼저 도달하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다. 주사위나 윷 대신 가위 바위 보로 할 수도 있다.

### ⑦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어린이들이 부르는 동요가사를 통일관련 가사로 바꾸어 부르도록 한다. 이 활동은 음악 시간에 모둠별로 꾸며서 다 완성되면 앞에 나와서 부르도록 하며 잘 된 것은 반 전체가 따라 부르도록 한다. 이때 OHP 자료를 이용하거나 실물화

상기로 보여주며 부르면 좋을 것이다. 끝나면 교실 게시판에 붙여 준다.

#### ⑧ 만화 완성하기

신문이나 잡지에 나오는 인기 만화의 특정 내용을 글자와 대사만 지우고 어린이들에게 복사하여 나누어준다. 어린이들은 등장 인물들이 하는 대사를 자기 나름대로 구성하여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짓고 완성된 학생부터 연기하는 흥내를 내면서 대사를 발표한다. 이것을 모둠별로 실시하여도 좋다.

#### ⑨ 마인드 맵(Mind map)

「마음의 지도」라는 뜻으로 중심낱말에서 연상되는 생각들을 나뭇가지가 뻗어 나가듯이 그려보는 활동이다. 예를 들어 ‘소풍’이라는 중심 낱말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김밥’, ‘소풍가방’, ‘모자’, ‘물병’ 등이 떠오르는 것을 그림으로 그려보는 것이다. 이것을 통일과 관련된 내용으로 지도하게 된다면 ‘북한어린이’라는 중심 낱말에서 떠오르는 생각은 ‘붉은 머플러’, ‘붉은 리본’, ‘탁아소’, ‘홀쭉하다’ 등을 연상할 수 있다.

이 기법의 장점은 아이디어의 성질이 유사한 것들을 하나로 묶어줌으로써 보다 더 다양한 아이디어를 산출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간의 관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준다. 그리고 이러한 기법을 활용하면 통일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학생의 심리상태와 생활 체험의 폭과 깊이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sup>34)</sup>

#### ⑩ 시청각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

북한 어린이들의 생활과 관련된 VTR, CD 자료 등을 보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하게 하여보거나 글로 써보게 한다. 또한 우리의 생활과 다른 점과 같은 점을 찾아보게 하고 그 이유를 알아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게 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을 더 심화 할 수 있다.

---

34) 최현호(2001), 전계서, p. 130.

- 고학년을 위한 통일교육 지도 방법 -

① 전문가 수첩 만들기

‘미니북 만들기’로 ‘이것만은 내가 전문가’라는 생각으로 북한관련 내용 중, 하나를 선택하여 자료를 찾고 정리하여 하나의 수첩을 만드는 활동이다. 모둠별 또는 개인별로 북한의 관광지, 북한의 유물유적, 북한의 민속놀이, 북한의 학교제도, 북한의 가족제도, 북한의 생활문화 등을 선택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토론학습 수업모형

한 주제를 놓고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서로 상대팀에 대하여 논박을 하는데 합당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게 한다. 서로의 토론을 거쳐 합의된 해결 방안을 마련한다. 토론학습을 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과제부여

부여받은 주제에 대하여 찬성 및 반대 의견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 계획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한다. 다른 팀을 설득할 수 있는 충분한 논거를 확보하도록 한다.

○ 변호

자신들의 입장을 상대방에게 발표하도록 한다. 그리고 자신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거부하는 전체 토론에 참여하여 최상의 결정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한다.

○ 입장교환

서로 입장을 바꾸어 본다. 반대했던 팀이 찬성하는 팀이 되어본다.

○ 합의도출

양측의 입장에서 최상의 정보와 추론이라 여겨지는 것을 하나의 합의된 해결 방안으로 종합한다.

○ 보고서 작성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다.

### ③ 탐구학습 수업모형

탐구학습은 고정된 내용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탐구 영역 속에서 교사와 학생들이 함께 지식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다.<sup>35)</sup> 어린이들에게 흥미 있는 문제를 선택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할 때 그 과정에서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될 것이다. 탐구학습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 문제상황의 제시

비디오테이프, 이야기 읽기 자료, 교사의 이야기, 만화, 신문을 이용하기, 역할극 내지 연극, 녹음된 자료, TP자료, 사진 및 화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문제상황을 제시할 수 있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한 두 개 정도의 질문만을 포함시킨다.

#### ○ 탐구문제의 확인

주어진 상황에서 무엇을 탐구할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교사는 도움을 주어야 한다.

#### ○ 탐구문제의 세분화

탐구문제나 주제를 보다 세분화한다. 탐구주제의 의의, 탐구내용의 범위, 탐구문제와 관련된 내용의 한계 등을 결정한다.

#### ○ 탐구계획의 수립

학생들이 탐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내용을 요약하는 방법과 탐구결과를 발표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집단 또는 개별로 지도한다.

#### ○ 탐구의 실시

교사는 뒤에서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탐구를 수행하고 있는지, 합리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지도한다.

#### ○ 탐구결과의 발표

탐구를 끝낸 후에 자신들이 발견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게 된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발표할 수 있다. 각 집단의 조사, 발표 내용에 대하여 의문이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있다. 또한 조사, 발표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에 들어

---

35) 이근철·오기성(2000), 전제서, p. 215.

갈 수 있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발표내용을 종합하여 요약, 정리를 해줄 수 있다.

○ 탐구에 대한 평가

탐구가 끝나면 학생들은 탐구과정에 있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반성해봄으로써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탐구주제의 학습이 아니라 탐구과정의 활동과 각 단계가 토의의 주제가 된다.

④ 개념분석 수업모형

통일교육 내용에는 다양한 개념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통일정책과 관련해서 남북한의 통일접근과정에서 체결된 많은 합의서나 공동 성명 그리고 양측의 통일방안 등에는 그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요구되는 것들이 많이 있다. 따라서 통일문제에 대한 남북한의 관점을 보다 분명히 파악·비교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여러 문건들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는 것도 통일교육에서 매우 중요하다.<sup>36)</sup> 개념분석 수업모형에서 교사는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 학생들이 잘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가 개념의 의미를 점차로 수준을 높여가며 사고하도록 도와주고 안내하는 일이다. 이 모형은 대체로 6단계로 구성된다.<sup>37)</sup>

○ 분석될 개념의 식별

문제사태의 내용을 파악하여 본시에 분석할 개념을 식별해 내는 것이다.

○ 개념의 전형적 사례 확인

개념이 전형적 사례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권과 동일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속성을 고찰함으로써 분석할 수 있다. 즉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모습으로서 인권이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다.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사례( 법 앞의 평등,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등) 보다는 학생들이 접할 수 있는 가정, 학급, 학교에서 사람들의 권리가 존중되어지는 사례를 찾아보는 것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어떤 모습인지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6) 인천광역시 윤리교과연구회(1997), 「통일교육을 위한 주제별 교수-학습 자료집」, pp.35~44; 상계서, p.220에서 재인용.

37) 서강식(1999), 「도덕·윤리과 수업모형」, 양서원, p.70.; 상계서, p.220에서 재인용.

○ 반대 및 경계 사례 확인

개념의 전형적 사례와 반대되는 사태를 확인한다. 반대되는 사태를 찾아보는 것은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이 적어도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하는가, 또 어떤 특징과 대조적인가를 확인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침으로써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관련 개념 혹은 사태들의 파악

관련된 개념과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의 논리적 관계를 밝힘으로써 분석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의 없는 우정은 가능한가?”. “신의만 지키면 우정은 가능한가?” 등의 질문을 통하여 신의와 우정이라는 두 개념들의 논리적 관계를 밝혀낼 수 있다.

○ 가상사태의 상상 및 검토

이 단계는 개념분석과정을 통하여 보다 명확해진 개념이 올바르게 정립되었는지 가상의 상태를 상상하여 검토해 보는 단계이다. 여러 사태에를 통하여 확립된 개념을 또 다른 사태에 적용시켜 보는 단계이다.

○ 분석결과 정리

앞에서 분석한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개념의 정의를 확립하도록 하는 단계이다.

⑤ 시사자료(NIE) 활용 수업모형<sup>38)</sup>

시사자료 활용 수업이란 주로 수업에서 다루어야 하는 특정주제와 관련된 기사를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데, 최근에는 NIE(Newspaper In Education)방법으로 널리 알려졌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 그리고 남북관계의 상황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통일교육은 이와 같은 변화에 부응하는 내용과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사자료 활용 수업은 매우 적절한 수업모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새로운 통일교육에서는 학생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북한주민이나 학생들의 생활, 가족관계 등과 같은 것들이 소재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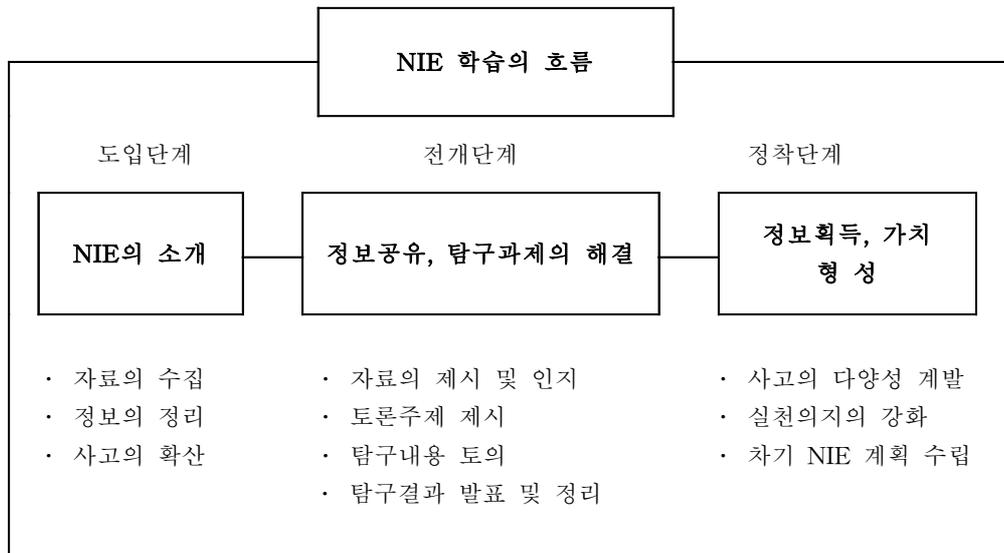
---

38) 상계서, pp.222~223.

는데, 신문에 보도되는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활용하여 수업을 진행하면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남북 분단에서 오는 사회, 경제, 문화적 손실과 낭비, 이산가족들의 고통, 북한 주민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전하고 있는 기사들뿐만 아니라, 통일문제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신문에 실리곤 하는데, 이런 것들을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일정한 학습 주제를 설정하고 그 주제에 관한 각종 시사 자료들을 학생이 수집한 다음, 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신문기사가 교육적이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정확하지 않을 때도 있다. 따라서 교사는 학생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시사자료를 감안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시사자료를 활용한 수업모형의 전개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V - 1> NIE 수업 모형



⑥ 가치갈등 수업모형<sup>39)</sup>

이 모형은 사회의 중요한 논쟁점들을 둘러싼 상이한 가치 입장을 수업에 도입하여 이를 자세히 분석하는 동안에 학생들로 하여금 그 문제와 가치갈등의 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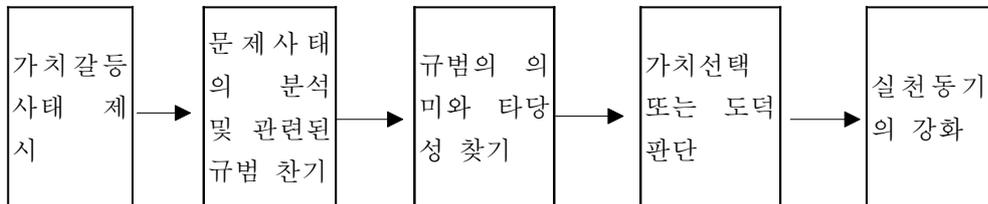
39) 상계서, pp.224~225.

방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 또는 관점을 갖출 수 있도록 해준다. 이 모형은 ‘법리 모형’이라고도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법정이 재판관이 하는 일과 같은 성격의 일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반면, 가치갈등 분석모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모형에서 가치갈등이 제시되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 갈등을 분석해 내도록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단상황이 50년을 경과하는 동안 남북한간에 벌어진 이질감이 증폭되면서 불필요한 오해나 마찰이 빈발하고 있고, 통일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심리·사회적 통합을 신속히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남한과 북한 사이에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점검해보고, 서로의 ‘같음’과 ‘다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가치갈등 수업모형이 적극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가치갈등 수업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V- 2> 가치갈등 학습 기본 과정



⑦ 미완성 문장 완성하기

미완성 문장을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완성시키도록 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면

- 북한 주민들을 동포로 여기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나는 ( )할 것이다.
- 민족공동체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 )해야 한다.

⑧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통일교육

최근에는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문자는 물론, 비디오, 사진, 영화, 오

디오 등 다양한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되었고, 첨단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초월한 원격 교육이 가능해졌다.

인터넷은 소장된 정보의 양이 거대하므로 인터넷에서 한반도 통일과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는 활동은 그 자체로 교사와 학습자에게 커다란 의미를 줄 수 있다. 인터넷 정보검색을 통하여 교사는 강의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학생들은 관련된 정보를 검색하면서 정보의 취급능력을 배울 수 있다.

통일교육 현장에서 ‘정보검색 이용법’의 활용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기존의 강의법이나 토론법과 병행하여 활용할 수도 있으며, 정보검색 활동 그 자체를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최근의 북한 동향에 관한 강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학습자 스스로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토론에 임하게 할 수도 있다. 40)

#### ⑨ 가상 체험학습

가상체험학습(simulation teaming)모형이란 현실적으로 체험이 불가능한 학습내용을 모의실험 형태로 체험하게 하는 수업으로 컴퓨터 기법을 응용한 수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모형은 북한에 대한 이해를 이론적인 학습에만 의존하지 않고 실제 상황에 직면하는 것처럼 설정하여 북한 주민들의 삶을 보다 더 잘 이해하게 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발견하게 하는데 커다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관련된 생생한 1차 자료가 많이 필요하며, 이를 교육적으로 재구성하는 ‘교육적 상상력’이 요구된다. 또한 통일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그 상황을 모의 상황으로 설정하여 수업을 진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41)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고, 별도의 CD-ROM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도 있다. 별도의 CD-ROM을 만들어 북한의 현실을 가상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한 곳에 모아둘 수도 있다.

40) 이근철·오기성(2000), 전계서, pp. 242~243.

41) 인천광역시 윤리교과연구회(1997), 「‘97교육부 지원 교과연구활동 윤리교과연구자료집」, pp.43~44; 상계서, p.235에서 재인용.

⑩ 시청각 매체 활용

시청각 매체의 활용을 위한 자료의 선정은 수업목표와 수업방법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청각 매체를 활용한 수업 설계는 시청 전 사전점검, 시청활동, 시청 후 활동으로 이루어진다.

○ 시청 전 점검

효과성: 학습목표의 달성에 도움을 주는가?

효율성: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는가?

매력성: 학습자들이 재미있게 볼 수 있는 내용과 구조인가?

안전성: 학습자들에게 도덕적으로 안전한 내용인가?

선수학습면: 학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며 사용된 언어는 학습자의 수준에 적절한가?

기술성: 화질과 음질은 양호한가?

설비면: 활용하는 장비의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환경면: 활용하는데 필요한 환경은 구성되어 있는가?

주의집중성: 학습자들의 주의를 집중하기에 충분한가?

시사성: 최신의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는가?

○ 시청활동

시청 중의 유의 사항은 시청도중 학습자들의 반응을 관찰하면서 내용을 이해하는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확인한다. 보충설명이나 내용의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한다. TV이나 스크린에 확대되어 제시된 결론이나 사건의 인상에 대한 오해나 착각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 보충설명을 하는 것이 좋다.

○ 시청 후 활동

시청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간단한 질의, 응답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청시간이 길었다고 생각되면 꼭 정리하도록 하며, 시청 중에 한 메모를 토대로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추가설명을 한다. 또한 시청 내용에 직접 해보는 활동이 요구되는 것이면 함께 해보도록 한다.

## 2.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남북한이 분단과 대결 상태를 청산하고 서로 화해하고 협력하여 공존의 틀을 만들기 위해 우리가 추구할 가치는 무엇이며, 교육은 어떠한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가 현실적으로 상호 대비되는 관점이 제기되고 있다.

그것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유주의와 한 집단과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공동체의 가치가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통일의식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듯이, 개인주의,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사회에서 태어나고 자란 청소년들이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통일자체에 대한 거부감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교육이 그 동안 민족의 동질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체제의 우월성과 이질성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해협력 시대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평화공존을 위한 정부, 학교, 교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해 본다.

### 1) 정부의 역할

남북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통일교육의 흐름도 새롭게 조명될 것을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통일교육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교육은 일반 과학적 지식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가치 중립적 교육이 아니라 가치 개입적 교육이라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각급학교, 단체나 기관마다 교사나 교수, 강사요원마다 모두가 잣대가 상이하기 때문에 혼돈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sup>42)</sup>

서독은 통일 이전에 연방정치교육센터의 지원하에 다양한 민간단체와 학교를 통해 통일대비 정치교육을 시행하여 왔다.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에 따라 가치 판단의 기준을 명백히 설정하여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에 대한 주입식

---

42) 이근철·오기성(2000), 전게서, p.336.

교육보다는 사실 그대로를 통한 교육으로 학습자 자신이 판단을 유도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 후에 나타나는 의식과 행동에서 많은 차이점으로 심리적인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런 사례를 고려하여 정부는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교육의 실태와 요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여 통일교육에 대한 기준과 그에 따른 프로그램, 자료 및 교재 등을 제공해 주어야 하며 교사들에 대한 재교육도 실시해야 한다.

## 2) 학교의 역할

단위학교 책임경영제는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제안으로 초·중등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게 함으로써 실현될 수 있었다. 학교장이 확고한 경영철학의 정립하에 조직관리, 인사, 재정 및 교육과정운영상의 자율권을 갖고 학교를 운영하며, 학교운영결과에 대한 책임도 지게 하는 학교경영체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① 교과통합적 운영강화, ② 교과활동과 재량활동, 특별활동의 강화, ③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과정 확대 등이 가능하게 되어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실현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여건 변화로 단위학교 학교장은 화해·협력 시대에 통일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추진과제 구현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의 지원체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하여 통일교육협의회를 구성했으나 정치권의 합의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구실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일선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해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지도하게 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교사들의 식견에 따라 아직 비판능력이 없는 청소년들이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장 책임하에 통일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학교장은 통일 담당교사를 선정하고 그로 하여금 단위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행사, 프로그램, 등을 계획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통일 관련 자료 및 인터넷 사이트 등을 안내하여 다른 교사들이 수업 중에 쉽게 활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학교장은 실정법의 개정이나 교과서의 개정이 교육현실과 시차가 있음을 감안하여 통일교육 담당교사들에게 ① 포용정책의 추진기조, ② 정상회담의 후속조치, ③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지침, ④ 서독의 통일교육 교훈 등을 근거로 하여 재량권을 발휘, 통일교육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독의 통일교육 교훈을 남북한의 실정에 맞게 적용해야 할 것이며, ① 이데올로기에 대한 대립을 삼가도록 하고 ② 한반도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인정케 하며 ③ 통일은 동북아의 긴장완화를 통해 가능함을 인식하게 하고 ④ 분단의 원인은 일제의 군국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이해토록 하며 ⑤ 남북의 체제비교는 남한의 헌법이 제시한 가치를 기준으로 수행토록 하고 ⑥ 북한 주민들의 인권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남한인들의 인도주의적 의무임을 인식하게 하며 ⑦ 북한인들도 북한의 발전에 대해 나름대로 긍지를 갖고 있음을 인정토록 해야 할 것이다.<sup>43)</sup> 그러나 학교장이 통일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거나 다른데 더 중점을 두어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면 통일교육은 결코 활성화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연수를 교사들뿐만 아니라 학교장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장들로 하여금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확고한 의지로 교육과정에 반영시키고 학생들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하며 통일교육 환경조성에 힘쓰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교사의 역할

통일교육이 단위학교 수준과 특성에 맞게 자율성을 가지고 추진하게 된다면 교사들은 교육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생들의 발달 수준과 관심과 흥미도, 인지도를 감안하여 눈높이 통일교육이어야 한다. 즉, 지금까지 강의식, 전달식 교수기법에서 학생활동 중심의 다양한 수업방법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

43) 한용원(2002), 「통일정책·교육론」, 오름사, pp.197~199.

일반적으로 학습자들은 자신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더 잘 배우는 경향이 있다. 학습동기는 학습자들이 공부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이다. 말을 연못으로 끌고 갈 수 있을지라도, 말이 물을 먹느냐 마느냐는 말의 의지, 욕구에 달려 있듯이, 아무리 훌륭한 학습환경을 마련하고 좋은 수업을 제공한다 하여도, 학습자가 열의를 가지고 공부에 임하느냐는 학습자가 충분히 동기유발 되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학습자의 동기 변인을 고려하지 않은 어떠한 수업 방법도 그 성공을 보장할 수 없겠다고 하겠다.<sup>44)</sup> 따라서 학생들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깊은 소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저학년 학생들은 같은 또래의 북한 인민 학생의 학교생활, 무엇을 배우는지, 무슨 활동을 하는지를 알아 통일교육에 흥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예로, 생활 문화적 접근에 의한 통일교육 자료로는 북한 학생들의 교육 관계의 특징이나 소년단 활동, 꼬마 활동, 등 현재 북한에서 실시하고 있는 학생들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5)</sup> 이러한 면을 고려하여 2000학년부터 초등학교에 보급된 「통일」 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어린이들 생활 중심으로 북한에 대해 알기 쉽게 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앞의 설문조사 <표 IV- 11>, <표 IV- 12>에서처럼 이 자료가 교사용으로 학급당 한 권씩만 배부되어 사실상 활용도가 낮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통일교육 관심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어린이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 배우고 싶어하는 것을 배울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여 통일교육에 대하여 어린이들이 늘 보면서 생각하게 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4) 최현호(2001), 전게서, p.140.

45) 한만길 외(2000), 전게서, p.93.

## VI. 결론: 요약 및 제언

### 1. 요약

남한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높이 치켜올린 2000년 6월 15일 남북정상회담은 우리 역사에 커다란 이변이었다.

남북이 분단된 지 50 여 년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고 살아온 두 체제의 정상이 서로 만나 그 동안의 불신과 반목, 갈등이 사라지고 화해와 협력, 공존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였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 그에 알맞은 교육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변화된 통일교육을 지도하는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초등학교 일선교사들에게 통일교육에 대하여 새롭게 인식하도록 하며,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높여 통일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초등학교 통일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지금 초등학교 어린이들은 통일시대에 살아갈 주역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물질이 풍족한 시대에 태어나 분단의 고통, 북한의 현실, 통일의 필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요즘 어린이들이 통일 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극복할 수 없을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의 올바른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교사들이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도해야 할 것이다. 반공교육에서부터 통일안보교육으로 이어지던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2000년부터 지급된 「통일」 교재는 시대를 반영하여 획기적으로 달라진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그러나 통일교육의 필요성은 인식하면서도 막상 지도하려면 어느 시간에 무엇을 어떻게 지도해야할지 어려워하고 있다.

따라서 IV장에서 초등학교 일선 교사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와 교사들의 통일의식을 파악해본 결과,

### 바람직한 측면에서

첫째, 대부분의 교사가 남북한 이질성이 심화되지 않기 위하여 통일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통일교육 시간은 연간 10시간 이내로 대부분 도덕(바른생활)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고 있다.

둘째,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은 민족공동체의식 및 동질성 회복교육으로 통일교육 지도 시에 가장 염두에 두고 지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료 확보 및 제공, 교사의 인식 제고, 시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통일교육을 할 때 신문·잡지, 인터넷·CD 등의 자료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셋째, 「통일」 교재의 특징으로 남북한 생활상 비교와 민족 동질성 및 통일에 대하여 접근하였다고 보아 과거의 교육 내용에 비해 통일 지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 개선되어야 할 측면에서

첫째, 「통일」 교재가 바람직하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사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은 활용할 시간이 확보되지 않거나 「통일」 교재가 교사용만 지급하였기 때문에 다른 자료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일 교재를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할 것을 원하고 있다

둘째, 대부분의 교사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도는 보통이며 통일연수 수강여부에서도 소극적이어서 앞으로 통일교육이 활성화되려면 교사의 관심을 높이고 통일연수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통일교육을 실시할 때 수업형태는 교사 주도의 설명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 지도 방법이 개선되어야 함을 바라고 있다.

셋째, 통일교육 행사는 년 2~3회 정도로 6·25를 전후하여 글짓기, 그리기 및 포스터 그리기 등 극히 제한된 프로그램으로 실시하는 정도이다.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일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과 제공이 필요한 것으로 제안하고 있다.

넷째, 통일교육을 하는데 가장 어려운 점으로는 통일교육 내용의 방향과 한계점을 지적하여 통일교육의 목표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북한의 변화 및 통일정책의 평가, 통일시기와 관련해서

첫째, 우리나라의 통일형태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완전히 하나를 이루는 상태를 생각하고 있으며,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금씩 태도가 변하여 가고 있다고 하는가 하면 북한이 체제유지를 위해서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교사들의 의식에서도 남남갈등의 소지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햇볕정책은 여·야가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아 정부의 일방적 지원보다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지원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셋째, 북한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지 않는 한 앞으로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65%의 교사들이 2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아 지금부터 통일교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남북한 이질화가 심화되어 통일 후의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V장에서 통일교육 지도방법으로 저학년에서는 놀이와 조작활동을 중심으로 한 역할놀이, 통일지도 만들기, 퍼즐게임, 그림이나 카드 만들기, 통일 주사위 놀이, 만화완성하기, 편지글 쓰기, 노래가사 바꾸어 부르기, 마인드 맵, 시청각자료 보고 느낌 말하기, 고학년에서는 탐구, 토론, 가치갈등을 중심 활동으로 한 전문가 수첩 만들기, 토론학습 수업모형, 탐구학습 수업모형, 시사자료(NIE)활용 수업모형, 가치갈등 수업모형, 컴퓨터를 통한 사이버 통일교육 및 가상체험학습 등을 소개하였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매야 보배”라 듯이 통일교육도 다른 교육과 마찬가지로 일선현장에서 실시해야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정부, 학교, 교사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첫째, 정부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목표와 내용을 정비하여 「통일교육의 지침서」와 같은 기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꾸준히 실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하여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준안이 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위한 법과 여러 가지 제도를 정비하여 일선교사들이 통일교육을 하는데 혼란이나 갈등이 야기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을 범교과적으로 확대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부분적 개편이나 교과내용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며, 시간확보, 교사들에 대한 연수 및 자

료제공에 대하여 과감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에서는 청소년들이 약화된 통일의식을 높이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통일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교장이 통일교육에 대하여 확고한 경영의지가 필요하다. 다양한 통일교육 프로그램 선정 및 행사, 체험학습에 대한 허가 등에 대하여 학교장의 재량권을 발휘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하고 통일교육 환경조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교사들이 나름대로 통일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들이 다른 시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교사들은 수요자 중심교육으로 통일교육을 접근해 가야 할 것이다. 북한의 현실과 통일문제에 대하여 실감하지 못하는 초등학생들에게 통일의 당위성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생활 중심에서 알고 싶어하는 내용으로부터 눈높이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사실 북한에 대하여 알 수 있는 방법은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하여 아는 정도이다. 더 많은 자료를 다양하게 제공되어 학생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수업방법도 강의식보다는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어린이 활동 중심에서부터 사고력을 높여 어린이들 스스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교사 자신이 통일문제와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식견을 바르게 넓힐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2. 제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통일교육에 대한 관점이 크게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다. 이런 변화는 새로운 관점으로 북한을 바라보게 되었고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교류가 남북한 사이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사회·문화적 교류분위기에 맞물려 통일정책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거나 통일교육이 급격하게 바뀌어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학교통일교육의 바탕은

첫째, 평화통일을 원칙으로 하여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시켜 나가야 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통일교육 내용은 그동안 상실되었던 우리 민족의 문화와 전통, 관습과 언어, 역사와 민족정신을 되살리는 민족 공동체 의식을 심어 우리는 한민족임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현시점에서 북한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평화적인 방법으로만이 접근 가능한 것이다.

초등학생들에게 북한이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닌 우리 이웃의 이야기며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제주도가 ‘같음’과 ‘다름’이 있는 것처럼 북한도 우리와 ‘같음’과 ‘다름’이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로부터 인식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후에 통일된 한민족 국가 시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성숙한 한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미래 사회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지혜를 어렸을 때부터 터득하게 해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책임과 의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단행본>

1. 김경호(2001), 「국제정치환경과 한반도 통일」, 세종출판사.
2. 김근식 외(2000),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 아태평화재단.
3. 김응모·최호철(2000), 「통일대비 남북한어 이해」, 세종출판사.
4. 구분영(2000), 「인터넷 시대의 통일」, 나남출판.
5. 박성익·권낙원(1989), 「수업모형의 적용 기술」, 성원사.
6. 박찬석 외(2000), 「통일교육론」, 백의.
7. 이근철·오기성(2000),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으로 이해하는 통일교육론」, 엑스펠드워드.
8. 이영선(1998), 「통일을 위해 남한도 변해야 한다」, 오름사.
9. 정세구(1998), 「통일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교수기법 개발」, 통일교육원
10. 추병완 외(2002), 「통일교육론」, 도서출판.
11. 최현호(2001), 「학교통일교육과 북한사회 이해」, 공주대학교 출판부.
12. 한국통일연구회(2000), 「통일」, 초등학교 인정교과서(교사용 교과서), 통일부.
13. 한만길 외(1997), 「학교통일교육 내용의 체계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4. 한만길(1997),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5. 한만길 외(2000), 「남북한 화해협력 촉진을 위한 통일교육의 과제」, 통일연구원.
16. 한만길(2001), 「통일교육의 이론과 실천」, 교육과학사.
17. 한용원(2002), 「통일정책·교육론」, 오름사.

### <학위논문>

1. 김기완(1999),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와 통일의식 조사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노인숙(2000), “통일을 대비한 초등학교 열린 통일교육방안”, 부산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3. 박상만(1999), “통일교육의 현황과 개선방향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4. 박형식(2001),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변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5. 송예나(2001),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 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안향기(2001), “남한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7. 이강승(2001), “탈냉전 이후 남·북한 통일정책의 변화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경영행정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8. 이왕조(2000), “초등교사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정진호(2001), “한반도 통일환경의 변화와 통일정책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통일안보복지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0. 하승균(2000), “남북한 통일과정과 역사교육의 과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1. 한응석(2000), “남북한 통일정책에 따른 초등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 청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학술논문집과 정기간행물>

1. 고성준(2001), “남북 화해·협력시대 제주위상 정립을 위한 교육적 과제”, 「교육제주」, 2001년 봄호 제109호, p.22.
2. 김영수(2000), “남북관계의 변화와 전망”, 신아시아 가을호, 신아세아연구소.
3. 김충환(2001), “학교통일교육의 현안과 과제”,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지원과.
4. 김학준(2000), “한국사회 이념 논쟁”, 동아일보 2000, 12, 11, 제24691호.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1), “국제사회가 지지하는 대북 화해협력정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6. 북한연구학회(1999), 「북한연구학회보」 제3권 제 1호.

7. 손혁재(2001), “남북화해시대 시민사회 통일운동의 새로운 방향”, 민주통일자문회의.
8. 양길현(2001), “신남북시대의 평화공영과 연합제-낮은단계의 연방제”, 「국가전략」 제 7권 4호, 세종연구소
9. 이송배(2000), “학교통일교육의 실태와 개선방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0. 이향규(2001), 「극동문제 연구소·북한대학원 소식」, 제56호(2001년 4월호).
11. 유호열(2001), “대북정책추진의 국내적 기반연구”, 북한학회 2001 하계세미나 자료
12. 정세현(2001),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13. 통일부(2001), “통일교육 기본지침서 개정(수시지침)”, 통일부
14. 통일부(2001), “2001 통일부 정부업무 평가 결과(주요 정책과제 평가자료), 통일부
15. 최현호(2001), “화해협력시대의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5권 제 2호, 북한연구학회
16. 한국국민윤리학회(2000), 「국민윤리연구」 제 45호.

<Abstract>

A Study of Educational Methods for Teaching about Reunification and  
Motivating Student Learning about this Topic in Elementary Schools Since the  
South-North Summit Meeting

-Focus on Research on Reunification Awareness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Jeju-

Kim, Hong-seon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d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un

The South-North Summit Meeting on June 15th had a great influence on our Korean history. We Koreans have regarded North Korea as an enemy and both sides have shown hostility toward each other since the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t is currently changing. The new era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that we had never imagined before has started with exchanges such as meetings of separated family members, the South-North officials' negotiations, financial officials' talks, and the trips to Gungangsan, etc. This is the result of President Kim Dae Jung's "Sunshine Policy." So we need to seek new methods and lesson plans on reunification education. So far, the young generation has been minimal interested in reunification, because we only emphasized the necessity of reunification. So we need to understand the present situation of North Korea and try to teach our students appropriate content. However, most teachers are not adequately informed nor are they willing to accept the problems of the changing educational policies of reunifica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evelop methods of reunification education which can be more effective in elementary schools through the

surveying of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Jeju about the reality of reunification education and teachers' awareness since after the South-North summit meeting. In addition, this thesis focuses on increasing the teachers' interest in reunification education and reunification problems. It also concentrates on encouraging them to develop better teaching methods to instruct about the issues in a more positive way. This thesis will present current problems of reunification education and giv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For example, in spite of the provision of Reunification, a textbook which contains valuable content, my research demonstrates that teachers have not used the materials properly. It would be more effective to provide all students with this textbook which thus far only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s have received since 2000. Also, this thesis mentions securing teaching hours and various teachers' workshops. It also suggests developing and providing programs on reunification education, and teaching methods as ways of improving the educational system to focus on the targets and contents of reunification education.

In conclusion, elementary school teachers must choose suitable content and teach it to our students in various ways. If we operate in this manner, our students will have less conflict when the era of reunification of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achieved. In order to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education, the teaching methods for low grade students and the teaching methods for high grade students are presented separately in this thesis. Lastly, this thesis will aid in defining the roles of government and teachers in the reconciliation process. Better reunification education will foster more interest and will help to devise proper and efficient methods to achieve mutual cooperation and eventua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2.

# 부 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어린이 지도와 업무에 바쁘신 선생님께 이런 글을 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설문지는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 변화에 대하여 평소 선생님께서 지도하시는 통일교육에 대한 실태와 의견을 들어보고, 초등학교에서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오니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학위 논문 작성과 연구의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며 선생님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1. 12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김 홍 선 올림

※ 다음 내용의 해당 난에 V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성별: (1) 남( ) (2) 여( )
2. 연령별: (1) 20대( ) (2) 30대( ) (3) 40( ) (4) 50대 이상( )
3. 담임학년: (1) 1~2학년( ) (2) 3~4학년( ) (3) 5~6년( )
4. 규모별: (1) 6~18학급( ) (2) 19~36학급( ) (3) 37학급이상( )
5. 소재지별: (1) 시( ) (2) 읍·면 지구

◆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선생님의 의견과 일치되는 번호에 V 표를  
해주시거나 ( )에 간단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6·15 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를 보시면서 선생님은 통일교육의 필요성에 대하  
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② 꼭 필요하지는 않다. ③ 필요하지 않다. ④ 잘 모르겠다.

1-1. 문제 1에서 ①항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

통일교육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한 핏줄 한 민족이므로  
② 남북한 이질성( 문화, 가치)이 심화되기 않기 위하여  
③ 통일 후 사회적 혼란이 야기되지 않기 위하여  
④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1-2. 문제 1에서 ② ③항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

통일교육을 꼭 할 필요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통일이 된 후에 하여도 충분하다  
② 통일이 된 후에 잘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③ 우리(남한)만 잘 하여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④ 달리 해야 할 교육이 많으므로

2. 선생님은 통일교육을 연간 몇 시간 정도 계획하십니까?

- ① 0~5시간 ② 6~10시간 ③ 11~15시간 ④ 15~20시간 ⑤ 20시간이상

3. 계획된 통일교육은 현재(12월말 기준) 몇 시간 확보하여 지도하십니까?

- ① 0~5시간 ② 6~10시간 ③ 11~15시간 ④ 15~20시간 ⑤ 20시간이상

4. 선생님께서는 통일교육은 주로 어느 시간을 이용하여 지도하십니까?

- ① 도덕(바른생활)시간 ② 재량활동시간 ③ 특활시간 ④ 기타( )

5. 선생님께서는 2000학년도부터 발간 배부된 교사용 「통일」 교재를 어느 정도 활용하십니까?

- ① 늘 활용한다. ② 가끔 활용한다. ③ 활용해 본적이 없다.

5-1. 문제 5에서 ① 항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

「통일」 교재는 어느 시간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십니까? ( )

5-2. 문제 5에서 ② ③항에 응답하신 분만 해당

「통일」 교재를 잘 활용할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활용할 시간이 없어서      ② 다른 자료를 이용하다보니까  
③ 어린이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④ 내용이 좋지 않아서

6. 「통일」 교재는 교사용만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지급처럼 교사에게만 지급하여도 통일교육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② 전 어린이들에게 보급하는 것이 통일교육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③ 상관없다.

7. 2000학년도부터 보급된 교사용 「통일」 교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8. 현재 「통일」 교재의 내용은 과거 통일관련 교재(도덕, 바른생활) 내용과 비교하였을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되십니까?

가. 현재의 통일교육 내용:

나. 과거의 통일교육 내용:

9. 앞으로 「통일」 교재 내용을 더 보완한다면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되십니까?

( )

10. 선생님께서는 학교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높은 편이다.    ③ 보통이다.
- ④ 별로 관심이 없다    ⑤ 전혀 관심이 없다.

11. 통일교육을 하실 때 선생님께서는 어떤 자료를 많이 이용하십니까?

- ① 「통일」 교재                      ② 신문·잡지
- ③ 인터넷·CD자료                  ④ 평소 아는 대로

12. 선생님께서는 평소 통일교육을 하시면서 어떤 점을 가장 염두에 두시고 실시하십니까?

- ① 우리민족의 공통성    ② 남·북한의 생활상 비교    ③ 민주주의의 우월성
- ④ 북한의 어려운 경제사정    ⑤ 이산가족의 슬픔    ⑥ 평화통일    ⑦ 반공의식

13. 선생님께서 통일교육을 실시하실 때 어떤 수업 모형을 자주 적용하게 되십니까?

- ① 교사 주도의 설명식 수업              ② 어린이 중심의 발표 및 토의학습
- ③ 역할놀이학습                              ④ 과제 조사학습
- ⑤ 시청각 자료 활용 학습                  ⑥ 기타( )

14. 선생님께서 맡고 있는 반 어린이들이 통일교육에 대한 관심은 어떠하다고 생각되십니까?

- ① 매우 높은 편이다.                      ②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편이다.
- ③ 별 흥미 없게 참여한다                  ④ 다른 수업 시간과 마찬가지로이다.

15. 선생님이 근무하시는 학교에서는 통일교육에 대한 행사는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십니까?

- ① 0~1번    ② 2~3번    ③ 4~5번    ④ 6번 이상

16.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통일교육 행사는 년 몇 번 정도 실시하시는지( )속에 횟수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통일관련응변대회( )                      ② 통일관련 걷기·행진대회( )  
③ 통일관련 그리기 및 포스터 그리기( )    ④ 통일관련글짓기대회( )  
⑤ 통일관련 현장체험학습( )                ⑥ 기타 ( )

17.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관련 행사는 1년 중 대개 언제 많이 실시하게 되십니까?

- ① 3~4월에    ② 5~6월에    ③ 7~8월에    ④ 9~10월에    ⑤ 11~12월에

18. 학교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바람직한 통일교육 행사는 문제 16번말고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19. 선생님께서 실제로 지도해 보신 통일교육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

20.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지도해야 할 통일교육 내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민족 공동체 의식교육    ② 역사교육                      ③ 언어교육  
④ 동질성회복교육            ⑤ 민주시민교육                ⑥ 기타 ( )

21. 선생님께서 통일교육을 하시는데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통일교육 내용의 한계    ② 통일교육의 방향    ③ 시수 확보    ④ 자료부족



